

연구보고 2013-10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

도남희 김정숙 하민경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지금까지의 부모의 양육 경감을 우선으로 하는 공급자와 기관중심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추이를 고려한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완전한 건강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부터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생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대사회의 맞벌이 증가, 여성 취업 등으로 인한 부모의 생활패턴 변화, 주양육자의 변화 등이 영유아기의 생활시간에도 영향을 주어 영유아의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이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데 시간조사가 유용하다.

시간조사는 영유아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시간 분배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며 고용, 결혼과 가족의 구조와 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생활시간 사용이 영유아의 성취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라는 객관적 자원을 분석하여,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부모교육에 필요한 정책 설계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 영유아 생활습관을 물론이며,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시간일지를 성실히 기록해 준 부모님들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제한점	21
II. 연구의 배경	26
1. 생활시간조사	26
2. 영유아생활시간조사	35
III. 영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 개관	53
1. 영유아 특성	53
2. 어머니 특성	56
3. 요약	68
IV. 영유아의 생활시간	70
1.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	70
2. 행동영역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83
3. 행동영역별 공유자	89
4. 요약	95
V. 영유아의 연령별 생활시간	97
1.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	97
2. 행동영역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105
3. 연령별 생활시간량	113
4. 요약	148
VI. 영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별 영유아의 생활시간	151
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151

2. 모 양육행동에 따른 생활시간	157
3.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165
4. 요약	171
VII. 결론 및 정책제언	173
1. 결론	173
2. 정책제언	175
참고문헌	181
Abstract	185
부록	187
부록 1. 시간일지	189
부록 2. 부모 질문지	206
부록 3.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표	211

표 차례

〈표 I-3- 1〉 표본 할당	14
〈표 I-3- 2〉 설문지 구성	14
〈표 I-3-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
〈표 I-3- 4〉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 절차	19
〈표 I-3- 5〉 2013년 전문가 회의 개최 현황	21
〈표 II-1- 1〉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현황	27
〈표 II-2- 1〉 24시간 동안 각 활동영역별 소비 시간의 비율	37
〈표 II-2- 2〉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43
〈표 III-1- 1〉 영유아의 키, 몸무게, 체온	53
〈표 III-1- 2〉 영유아의 건강상태	54
〈표 III-1- 3〉 영유아의 기분상태	55
〈표 III-2- 1〉 어머니의 하루 일과 계획 여부	57
〈표 III-2- 2〉 어머니의 시간 부족 이유	58
〈표 III-2- 3〉 어머니의 자녀 하루 일과 계획 여부	59
〈표 III-2- 4〉 어머니의 자녀 하루 일과 계획 시 중점사항	60
〈표 III-2- 5〉 어머니의 자녀 하루 일과 계획 필요성 지각 여부	61
〈표 III-2- 6〉 어머니의 자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주중)	62
〈표 III-2- 7〉 어머니의 자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주말)	63
〈표 III-2- 8〉 어머니의 우울 정도 지각	64
〈표 III-2- 9〉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지각	65
〈표 III-2-10〉 어머니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지각	66
〈표 III-2-11〉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67
〈표 IV-1- 1〉 영유아 생활시간 사용	71
〈표 IV-1- 2〉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73
〈표 IV-1- 3〉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75
〈표 IV-1- 4〉 대리양육 이용의 시간사용	77
〈표 IV-1- 5〉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78
〈표 IV-1- 6〉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80

〈표 IV-1- 7〉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82
〈표 IV-1- 8〉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	83
〈표 IV-3- 1〉 공유자의 일반적 경향	89
〈표 IV-3- 2〉 대상자별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	91
〈표 IV-3- 3〉 대상자별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	91
〈표 IV-3- 4〉 대상자별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	92
〈표 IV-3- 5〉 대상자별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	93
〈표 V-1- 1〉 개인유지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98
〈표 V-1- 2〉 학습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100
〈표 V-1- 3〉 대리양육 이용하기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102
〈표 V-1- 4〉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104
〈표 V-3 -1〉 만 1세 생활시간 사용	114
〈표 V-3 -2〉 만 1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115
〈표 V-3 -3〉 만 1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116
〈표 V-3 -4〉 만 1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117
〈표 V-3 -5〉 만 1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118
〈표 V-3 -6〉 만 1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119
〈표 V-3 -7〉 만 1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121
〈표 V-3 -8〉 만 1세 기타행동의 시간사용	121
〈표 V-3 -9〉 만 2세 생활시간 사용	122
〈표 V-3-10〉 만 2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123
〈표 V-3-11〉 만 2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124
〈표 V-3-12〉 만 2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125
〈표 V-3-13〉 만 2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126
〈표 V-3-14〉 만 2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127
〈표 V-3-15〉 만 2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129
〈표 V-3-16〉 만 2세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	129
〈표 V-3-17〉 만 3세 생활시간 사용	130
〈표 V-3-18〉 만 3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132
〈표 V-3-19〉 만 3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133
〈표 V-3-20〉 만 3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134

〈표 V-3-21〉 만 3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135
〈표 V-3-22〉 만 3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136
〈표 V-3-23〉 만 3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138
〈표 V-3-24〉 만 3세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	139
〈표 V-3-25〉 만 4세 생활시간 사용	139
〈표 V-3-26〉 만 4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141
〈표 V-3-27〉 만 4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142
〈표 V-3-28〉 만 4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143
〈표 V-3-29〉 만 4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144
〈표 V-3-30〉 만 4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145
〈표 V-3-31〉 만 4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147
〈표 V-3-32〉 만 4세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	147
〈표 VI-1- 1〉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개인유지 시간량과 비율	152
〈표 VI-1- 2〉 모 취업여부에 따른 학습 시간량과 비율	153
〈표 VI-1- 3〉 모 취업여부에 따른 대리양육 이용하기 시간량과 비율	155
〈표 VI-1- 4〉 모 취업여부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량과 비율	156
〈표 V-2- 1〉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중 개인유지 시간량과 비율	158
〈표 V-2- 2〉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말 개인유지 시간량과 비율	159
〈표 V-2- 3〉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중 학습 시간량과 비율	160
〈표 V-2- 4〉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말 학습 시간량과 비율	161
〈표 V-2- 5〉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중 대리양육 이용 시간량과 비율	162
〈표 V-2- 6〉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말 대리양육 이용 시간량과 비율	162
〈표 V-2- 7〉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중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량과 비율	163
〈표 V-2- 8〉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말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량과 비율	164
〈표 VI-3- 1〉 성별에 따른 개인유지 시간량과 비율	166
〈표 VI-3- 2〉 성별에 따른 학습 시간량과 비율	167
〈표 VI-3- 3〉 성별에 따른 대리양육 이용시간량과 비율	168
〈표 VI-3- 4〉 성별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량과 비율	170

그림 차례

[그림 I-3-1] 시간일지 조사표 양식 마련 절차	16
[그림 I-3-2] 영유아의 행동 분류 기준 마련 절차	17
[그림 I-4-1] 어머니 양육행동 군집 유형 프로파일	24
[그림 II-1-1] 1일 평균 노동시간	29
[그림 II-1-2] 1일 평균 자유시간	29
[그림 II-1-3] 1일 평균 수면시간	30
[그림 II-1-4] 1일 평균 여가시간	30
[그림 II-2-1] 수면시간	39
[그림 II-2-2] 개인관리시간	39
[그림 II-2-3] 여가시간(활동수행)	40
[그림 II-2-4] 여가시간(운동)	40
[그림 II-2-5] 여가시간(기타)	41
[그림 II-2-6] 이동시간	41
[그림 II-2-7] 어머니의 자녀양육 1일 평균 참여시간(분)	44
[그림 II-2-8] 부+모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1일 평균 참여시간(분)	45
[그림 II-2-9] 한부모(모자)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1일 평균 참여시간(분)	45
[그림 IV-1-1] 주중 및 주말의 전반적인 생활시간 분포	71
[그림 IV-1-2] 주중 및 주말의 개인유지 시간 분포	74
[그림 IV-1-3] 주중 및 주말의 학습 시간 분포	76
[그림 IV-1-4] 주중 및 주말의 대리양육 이용 시간 분포	77
[그림 IV-1-5] 주중 및 주말의 가정관리 돕기 시간 분포	78
[그림 IV-1-6] 주중 및 주말의 교체 및 여가활동 시간 분포	81
[그림 IV-1-7] 주중 및 주말의 이동하기 시간 분포	82
[그림 IV-2-1] 주중 및 주말 밤잠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84
[그림 IV-2-2] 주중 및 주말 식사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84
[그림 IV-2-3] 주중 및 주말 학습지활동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85
[그림 IV-2-4] 주중 및 주말 어린이집 이용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86
[그림 IV-2-5] 주중 및 주말 유치원 이용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86

[그림 IV-2-6] 주중 및 주말 책읽기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87
[그림 IV-2-7] 주중 및 주말 TV시청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87
[그림 IV-2-8] 주중 및 주말 모바일폰 이용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88
[그림 IV-2-9] 주중 및 주말 걷기/산책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89
[그림 IV-3-1] 공유시간의 일반적 경향	90
[그림 V-1-1] 개인유지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98
[그림 V-1-2] 학습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101
[그림 V-1-3] 대리양육 이용하기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102
[그림 V-1-4]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105
[그림 V-2-1] 연령별 주중과 주말 밤잠시간	106
[그림 V-2-2] 연령별 밤잠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106
[그림 V-2-3] 연령별 학습시간의 행위자 평균	107
[그림 V-2-4] 연령별 학습지활동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107
[그림 V-2-5] 연령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행위자 평균시간	108
[그림 V-2-6]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108
[그림 V-2-7] 연령별 유치원 이용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109
[그림 V-2-8] 연령별 미디어 이용과 놀이의 행위자 비율	110
[그림 V-2-9] 연령별 미디어 이용과 놀이의 행위자 평균 시간	110
[그림 V-2-10] 연령별 책읽기 시간의 시간대별 비율	111
[그림 V-2-11] 연령별 TV시청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111
[그림 V-2-12] 연령별 모바일폰이용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112
[그림 V-2-13] 연령별 걷기/산책의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112

요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발달에 적절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조사대상자: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1세~4세 영유아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함(성별구성: 남아 51.2%, 여아 48.8%, 조사연령: 1세 25.6%, 2세 26.6%, 3세 23.6%, 4세 24.2%)
 - 조사도구: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계청(2010)과 김은화(2012)의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시간일지(Time diary)를 사용함.
 - 조사내용: 인구학적 배경, 아동(신장, 체중, 체온, 아동의 시간사용 등)시간일지(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 이용, 가정관리 돕기,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하기, 기타행동), 부모(양육행동, 시간사용, 양육자의 우울)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지 검토,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다. 연구내용

- 연구내용

- 생활시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활시간조사의 대상과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영유아 생활시간 조사의 방향과 적절한 측정 방법을 모색함.
- 영유아의 주중과 주말의 생활시간 기록을 통해 하루 동안의 시간별 생활시간을 파악함으로써 영유아의 기본생활을 이해함.
- 영유아의 전반적 생활시간과 행동영역별 생활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행동영역별 공유자와 공유비율에 대해서 알아봄.
- 영유아의 연령별 생활시간을 파악하여 연령별 생활시간의 특징을 알아봄.
-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어머니의 취업여부, 양육행동, 영유아의 성별 요인에 따라 분석함.
- 영유아의 생활시간 사용, 연령별, 어머니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여 정책제언을 함.

2. 연구의 배경

가. 생활시간조사

□ 국외의 생활시간조사

- 생활시간 조사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생활시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규범, 습성, 가치 등이 반영되며, 시간사용을 통해서 각 나라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음.
- 국제 생활시간 아카이브가 설립되면서 생활시간에 대한 자료로 공통의 분류체계를 가지게 되어 재코드화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국가간 생활시간을 비교하게 됨.
- 각 국가들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생활시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럽통계연합은 유럽지역의 생활시간 자료를 수집하여 생활행동의 분류를 통일시킴.
- 국제생활시간학회에서는 교육, 환경과 에너지, 성, 건강, 여가, 유급노동, 인구, 삶의 질, 여행, 무급노동의 범주로 구분되어 연구됨.

□ 국내의 생활시간조사

- 국내에서는 1981년 KBS의 “국민생활조사”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을 최초로 1995년까지 6차례가 진행됨.
- 1997년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행동분류체계를 마련하였고, 1999년, 2004년, 2009년 3번의 통계청에 의한 조사가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나. 영유아생활시간조사

□ 국외의 영유아 생활시간조사

- 10세 이상의 아동을 중심으로 생활시간 조사가 전개되어 왔으나 전세계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간연구는 미비함.
- 영유아의 생활시간은 사회적 계층, 가족유형, 모의 취업유무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음.

□ 국내의 영유아 생활시간조사

- 국내 영유아의 생활시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수면시간, 식사습관, 배변습관, 놀이습관, 기관생활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으며, 기관의 유형, 연령, 성별에 따른 영유아의 생활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음.
- 영유아의 생활시간에 있어서 시간배분은 가족과 관련성이 높으며, 가족구조(양친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3세대 가족), 모의 취업유무 등에 따라서 영유아의 생활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3. 영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 개관

가. 영유아 특성

- 연령이 많아질수록 영유아의 키와 몸무게의 평균은 증가되고 편차도 증가함. 체온의 경우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영유아의 건강상태와 기분상태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으로 나타남.

나. 어머니 특성

- 어머니가 자신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지 여부에서 아니다가 그렇다보다 다소 높았으며,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서는 직장(일) 29.2%이 가장 높았음.
- 자녀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지 여부에서는 아니다가 그렇다 보다 다소 높았으며, 자녀 일과 계획 시 중점을 두는 사항은 건강 35.9%, 안전 31.8%, 놀이 23.2% 순이었음.
- 시간일지를 작성한 이들 동안 어머니의 우울을 알아본 결과 우울하지 않음이 43.6%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다음 보통 33.6%, 우울함 8.4%로 나타남.
- 어머니의 절반이상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직장, 가정 일 등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응답함.
-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어머니들은 한계설정의 양육행동 보다는 사회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영유아의 생활시간

가.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

- 영유아들의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 대리양육 이용하기에 있어 주중과 주말 시간사용에 차이가 있었음.
 - 주중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13시간 33분, 대리양육 이용 6시간 13분, 교제 및 여가활동 3시간 10분, 이동하기 48분, 학습 13분, 가정관리 돕기 1분 순으로 사용함.
 - 주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16시간 8분, 교제 및 여가활동 6시간 18분, 이동하기 1시간 20분, 학습 7분, 대리양육 이용하기 3분, 가정관리 돕기 2분 순으로 사용함.

나. 행동영역별 공유자

- 대상자별 공유시간의 일반적 경향은 영유아들이 혼자 보내는 비율이 61.9%였고, 공유대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대상은 어머니로 전체의

18.9%였고, 그 다음은 아버지 13.1%, 선생님 11.5%, 형제 자매가 11.1%였음.

- 개인유지의 세부항목에서는 어머니의 공유비율이 아버지의 비율에 비해 높았으며, 학습 또한 어머니와 함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온라인 학습은 대부분 영유아 혼자 참여함.
-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는 영유아가 혼자있을 때는 미디어를 이용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아버지의 참여비율이 높은 항목은 문화,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장난감 없이 놀기 활동에 참여 비율이 높았음.

5. 영유아의 연령별 생활시간

가.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

-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1세 15시간 36분, 2세 14시간 52분, 3세 14시간 33분, 4세 14시간 16분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함.
- 학습의 평균시간은 1세 4분, 2세 8분, 3세 11분, 4세 18분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참여율이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대리양육 이용 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시간이 많아지고,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은 1세가 5시간 3분으로 시간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2세와 3세가 4시간 40분 가량으로 비슷하게 시간사용을 보였으며, 4세가 4시간 30분으로 시간 사용이 가장 적었음.

나. 만 1세의 생활시간

- 1세의 경우 개인유지 행동에 15시간 36분을 사용했고, 그 다음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5시간 3분을 사용함.
- 1세 중 63.3%가 주중에 대리양육 기관을 이용하였고,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6시간 56분 기관에 재원함.
-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58분이었으며, 놀이관련 이

동과 따라가기 이동 참여율이 높았음.

- 학습의 경우 시간사용이 거의 없었음.

다. 만 2세의 생활시간

- 만 2세의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행동에 14시간 52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제 및 여가활동에 4시간 41분을 사용하고 있었음.
- 만 2세 중 82%가 주중에 대리양육 기관을 이용하였고,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7시간 40분을 기관에 재원함.
- 이동하기는 1시간 3분으로 학습, 대리양육 관련이동, 놀이 관련 이동, 따라가기 관련 이동, 기타이동 하기 비율이 높았음.
- 학습에는 8분 사용하고 있었음.

라. 만 3세의 생활시간

- 만 3세의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행동에 14시간 33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제 및 여가활동이 4시간 40분으로 많았음.
- 만 3세 중 약 96%가 주중에 대리양육 기관을 이용했고, 기관을 이용할 경우 7시간 15분을 기관에 재원함.
- 이동하기는 1시간 4분이었으며, 교제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학습, 대리양육 관련이동, 놀이관련 이동의 참여율이 높았음.
- 학습의 경우 1일 평균 11분으로 만 3세 중 26.7%가 참여함. 그 중 학습지 활동의 참여율이 15.7%로 가장 높았음.

마. 만 4세의 생활시간

- 만 4세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14시간 16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제 및 여가관련 행동에 4시간 30분을 사용하고 있었음.
- 만 4세 중 약 98%가 주중 대리양육 기관을 이용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7시간 26분을 기관에 재원함.
-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1시간 11분으로 학습, 대리

양육 관련이동, 놀이관련 이동, 따라가기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비율이 높았음.

- 학습에는 18분 사용했으며 학습지 활동과 기타 학습활동에 참여율이 높았음.

6. 특성별 영유아의 생활시간

가. 모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 개인유지 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보다 시간사용이 더 많았음.
- 학습시간은 주중의 경우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보다 시간사용이 많았으나 주말의 경우 비취업모 자녀보다 취업모 자녀가 시간사용이 더 많았음. 행위자 비율은 주중과 주말 모두 비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참여율이 대부분 더 높았음.
- 대리양육 이용은 주중과 주말 모두 비취업모 자녀보다 취업모 자녀가 시간사용이 더 많았고, 행위자 비율도 더 높았음.
- 교제 및 여가활동은 주중의 경우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에 비해 시간사용이 더 많았으나, 주말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했음. 행위자 비율은 주중의 경우 전반적으로 취업모 자녀가 높았으나, 주말의 경우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음.

나. 모 양육행동에 따른 생활시간

- 개인유지는 주중과 주말 모두 방임형의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음.
- 학습의 평균시간은 민주형 자녀가 주중 16분, 주말 11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하위항목 중 학습지 활동 행위자 비율이 모 양육행동에 관계없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
-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 주중 행위자 비율이 통제형 자녀 90.1%, 민주형 자녀 81.2%, 적대형 자녀 81.7%, 방임형 자녀 79%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말 모 양육행동별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은 거의 유사

했음.

-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주중은 적대형 자녀, 주말은 민주형과 통제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음.

다.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 개인유지 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음.
- 학습 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남아가 2분 정도 시간사용이 많았음.
- 대리양육의 경우 주중 남아 6시간 16분, 여아 6시간 6분, 주말 남아 1분, 여아 4분으로 주중은 남아 주말은 여아의 시간사용이 많았음.
-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주중 남아 3시간 4분, 여아 3시간 15분, 주말 남아 6시간 23분, 여아 6시간 12분으로 주중에는 여아가 주말에는 남아가 11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음.

7.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 영유아의 생활시간
 -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는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 대리양육 이용하기, 이동하기, 학습 순으로 시간을 사용함.
 - 주중과 주말의 시간 사용 양상을 보면, 개인유지, 가정관리 돕기,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하기 행동은 주말에 시간 사용이 많았으나, 학습과 대리양육 이용하기는 주중에 시간 사용이 더 많았음.
- 연령별 생활시간
 - 연령에 따라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많아질수록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밤잠 수면은 주중 약 10시간 30분, 주말 약 11시간 10분 정도로 연령에 따라 시간사용의 차이가 없었음.
 - 학습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은 만 1세와 만 2세의 학습시간은 10분 미만

으로 시간사용이 적었으나, 만 3세와 만 4세의 경우 10분 이상 학습에 시간을 사용함.

-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기관이용의 비율이 높았으며, 기관을 이용할 시 연령에 상관없이 7시간 정도를 기관에 머무름. 주말 기관이용의 비율은 약 2% 또는 그 이하로 주중 기관이용에 비해 매우 낮았음.
-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놀이와 미디어 이용임. 놀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미디어 이용은 연령에 상관없이 1시간 30분 가량으로 시간사용을 하였음.

□ 영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별 영유아의 생활시간

- 모의 취업 유무에 따른 생활시간은 주중의 경우, 비취업모의 자녀가 개인유지, 학습, 교제 및 여가활동영역의 시간사용과 참여율 모두 높았으며, 주말의 경우, 전반적인 영역에서 비취업모와 취업모 자녀의 시간사용이 유사하거나 비취업모가 약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 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생활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개인유지는 방임형의 자녀가 학습은 민주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음. 대리양육은 주중 행위자 비율이 통제형 자녀가 90.1%로 가장 높았으며, 주말은 차이가 없었음. 교제 및 여가활동은 주중 적대형 자녀가 주말은 민주형과 통제형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음.
- 영유아의 성별에 관계없이 주중과 주말 개인유지, 학습,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이 거의 유사하였으며 행위자 비율에도 차이가 없었음.

나. 정책제언

□ 기본생활습관형성

-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권장수면 시간에 충족되도록 부모의 인식변화를 통해 수면시간을 늘리고, 주중과 주말의 차이없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수면행동 습관을 마련해야 함.
- 연령이 어릴수록 수면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연령간 수면시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다른 국가나 표준 수면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면시간에 대한 연령별 기준이 필요함.

- TV에 노출되고 있는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시간 반 가량 TV를 시청함. 전자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연령별 적정 이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문이나 e-book로 제작하여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줄이도록 해야함.
 -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 놀이, 스포츠 레저활동, 교제활동 등의 참여보다는 상대적으로 미디어 이용에 95%의 영아가 참여하고 있었고, 사용시간도 1일 평균 1시간 27분인 것으로 볼 때, 영아가 수동적 여가활동이 아닌 놀이나 레저활동 등 능동적,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함.
 - 온라인 학습 보다는 오감을 활용한 체험 위주 학습, 놀이 중심 학습, 실생활 중심의 학습등이 이루어 지도록 영유아기 적절한 학습방법에 대한 부모의 인식전환이 요구됨.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국민홍보를 통한 건강생활습관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데 미디어나 공공자료를 통해서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지도하는데 관한 정보와 이를 위한 가족시간 확보 등과 같은 국민 계몽운동을 재인식시켜야 함.
 - 연령에 맞는 적정 보육시간의 기준제시가 필요함. 기관이용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7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부모가 돌아온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보다 질적인 가족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안내와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의 배치와 확충이 필요함.
 - 취업모에게 자녀양육 지원을 돕기 위해 기업 내 지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과 활성화가 요구됨.
 - 아버지 양육 참여 지원이 요구됨. 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의 모든 영역에서 영유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음.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 등을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의 시행을 선두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정책은 실제 수요자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와 생활을 반영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 경감을 우선으로 하는 공급자와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공급자와 기관중심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부모와 영유아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추이를 고려하여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루 일과가 전개되는지와 연령별로 어떠한 생활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완전한 건강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생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유아기의 생활시간은 영유아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행위로서 좁은 의미의 식사, 배설, 수면, 의복, 청결 등의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것에 관한 생활습관으로부터 넓게는 학습, 놀이, 질서, 관계, 예절 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까지 포함하게 된다.

한편 현대사회의 맞벌이 증가, 여성 취업 등으로 인한 부모의 생활패턴 변화, 주양육자의 변화 등이 영유아기의 생활시간에도 영향을 주어 영유아의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이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데 시간조사가 유용하다. 영유아나 아동의 생활을 시간을

토대로 분석하면, 생활내용에 따른 시간의 양을 이해하기 쉽고 이에 대한 주제나 생활 내용에 따른 비교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이기숙·손수연, 2012).

미국의 연구(Huston & Aronson, 2005; Robinson & Bianchi, 1997;)는 국가 프로젝트로서 시간 분석을 중심으로 아동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시간 분배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족의 규모, 고용과 결혼 특성과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아동의 교육, 가족 구조, 가족 활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생활시간 사용이 아동의 성취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Hofferth & Sandberg, 2001; Sayer, Bianchi, & Robinson, 2004).

이런 관점에서 인간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파악하는 일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활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라는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생활시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활시간조사의 대상과 중요 내용을 이해하고, 영유아 생활시간조사의 방향과 적절한 측정 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영유아와 어머니의 제 특성과 시간사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셋째, 영유아의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과 행위자 비율을 파악하고 행동영역별 공유자와 공유 비율에 대해 알아본다.

넷째, 영유아의 연령별 생활시간량과 행위자 비율을 파악하고 각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량을 알아본다.

다섯째,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어머니의 취업여부,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여섯째, 영유아의 생활시간 사용량, 연령별, 어머니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여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문헌연구를 통해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본다. 또한 영유아 생활시간조사의 방법론, 시간 사용에 대한 주요 행동영역별 행동분류 기준을 분석한다.

나. 설문조사

1) 표본추출

전국 영유아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1세~4세 영유아 어머니 또는 아버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배분은 2013년 6월말 주민등록통계(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성, 연령, 지역별로 비례배분 하였다. 표본 추출은 읍/면/동별 1~4세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순으로 정렬한 다음 PPS(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방식으로 조사대상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그 다음 1개 읍/면/동에서 10 표본씩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읍/면/동을 추출하여 1가구에서 1명의 아동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I-3-1 참조).

2) 조사 도구

설문지 구성은 다음의 <표 I-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와 가구, 해당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응답자가 영유아의 신체발달 영역 중 체중, 신장, 신체 체온을 실제 측정하고, 건강상태, 평소기분상태를 설문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가정에서의 생활시간을 조사하기 위해 기본생활을 중심으로 수면시간, 배변시간, 식사시간, 신체활동시간 등으로 구성하여 1주일 중 주중 1일과 주말 1일 총 2일간의 영유아 생활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시간일지는 영유아 생활시간의 기록으로서 영유아가 주로한 행동과 시간, 함께한 사람, 동시행동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에는 부모와 자녀의 시간 사용과 양육행동, 우울을 함께 조사하였다.

〈표 1-3-1〉 표본 할당

단위: 명

지역	구분	총인구수	1세	2세	3세	4세	
모집단 현황	계	계	943,970	240,081	245,061	227,643	231,185
		남	484,813	123,412	125,697	117,000	118,704
		여	459,157	116,669	119,364	110,643	112,481
	서울	계	329,704	86,040	85,550	78,904	79,210
		남	169,225	44,400	43,800	40,480	40,545
		여	160,479	41,640	41,750	38,424	38,665
	경기	계	504,391	126,049	131,033	122,260	125,049
		남	258,994	64,622	67,182	62,959	64,231
		여	245,397	61,427	63,851	59,301	60,818
	인천	계	109,875	27,992	28,478	26,479	26,926
		남	56,594	14,390	14,715	13,561	13,928
		여	53,281	13,602	13,763	12,918	12,998
제공근 비례 배분	계	계	500	128	131	120	121
		남	257	66	67	62	62
		여	243	62	64	58	59
	서울	계	173	46	45	41	41
		남	89	24	23	21	21
		여	84	22	22	20	20
	경기	계	268	67	71	64	66
		남	137	34	36	33	34
		여	131	33	35	31	32
	인천	계	59	15	15	15	14
		남	31	8	8	8	7
		여	28	7	7	7	7

〈표 1-3-2〉 설문지 구성

구분	항목	
인구학적 배경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임금, 월평균 가계소득	
영유아	신장, 체중, 체온, 영유아의 시간사용, 건강상태, 평소 기분상태 등	
시간일지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휴식 및 개인 양육 받기, 기타 일상활동
	학습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한글/영어/수학 등 학습지 활동,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음악/미술/스포츠 등 특기와 적성관련 활동, 각종 교구이용 학습, 문화센터/영유아플라자 이용 활동, 기타 학습활동
	대리양육이용	기관이용, 양육도우미
	가정관리돕기	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 활동 참여 및 종교관련 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놀이, 따라가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 기타 여가관련 행동
	이동하기	개인유지 관련이동, 학습관련 이동, 대리양육 전후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부모	양육실제(사회적유형, 한계설정), 부모의 시간사용(하루 일과 계획, 시간사용의 만족), 양육자의 우울 등	

조사 대상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3-3>과 같다. 조사는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성별구성은 남아 51.2%, 여아 48.8%였다. 조사 연령으로는 1세 25.6%, 2세 26.6%, 3세 23.6%, 4세 24.2%이었고, 지역크기는 대도시 34.4%, 중소도시 53.2%, 읍면 12.4%로 중소도시의 거주가 가장 많았다.

모친 직업의 유형은 유직이 43.2%, 휴직/시간제가 9.2% 무직이 47.6%로 영유아의 절반 정도의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였다. 모친학력은 고졸이하가 23.6%, 초대졸이 32%, 대학재학 이상이 44.4%로 응답자의 약 80% 정도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었다. 가족구성 유형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95%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다. 가구 월 수입은 300-5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5%를 차지하였다.

<표 I-3-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500)			
성별			모친학력		
남	51.2	(256)	고졸이하	23.6	(118)
여	48.8	(244)	초대졸	32	(160)
연령			대재 이상	44.4	(222)
1세	25.6	(128)	가족 구성 유형		
2세	26.6	(133)	부부+자녀	95.8	(479)
3세	23.6	(118)	한부모+자녀	0.2	(1)
4세	24.2	(121)	조부모+부모+자녀	1.6	(8)
지역크기			조부모+한부모+자녀	0.2	(1)
대도시	34.4	(172)	한조부모+부모+자녀	2.2	(11)
중소도시	53.2	(266)	가구 월 수입		
읍면	12.4	(62)	300만원 미만	21.6	(108)
모친 직업유형			300-500만원	55.4	(277)
유직	43.2	(216)	500만원 이상	23	(115)
휴직/시간제	9.2	(46)			
무직	47.6	(238)			

3) 예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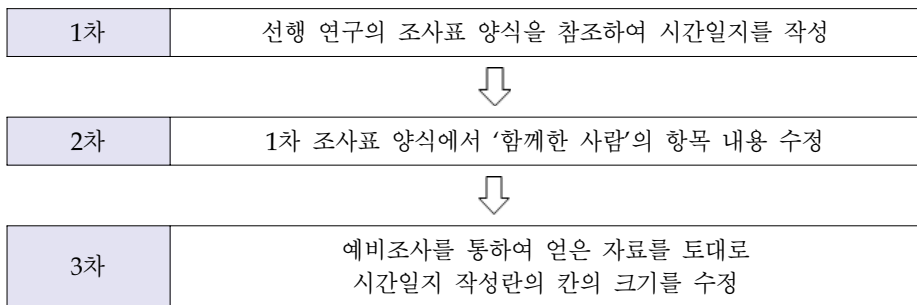
시간일지는 일차적으로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후 12명의 어머니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간일지와 질문지의 구성과 타

당성, 추가 질문 필요성, 오류 등을 검토 받은 후, 전문가의 의견 및 예비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시간일지와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4) 설문조사 연구절차

가) 시간일지 구성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일지(Time diary)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통계청(2010)의 '2009 생활시간조사'와 김은화(2012)의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3-1] 시간일지 조사표 양식 마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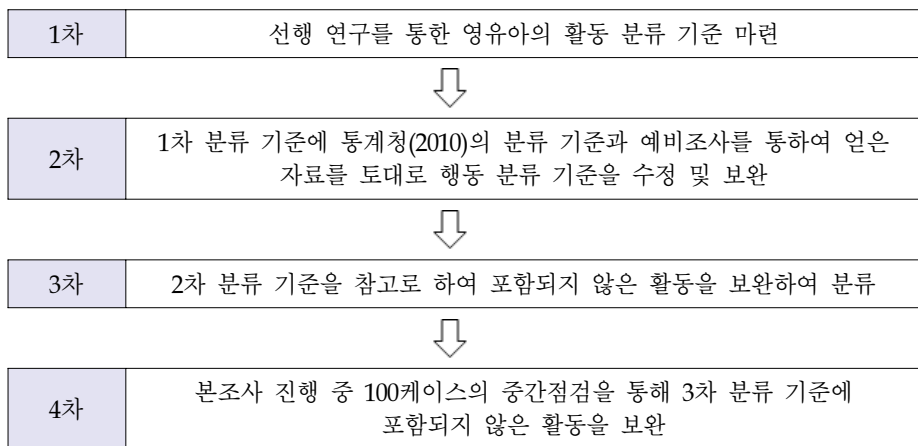
시간일지를 작성하는 칸은 가로로 크게 5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간,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장소, 동시행동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칸은 시간으로 10분 단위로 생활시간을 표시하였다. 두 번째 칸은 영유아의 주활동을 기록하는 칸으로 영유아가 주로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칸은 영유아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는 함께한 사람을 부, 모, 조부모, 형제, 친구, 교사, 기타로 나누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형제 항목을 형제·자매로, 교사 항목은 선생님이로 수정하였다. 함께하는 사람의 예시번호를 제시하여 해당번호를 선택하게 하였고, 함께 참여한 사람은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칸은 행동장소로 영유아가 주행동을 한 장소를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칸은 동시행동으로 영유아가 주행동 외에 다른 행동도 함께 하였다면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시간일지 양식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시간일지 작성 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일지 작성 전 숙지사항’을 첨부하여 시간일지 기록방법과 기록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시간일지 기록방법에서는 자녀의 평소생활과 가장 비슷한 날로 ‘주중’ 중 1일과 ‘주말’ 중 1일을 각각 선정하여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 24시간동안 자녀의 행동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시용 시간일지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기입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예비조사 시 기록방법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행동을 적는 칸이 좁아 작성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 주행동 칸을 수정하였다.

나) 영유아 행동분류기준

영유아의 행동 영역별 생활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을 마련하였다.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은 김은화(2012)의 분류기준과 진미정·이윤주(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행동분류 기준을 1차적으로 작성한 뒤,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 조사’ 분류 기준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행동 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는 [그림 1-3-2]와 같다.



[그림 1-3-2] 영유아의 행동 분류 기준 마련 절차

먼저, 1차 분류에서는 대분류 항목은 개인유지, 놀이, 학습행동, 대리양육 이용하기, 나들이, 이동하기, 기타행동이였다. 그러나 2차 분류에서는 통계청(2010)

의 기준을 참고하여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과 가정관리 항목 대분류를 새로 추가하였다. 가정관리 항목의 경우 연구대상이 영유아인 점을 감안하여 가정관리 항목을 가정관리 돕기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3차 분류 기준에서 대분류 항목이었던 놀이 항목과 나들이 항목은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중분류에 포함시켜 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 이용, 가정관리 돕기,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하기, 기타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본조사 진행 중 중간 점검을 통해서 행위자 비율이 매우 낮거나 행동영역이 유사한 부분은 합치거나 삭제하였다.

각 대분류 항목별로 수정·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 I-3-4>와 같다. 개인유지 항목에서는 본조사에서 수면 외에 수면 전·후에 뒹굴기나 누워있기 등의 행동이 상당부분 보고되어 수면 중분류에 수면 전·후 관련행동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준비물 챙기기, 가방 챙기기 행동 또한 다수 보고되어 개인관리 내 소분류에 준비물 등 가방 챙기기 행동을 추가하였고, 건강관리 내 소분류에서 자가치료와 상담 및 치료 행동이 추가되었다. 2차 분류 시 휴식 및 개인양육 받기의 중분류에 휴식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4차 분류 시에 교제 및 여가활동 분류 내 아무것도 안하고 쉽 행동이 휴식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 휴식 및 개인양육 받기에서 휴식 항목을 삭제하였다.

학습 항목에서는 중분류 중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에 글자카드 이용 행동을 포함하였고, 교구이용 학습을 중분류에 새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대리양육 이용 항목에서는 기관이용과 양육도우미로 중분류를 나누고 기관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영어 유치원, 미술학원, 놀이학교 등)로 소분류를 나누었고, 양육도우미는 친지양육과 양육도우미로 소분류를 나누었다.

새로 추가한 가정관리 돕기 항목은 음식 준비 및 정리 돕기, 의류관리 돕기, 청소 및 정리 돕기, 기타 가정관리 돕기로 중분류를 나누었다. 음식 준비 및 정리는 식사준비와 설거지/식후정리 돕기로 소분류를 나누었고, 청소 및 정리는 방/물품정리 돕기와 집안청소 돕기로 소분류를 나누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에서 새로 추가된 것은 교제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참여 및 종교관련 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놀이, 따라가기, 아무것도 안하고 쉽, 기타 여가관련 행동으로 총 9개의 중분류로 나누었다. 교제활동 중분류에서는 가족과 시간보내기, 가족 외 친척과 시간보내기, 친구와 시간보내기, 친·인척 외의 사람들과 시간보내기, 애완동물과 시간보내기로 소분류를 나누었다. 미디어 이용 중분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화를 보거나 게임하기 등 컴퓨터 이용 소분류를 추가하였고, 탁구, 줄넘기, 검도 등의 스포츠 활동을 소분류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놀이 중분류에서는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 놀이를 장난감 가지고 놀기와 장난감 없이 놀기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각 행동을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놀이행동을 나누지 않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 장난감 없이 놀기로만 소분류를 나누었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장난감이 아닌 사물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이를 하는 경우가 보고되어 이러한 활동은 기타 놀이활동으로 소분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따라가기 중분류를 새로 추가하여 쇼핑, 마트물건 등 구매를 위한 외출에 따라가기와 어른행사 따라가기로 소분류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이동하기 항목의 경우 진미정과 이윤주(2010)의 연구에서 영유아의 이동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나 목적지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이동 목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유지 관련 이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을 좀 더 세분화하여 소분류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은 총 7개의 대분류, 34개의 중분류, 77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표 1-3-4〉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 절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개인 유지	수면	수면, 낮잠 · 졸음, 수면 전·후 관련 행동	수면 전·후 관련행동과 준비물, 가방 챙기기, 상담 및 치료 행동 추가
	식사 및 간식	식사하기, 간식먹기	
	개인관리	개인위생, 외모관리,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준비물 등 가방챙기기	
	건강관리	의료기관 이용하기, 자가 치료, 아파서 쉬, 상담 및 치료	
	개인양육받기	위로받기, 훈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기타 일상활동	
학습	학원 및 기관이용 과제활동		각종 교구 이용학습 추가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특기 적성관련 활동		
	각종 교구 이용학습		
	기타 학습활동		
대리 양육 이용하기	기관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대리양육 이용을 기관이용과 양육도우미로 나눔
	양육도우미	친지양육, 양육도우미	

(표 I-3-4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가정 관리 돕기	음식 준비 및 정리 돕기 의류관리 돕기	식사준비 돕기, 식후 정리 돕기 의류관리 돕기	통계청(2010)의 기준 을 참고하여 가정관 리 돕기 항목을 새 로 추가
	청소 및 정리 돕기	집안 물품 정리 돕기, 집안 청소 돕기	
	기타 가정관리 돕기	기타 가정 관리	
	교제활동	가족과 시간보내기, 가족 외 친척과 시간보내기, 친구와 시간보내기, 친· 인척외사람들과 시간보내기, 애완동 물과 시간보내기	
교제 및 여가 활동	미디어 이용	TV시청, 핸드폰/스마트폰/아이패드, 스토리빔 이용, 컴퓨터 이용, CD, TAPE MP3, 라디오 이용	통계청(2010)의 기준 을 참고하여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을 추가함 김은화(2012)의 놀이 와 나들이 항목을 교제 및 여가활동에 포함. 그러나 놀이 항목 중 매체 이용 놀이는 미디어 이용 으로 항목을 변경.
	종교활동 참여 및 종교관련 활동	종교활동 참여 및 종교관련 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영화관람, 연극, 음악회, 뮤지컬 관람, 각종 전시회 및 박물관, 미술관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그 외 관람 및 문 화행사 참여 또는 체험 관련 행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걷기, 산책, 달리기, 등산, 하이킹,자 전거, 톨러브레이드 등 , 드라이브, 쇼핑, 관광 및 구경, 그 외 집 밖의 레저활동, 스포츠 활동(운동)	
	놀이	장난감 가지고 놀기, 장난감 없이 놀기, 기타 놀이활동 놀이터 이용, 예술경험 놀이, 책읽기	
	따라가기	쇼핑, 마트물건 구입, 서점 따라가 기, 어른행사 따라가기	
	아무것도 안하고 쉽 기타 여가 관련 행동	아무것도 안하고 쉽 기타 여가관련 행동	
	이동 하기	개인유지관련이동	
학습관련이동, 대리양육 이용 전 후 이동		학습관련 이동 대리양육 이용 전후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이동		교제활동 관련 이동, 종교활동 참여 및 종교관련 활동 이동, 관람 및 문 화 행사 참여 관련 이동 ,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관련 이동, 놀 이 관련 이동, 따라가기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기타 이동하기	
이동하기 위해 기 다리기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기타 행동	그 외 기타 행동	그 외 기타 행동	

5) 본조사

본조사는 시간일지 기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조사원 교육을 한 후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각 가정에 방문 후 유치조사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실사 6주, 자료처리 2주로 총 8주가 소요되었다.

라.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지 검토,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3회 실시하였다.

〈표 1-3-5〉 2013년 전문가 회의 개최 현황

구분	참석자	안건
1차	김은화(청담어린이집 원장)	영유아생활시간조사
2차	최종희(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사무관)	국민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와 행동분류
	손상호(통계청 정보기획과 사무관)	
	김상진(통계청 표본과 사무관)	
3차	신혜원(서경대학교 교수)	영유아생활시간조사의 표집과 시간일지
	진미정(서울대학교 교수)	

4.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제한점

가.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주행동이란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영유아가 주로 행동한 한 가지 행동이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가장 길게 한 행동이나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주된 행동이라고 판단한 행동을 주행동이라 한다.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주행동 이외의 행동을 동시행동이라 한다. 동시행동의 경우 두개의 행동이 병행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동시행동으로 인정한다(통계청, 2010). 함께한 사람(공유자)은 영유아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고, 행동장소는 주행동을 한 장소를 의미한다(김은화, 2012).

주행동은 7개의 대분류로 나뉘는데 개인유지는 건강관리와 외모 등 개인유지

를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통계청, 2010)으로, 수면, 식사 및 간식, 씻기, 배변 등의 개인위생, 옷갈아 입기, 머리빗기 등의 외모관리, 병원진찰, 위로받기, 훈육 받기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김은화, 2012). 학습은 한글, 영어, 수학 등의 학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특기, 적성과 관련된 학습(김은화, 2012), 교구를 이용한 놀이학습이 포함된다. 대리양육 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이용 또는 양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관리 돕기는 통계청(2010)의 가정유지 관리 행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인이 가정유지 관리 행동을 할 때 영유아가 돕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관리 돕기는 식사준비나 식후 정리 돕기, 옷정리, 빨래깨기, 빨래 널기 등의 의류관리 돕기, 장난감 정리, 잠자리 정리, 잠잘 준비 등의 청소 및 정리 돕기 행동을 의미한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교제 및 여가를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통계청, 2010). 세부내용별로 보면, 교제활동은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동생 괴롭히기, 할머니와 전화통화, 아빠 배웅하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제 중 친구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면 교제활동으로 포함되지 않고 놀이 중 장난감 가지고 놀기 소분류에 해당한다.

미디어 이용은 대중매체를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미디어 이용에 속한다. 미디어 이용에는 TV시청, 스마트폰, 핸드폰 이용, 컴퓨터 이용, CD, TAPE 이용 활동이 속한다(통계청, 2010). 그러나 대중매체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였으면 그 목적한 행동으로 행동이 분류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어 학습을 하였다면 미디어를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미디어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습 대분류 중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으로 분류된다.

종교활동 참여 및 종교관련 활동은 교회, 성당, 절 등에서의 예배와 같은 행동이 이에 속하고,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는 극장에서 영화 관람, 각종 전시회 및 박물관, 스포츠 경기,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또는 체험 관련 행동이 이에 속한다(통계청, 2010).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걷기, 산책, 자전거 타기, 운동(수영, 축구, 줄넘기 등), 놀이공원, 캠핑, 키즈카페 가기 등 각종 레저활동이 이에 속한다.

놀이는 장난감 가지고 놀기와 숨바꼭질, 신체를 이용해 비행기 태워주기 등 장난감 없이 신체놀이로만 놀이를 하였을 경우 장난감 없이 놀이에 포함된다. 기타 놀이활동은 장난감이 아닌 사물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이활동을 하였을

경우 기타 놀이활동에 포함되고, 놀이터를 이용하여 놀이를 했을 경우 놀이터 이용에 속한다. 영유아가 미술활동이나 음률 활동을 했을 경우 예술경험 놀이에 속한다. 그러나 부모가 영유아에게 춤추거나 노래하기를 위한 음률활동 보다는 음악감상을 위해 노래를 들려주었다면 중분류 미디어 이용에서 소분류 CD, TAPE, MP3 이용하기에 속한다. 책읽기는 그림책을 보거나 읽기 행동으로 영유아가 읽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나 형제 자매 등이 읽어 주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가기 행동은 성인이 물건 구입을 위해 마트나 서점을 갈 때 함께 따라가거나 쇼핑, 돌잔치, 결혼식 등 어른 행사에 함께 따라가는 경우 이에 속한다.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경우 휴식이나 창밖구경 등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속한다.

이동하기는 개인유지 관련 이동, 학습관련 이동, 대리양육 전후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등으로 이동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기타행동의 경우 행동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각 행동별로 평균시간과 행위자 비율을 제시했다. 평균시간은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행동분류별 평균 시간을 의미하고, 행위자 비율은 대상자 중 하루 24시간 동안 각 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통계청,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모 질문지 중 양육행동에 관한 사회적 행동과 한계설정, 우울정도 지각, 삶의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지각, 자녀의 시간사용 만족도(주중, 주말), 자녀의 건강·기분상태 지각의 변수를 사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양육행동 중 사회적 행동은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말한다. 한계설정은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본 연구에서 총 4가지 유형으로 군집화 하였으며 이 유형을 민주형(13.8%), 통제형(40.6%), 적대형(21.8%), 방임형(23.8%)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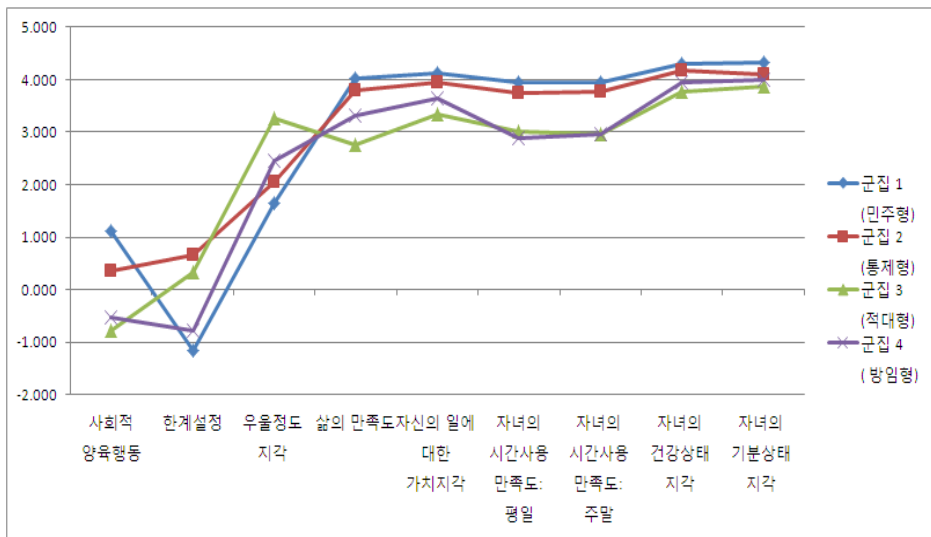
첫째, 군집 1(민주형)은 사회적 양육행동이 가장 높고 한계설정과 우울정도 지각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또한 삶의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지각, 주

중 주말 자녀의 시간사용 만족 등 각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자녀의 건강상태와 기분상태 지각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둘째, 군집 2(통제형)는 사회적 양육행동이 민주형 군집 다음으로 점수가 높지만 한계설정 점수는 4가지 군집 중 가장 높은 유형이다. 우울정도 지각은 낮은편이며, 그 외 나머지 점수는 민주형 군집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유형이다.

셋째, 군집 3(적대형)은 사회적 양육행동 점수가 가장 낮고 한계설정은 통제형 다음으로 높은 유형이다. 우울정도 지각은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그 외 나머지 항목 점수는 대체적으로 4가지 군집 유형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유형이다.

넷째, 군집 4(방임형)는 사회적 양육행동이 군집 3(적대형) 보다 점수가 약간 높고, 한계설정은 군집 1(민주형)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유형이다. 우울정도 지각은 군집 3(적대형) 다음으로 점수가 높았고, 그 외 나머지 점수는 군집 2(통제형) 보다는 점수가 낮으나, 군집 3(적대형) 보다는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은 유형이다(그림 I-4-1 참조).



주: 사회적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우울정도 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군집분석을 위해 척도변환을 사용함.

[그림 I-4-1] 어머니 양육행동 군집 유형 프로파일

나. 연구의 제한점

생활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요일별, 계절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기간의 한계로 주중 1일과 주말 1일 총 2일만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분류의 대리양육 이용하기에서 기관이용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총 시간만 조사하였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활동은 별도의 연구로 다루어질 내용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시간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가족유형에 있어서 핵가족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다른 유형의 가족 형태와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II. 연구의 배경

1. 생활시간조사

가. 국외의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는 일찍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유럽의 12개국 시간을 비교분석한 Szalai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기영·이연숙·김의숙·조희금, 1999). 생활시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규범, 습성, 가치 등이 반영되며 시간사용을 통해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시간사용을 조사하는 것은 각 국가 간의 국민생활을 비교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국가마다 언어, 생활습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측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논한 Szalai의 연구에 의해 생활시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생활시간에 대한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표집이나 분류 및 코딩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협의에 의해 유럽재단의 후원으로 생활과 노동조건에 관련된 국제생활시간아카이브(Multinational Time Budget Archives)가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자료를 공통으로 처리하여 생활시간 자료의 공통 분류체계로 갖게 되어 재코드화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간 생활시간을 비교하게 되었다.

각 국가들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생활시간을 조사하고 있다¹⁾. 대표적으로 유럽통계연합(EUROSTAT)은 유럽지역의 생활시간 자료를 수집하여 생활행동의 분류를 통일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8개 국가에서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HETUS)가 실시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중반까지 나라별 생활시간사용에 관한 자료 수집을 통해 각 활동에 소비되는 평균 시간의 표준화된 통계치를 제공하였다. 국가별로 생활시간 조사의 대상은 상이

1) 국외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내용은 OECD(2011b). Social policy division-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의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함.

하나 일반적으로 20-7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Harmonised Time-use Survey시 적용되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호주는 2006년 호주 통계청이 15세 이상, 약 3,900 가구를 대상으로 Time-use Survey(TUS)를 전국적으로 수행하였다. 터키는 2006년 터키 통계청이 매월 대략 390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1년 동안 5,070의 가구를 표집 하였고, 15세 이상의 11,815 가구 구성원이 2개의 시간일지를 완성하였다. 시간일지는 1개는 주중, 나머지 1개는 주말에 24시간동안 10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시간조사를 위한 방법은 시간일지를 활용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각 국가별 생활시간조사에 따른 대상 연령 및 연구방법, 연구수행연도 등의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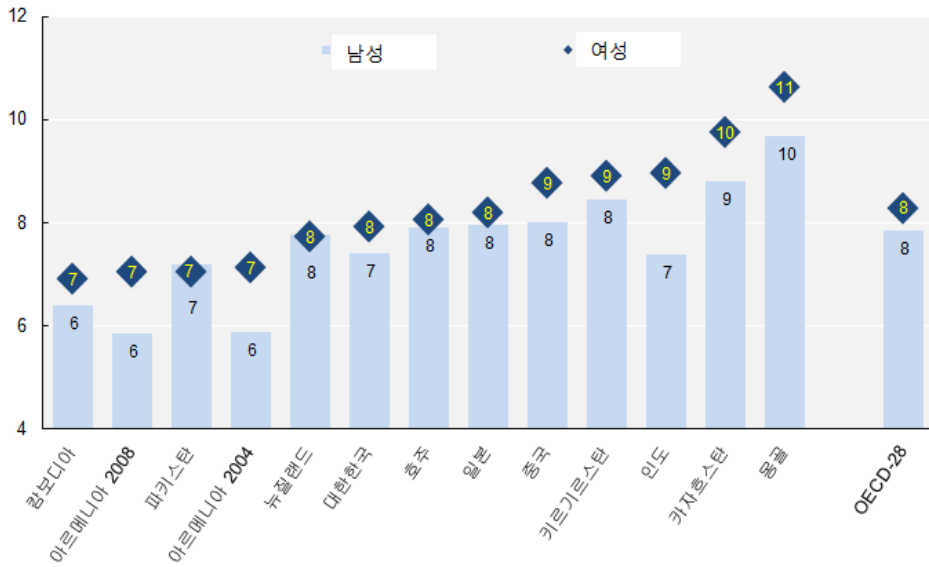
국가	조사명	조사 연도	대상 연령	연구방법
호주	Time use survey	2006	15세 이상	2일 동안 5분 간격으로 시간일지 작성
벨기에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HETUS)	2005	12세 이상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일지 기록
캐나다	General social survey(special module)	2005	15세 이상	컴퓨터 지원 전화인터뷰
핀란드	HETUS	1998	10세 이상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일지 기록
프랑스	HETUS	1998	12세 이상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일지 기록
독일	HETUS	2002	15세 이상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일지 기록
이태리	HETUS	2003	10세 이상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일지 기록
일본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2006	10세 이상	2개의 질문지로 구성. A질문지는 선코딩방법, B질문지는 상세한 시간사용을 기록
뉴질랜드	Time use survey(TUS)	1999	12세 이상	4개의 기본시간범주에 초점을 두고 기록
노르웨이	HETUS	2001	9~79세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일지 기록
폴란드	HETUS	2004	15세 이상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일지 기록

(표 II-1-1 계속)

국가	조사명	조사 연도	대상 연령	연구방법
스페인	HETUS	2003	10세 이상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 일지 기록
스웨덴	HETUS	2001	20-84 세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 일지 기록
터키	Time use survey	2006	15세 이상	24시간동안 10분 간격으로 주중, 주말 각 1개 총 2개의 시간일지 기록
영국	HETUS	2001	8세 이상	각각 24시간으로 된 2일의 시간 일지 기록
미국	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2005	15세 이상	1인에 1주 중 하루를 선 배정함. 샘플의 25%는 주중으로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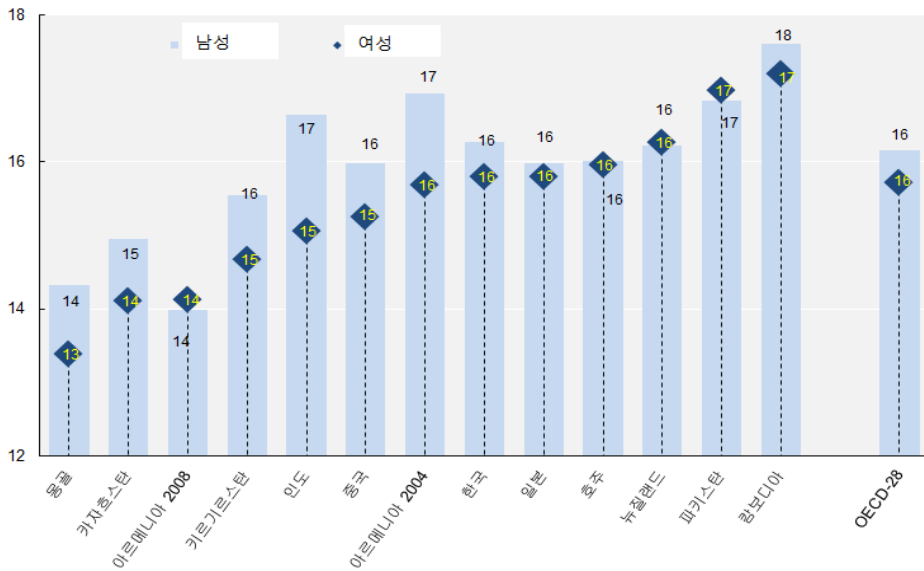
주: 1) 영국의 경우 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종자료에서는 10세 이상만 포함시킴,
2) 뉴질랜드의 4개 범주는 contracted time(근로와 학업을 위한 시간), committed time
(가정유지를 위한 시간), necessary time(기본생활을 위한 시간), free time(여가시간)임.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표 2.A.1.1를 재구성함(p. 47-49).

이와 같은 국가별 생활시간조사는 나라별 지표로 비교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환태평양지역의 생활시간조사(2011a) 결과, OECD 28개국 평균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이 각각 8시간인데 반해 몽골 남성은 10시간, 여성은 11시간으로 환태평양 국가 중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소비하였다. 한편 뉴질랜드, 호주, 일본의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은 각각 8시간으로 OECD 국가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유시간(free time)의 경우 OECD 28개국 평균 남성과 여성의 자유시간이 16시간으로 나타난 반면 파키스탄은 남성 17시간, 여성 17시간이며 캄보디아는 남성 18시간, 여성 17시간으로 OECD국가들보다 더 많은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중국은 환태평양 국가 중 가장 많은 9시간을 수면시간으로 소비하고 있고, 카자흐니스탄은 6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사용하여 가장 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의 남성은 여성보다 여가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1일 평균 노동시간, 1일 평균 자유시간, 1일 평균 수면시간, 1일 평균 여가시간의 비교는 다음의 [그림 II-1-1]~[그림 II-1-4]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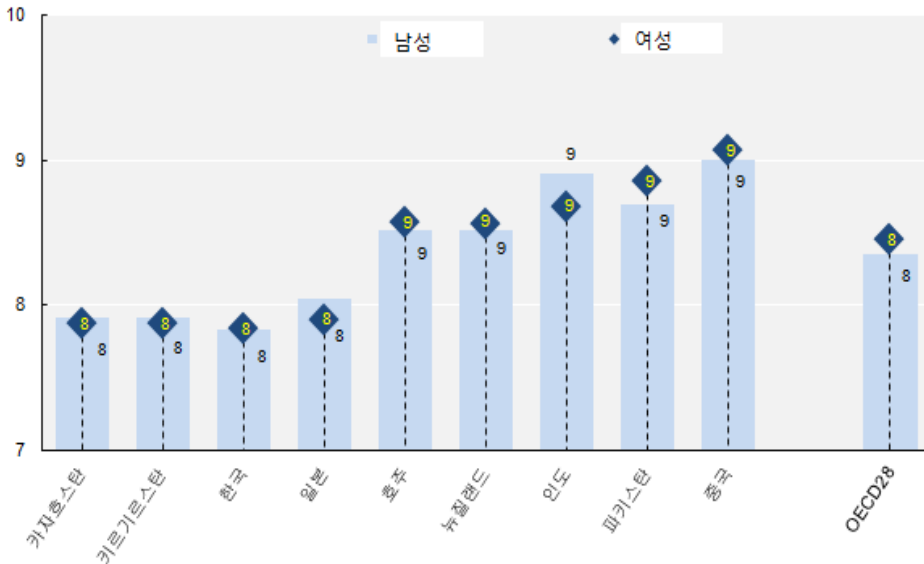
자료: OECD(2011a).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그림 II-1-1] 1일 평균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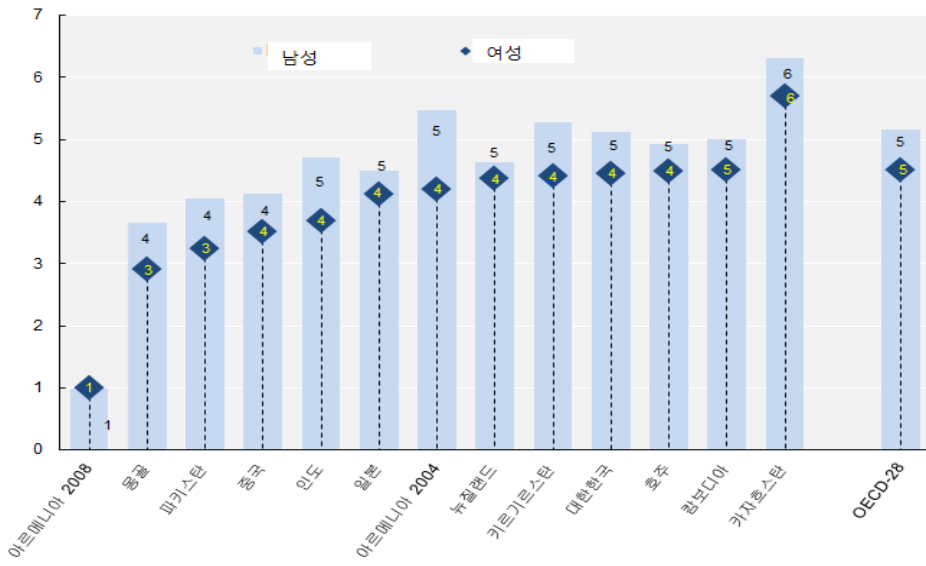
자료: OECD(2011a).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그림 II-1-2] 1일 평균 자유시간



자료: OECD(2011a).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그림 II-1-3] 1일 평균 수면시간



자료: OECD(2011a).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그림 II-1-4] 1일 평균 여가시간

이외에도 선진국들은 생활시간 연구를 위해 표준적인 기술-자료의 수집, 코딩, 제시 방법 등의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생활시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me use research: IATUR²⁾)’와 유럽통계연합(EUROSTAT) 및 생활시간조사에 관심있는 국제적인 단체와 학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적, 학문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제생활시간학회(IATUR)는 통계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인간의 일상생활 패턴과 시간에 따른 인간행동변화 등에 관한 아이디어, 연구방법과 자료수집기술 등의 교류를 하는 곳이다.

국제생활시간학회는 197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다.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활시간관련 조사나 학회를 통해 연구를 하면서 세계 생활시간연구에 참여하거나 관련되어 있다. 미국, 일본과 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약 100여개 나라에서 학회나 단체 수준에서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제생활시간학회는 교육, 환경과 에너지, 성, 건강, 여가, 유급노동, 인구, 삶의 질, 여행, 무급노동의 범주로 구분되어 각 나라의 관심사에 따라 연구되어 왔다. 교육의 범주를 보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시간일지의 수집을 통한 장기 연구를 통해 유아와 아동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보육시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도시와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을 보면 도시와 지역 간의 텔레비전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 도시와 지역의 활동 내용, 여가시간 등에 관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비교 연구하였다.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인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해서도 연구가 활발한데, 시간일지는 행복과 삶의 질의 연구에 매우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정교하게 기록된 시간일지는 각 활동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어떻게 행복에 기여하는지,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가의 질은 중요한데, 균형적인 삶의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해 여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핵심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간은 인간 행동의 기본적 요소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2) www.iatur.org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함.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사람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정책수행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콜롬비아에서는 2012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간사용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와 사회발달에 대한 기여를 알아보고, 조사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간학회의 일부 주제의 경우 시간 사용과 국가별 정책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동양육 관련으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시간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생활시간조사의 자료를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 시간과 아버지의 고용 등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였고, 스웨덴에서는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가족 휴가 정책을 조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의 정책 관련단체는 애완동물과 공유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노년층의 운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방안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시간사용 분석결과를 통해 융통성있는 학업시간과 이와 관련된 규정, 지침수립뿐만 아니라 학교 시작시간을 정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청소년기에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적절한 시작시간을 규정하기 위해 미국시간사용조사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행관련 칠레와 콜롬비아의 통합된 대중교통시스템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발달과정에 따른 시간사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캐나다는 건강수면시간조사를 통해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 규정과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 환경/에너지 측면, 식습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정책측면에서도 각 국가들은 시간사용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나. 국내의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얼마나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방법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KBS의 국민생활조사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을 최초로 1995년까지 6차례 진행되었다. 그 이후 1997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시간조사를 개발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되고 국제 비교도 가능한 행동분류체계를 마련하여 1999년 10세 이상 약 4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가장 최대 규모이다.

손애리(2000)는 ‘사람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한나라의 사회문화적 모습이 변화할 수 있다(p. 136).’고 하였다. 특히, 현대와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양식을 알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모습의 파악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시간조사는 다양한 목적과 유용성을 제공한다. 첫째는 무보수 가계노동시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총생산활동의 규모와 구조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둘째는 노동시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셋째는 사회변화의 파악 및 대처에 유용하여 다양한 활동 내용과 시간대의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는 교육, 보건, 가족생활, 사회적 교제, 여가 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통해 삶의 질과 복지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대표적인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에 의해 실시된 3번의 조사(1999, 2004, 2009)가 있는데 제 1차 조사는 전국 17,000 가구를 표본으로 최종적으로 42,973명의 86,000의 시간일지를 회수하였고, 제 2차 조사는 전국 12,750 가구를 표본으로 하였고 31,634명의 63,268시간일지를 회수하였다. 제 3차 생활시간조사의 경우는 전국 8,090 가구에 총 40,526의 시간일지를 회수하였다.

1999년에 실시된 제 1차 국민생활시간조사³⁾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10세 이상 전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필수활동을 위해 10시간 18분, 일하는데 8시간 42분, 여가활동에 5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의무적인 활동에 30분 더 많이 사용하고, 여가시간은 남자가 26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의 46%인 10시간 59분을 학습이나 통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3시간 35분(15%)에 불과하였으며, 10세 이상 전국민의 경우 평일에는 11시 26분, 토요일에는 11시 32분에 취침하고, 65세 이상 연령층은 요일에 관계없이 밤 10시 14분경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실시한 제 2차 국민생활시간조사⁴⁾의 결과를 살펴보면, 10세 이상의 전 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잠자고 식사하는 시간이 10시간 34분(44%), 일하고 공부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8시간 13분(34%), 여가활동시간이 5시간 13분(22%)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주부는 수입노동과 가사

3) 통계청 보도자료(2000. 7). 199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요약).

4) 통계청 보도자료(2005. 5).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노동 등 의무적인 활동을 하는데 10시간 15분을 사용하여 비맞벌이 가구의 주부보다 2시간 26분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편모의 가사노동시간은 양부모가구 모의 가사노동 시간보다 1시간 21분 적은 반면, 일(수입노동)하는 시간은 1시간 2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무실태를 살펴보면,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의 늘어난 여유시간(3시간 48분)을 수면 53분, 가사노동 51분, 교제 및 여가활동 1시간 53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이상 국민의 평균 취침시각은 평일은 밤 11시 38분, 토요일은 밤 11시 40분, 일요일은 밤 11시 25분이며, 65세 이상 연령층은 요일에 관계없이 밤 10시 15분 경에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10세 이상)의 평일 아침식사 시간은 평균 22분이며, 저녁식사 시간은 평균 29분이었다.

2009년에 실시된 국민생활시간조사⁵⁾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10세 이상)은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53분(45.3%)을 잠자고, 식사하고, 씻는 등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면에 7시간 50분, 식사 및 간식에 1시간 45분, 기타 개인유지(개인위생, 외모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에 1시간 1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급노동, 가사노동, 학습, 이동 등 의무적인 활동에는 8시간 7분(33.8%)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급노동에 3시간 15분, 가사노동에 1시간 53분, 이동에 1시간 44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활동에는 하루 중 5시간 1분(20.9%)을 사용하며, TV시청에 1시간 51분, 교제에 46분, 스포츠에 29분, 독서에 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시간생활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소개 되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 표본 규모 및 시간일지 작성 기간, 시간 측정도구 등의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는 EUROSTAT의 권고안은 1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우리나라의 통계청 연구도 10세 이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영유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부모를 중심으로 기록해야 하는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5) 통계청 보도자료(2010.3.3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2. 영유아생활시간조사

가. 국외의 영유아 생활시간조사

1) 국외 영유아의 생활시간

국외의 영유아 생활시간조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10세 이상의 아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앞서 논했듯이 10세 이하의 경우 시간일지 기록에 어려움이 있어 양육자나 성인이 대신 기록을 해야 하므로 자료수집과 신뢰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이 대상이지만 미국에서 수행된 생활시간연구 중 일부는 영유아의 연령을 포함하되, 부모에 의해 기록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영유아와 아동의 생활시간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에 따른 장단점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아동의 생활시간연구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첫째는 표준화된 검사도구(Standard survey instrument)의 사용이며, 둘째는 시간일지(Time diaries), 세 번째는 경험표집법(Experienced sampling method)이다.

먼저, 표준화된 검사도구는 특정 활동에 대해 소비하는 시간의 정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숙제에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 대비 경제적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집된 자료의 내용이 풍부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며 주 활동과 보조 활동의 구별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두 번째 시간일지는 시간사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시간연구에 유용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며 연구 참여자의 참여수준에 따른 자료수집의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시간일지는 회고적 방법(retrospective)과 비회고적 방법(non-retrospective)이 있는데, 비회고적 방법이 더 정확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활동임에도 다른 동일 어휘를 갖게 되거나 일정기간 일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누락되거나 자기 선택적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세 번째 경험표집법은 일상생활 중 여러 순간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그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연구대상의 경험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도가 높으나 많은 사례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는 이를 발전시켜 현장관찰(spot observation)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육자에게 질문하는 방법도 있다.

유아의 생활시간 자료 수집에 관한 주요 주제는 주 활동과 보조 활동에 관한 논의들이 있는데, 주 활동은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정의하며 보조 활동은 주 활동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아는 주 활동에 비해 보조 활동에 덜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료 수집 시기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계절의 시기와 주중과 주말을 구별하여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Harding, 1997).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세계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간연구는 미비한 반면 아동대상 생활시간조사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다. 아동의 생활소비시간을 제시한 연구로 OECD의 생활시간 국제비교 자료가 있다. OECD는 18개 국가 15세 이상 아동의 시간 사용에 대해 6개 범주(노동 관련 활동, 무급 노동, 양육, 여가, 기타)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노동 관련 활동(work-related activities)은 전업 또는 시간제 근무, 학업, 노동 및 학업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으로, 전업이나 부업,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의 이동과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무급 노동(unpaid-work)으로 유아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정 내 활동시간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넓은 범위의 가정 내 활동(예. 설거지, 청소, 세탁, 수선, 애완동물 돌보기 등)에 소비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셋째, 양육(care)으로 아동이나 다른 성인(가정 내 구성원이든지 아닌지 상관없이)을 돌보는데 사용된 시간이다. 양육은 개인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아동과 함께 교통수단타기 및 이야기하기, 책읽기와 같은 교육을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넷째, 개인관리(personal care)로 수면(낮잠제외), 식사, 그 외 응답자 자신이 소비하는 의료행위, 개인적 서비스(위생, 의사방문 등)에 사용된 시간이다.

다섯째, 여가(leisure)로 광범위한 실내외 활동(예. 걷기, 하이킹, 운동, 문화 활동, 사교활동, 낮잠, 게임, 티비 시청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 기타(unspecified time)로 정부서비스, 종교활동, 시간사용일지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섯 범주의 활동영역에 따른 각 나라별 소비 시간에

비교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1〉 24시간 동안 각 활동영역별 소비 시간의 비율

단위: %

활동유형 성별 국가	유급노동, 학업		무급노동		양육		개인 관리		여가		기타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OECD 18개국 평균	21.0	12.2	8.0	15.8	1.8	4.6	44.9	45.7	22.8	20.4	1.5	1.3	100	100
멕시코	30.0	12.1	4.4	22.5	3.5	8.6	43.7	41.8	17.7	14.1	0.6	0.8	100	100
일본	27.4	14.4	5.7	17.6	0.5	2.1	45.6	46.3	18.7	17.3	2.2	2.4	100	100
한국	26.5	16.7	3.3	12.0	1.0	4.1	44.9	44.6	22.9	20.4	1.4	2.2	100	100
라트비아	24.2	17.2	8.8	16.7	1.2	2.4	44.9	45.3	20.8	18.1	0.3	0.3	100	100
리투아니아	22.4	16.9	9.7	18.5	1.6	2.6	45.3	45.6	20.5	16.1	0.3	0.3	100	100
폴란드	21.7	11.6	6.2	18.8	1.5	3.3	46.6	46.2	23.7	19.8	0.3	0.3	100	100
캐나다	21.5	15.1	9.0	13.8	2.4	4.1	42.5	44.6	24.0	20.4	0.6	2.2	100	100
에스토니아	21.0	16.9	11.5	18.5	1.8	2.6	44.1	45.6	21.3	16.1	0.3	0.3	100	100
이태리	20.8	9.9	6.0	21.2	1.4	3.2	47.0	46.6	23.8	18.3	0.9	0.7	100	100
호주	20.3	11.1	10.5	17.3	2.2	5.3	45.0	46.2	20.6	18.6	1.4	1.6	100	100
터키	20.2	6.1	2.6	3.7	3.5	22.0	46.7	46.8	19.8	17.6	7.2	3.8	100	100
미국	20.2	14.1	9.1	14.2	2.1	4.0	44.1	45.8	23.0	20.4	1.4	1.6	100	100
영국	20.1	11.9	9.5	16.6	1.6	3.6	43.3	44.6	24.7	22.3	0.9	1.0	100	100
스웨덴	20.1	14.8	10.0	14.0	1.8	3.0	42.5	44.4	24.4	23.0	1.2	0.6	100	100
뉴질랜드	19.9	11.5	11.3	17.8	1.1	2.9	47.7	48.9	19.3	18.2	0.7	0.7	100	100
노르웨이	19.7	13.4	9.3	13.2	1.8	3.2	42.1	43.5	26.7	26.4	0.4	0.3	100	100
스페인	19.5	11.5	9.9	18.6	2.3	3.8	44.7	46.1	23.1	19.5	0.5	0.4	100	100
슬로베니아	18.9	13.8	11.4	19.7	1.6	2.6	43.8	43.9	24.2	19.7	0.3	0.2	100	100
프랑스	18.7	11.6	8.7	16.3	1.5	2.9	48.9	49.4	19.6	17.3	2.6	2.5	100	100
핀란드	18.1	12.8	9.4	14.4	1.6	3.0	43.3	44.3	26.1	24.2	1.0	1.0	100	100
독일	17.4	10.0	9.8	16.3	1.4	2.6	44.4	45.7	25.8	24.3	1.2	1.0	100	100
불가리	16.5	12.4	11.7	20.6	1.2	2.2	49.6	48.5	20.7	16.2	0.3	0.2	100	100
벨기에	15.6	10.1	9.7	16.1	0.8	1.9	44.9	46.6	26.8	23.1	2.6	2.2	100	100

주: 남과 여의 대상연령은 15세 이상임. 24시간을 전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각 활동별 상대적인 소비시간 비율을 제시함.

자료: OECD(2011b). Social policy division-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 pp.2-3. 표 LMF 2.5A, LMF 2.5B를 재구성함.

이외에 정부차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한 사례로 호주의 생활시간관련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2004년 호주의 아동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LSAC)에서 1세 영아와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주

중과 주말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15분 간격으로 오전 4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24시간을 시간일지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연구결과 시간기록에서 많은 결측값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오프테이타의 결측값을 고려하여 수면(sleeping), 개인관리(personal care), 여가(leisure), 이동(travel/taken places)시간 유형별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생활시간을 재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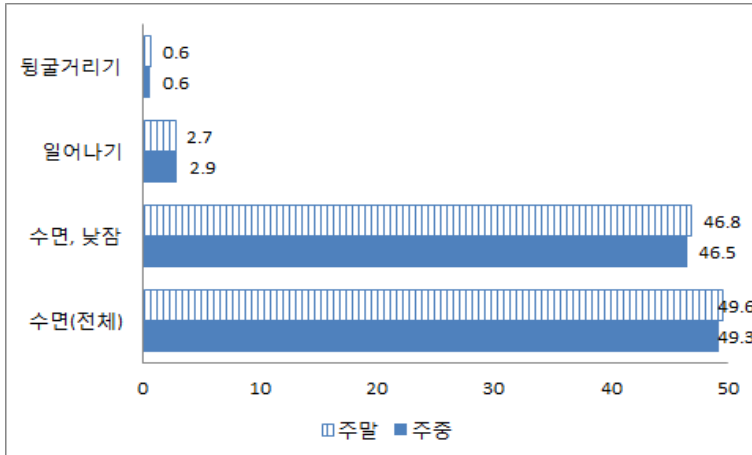
첫째 수면은 주중 709분, 주말 714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면, 낮잠(sleeping/napping)은 주중 669분, 주말 674분, 일어나기(awake in bed)은 주중 41분, 주말 39분, 아무것도 안함, 뒹굴거리기(noting/bored/restless)는 주중 8분, 주말 9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관리는 주중 252분, 주말 250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식, 식사(eating/drinking/being fed)는 주중 140분, 주말 140분, 목욕, 옷입기, 머리손질, 건강관리(bathe /dress/hair/health)는 주중 68분, 주말 62분, 안아주기, 포옹하기(held/cuddle)는 주중 11분, 주말 11분, 울기, 투정하기(crying/upset)는 주중 11분, 주말 11분, 혼내기, 훈육(being reprimanded/corrected)는 주중 14분, 주말 13분, 망가뜨리기, 어지럽히기(destroy things/create mess)는 주중 9분, 주말 8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는 주중 561분, 주말 567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활동수행(achievement)은 주중 567분, 주말 561분으로 활동수행을 구성하는 책보기, 이야기하기, 노래하기, 색칠하기, 책읽기 시간이 주중 75분, 주말 63분, 교육적 게임이 주중 52분, 주말 45분으로 나타났다. 운동(exercise)은 주중 77분, 주말 104분으로, 운동을 구성하는 걷기, 산책은 주중 16분, 주말 16분, 자전거 타기는 주중 18분, 주말 25분, 그 외 운동은 주중 49분, 주말 79분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본생활 또는 읽기 학습은 주중 22분, 주말 20분, TV 또는 영화시청은 주중 125분, 주말 134분, 컴퓨터 사용은 주중 17분, 주말 21분, 음악과 라디오 듣기 주중 21분, 주말 22분, 사람만나기, 특별행사, 파티는 주중 37분, 주말 103분, 그 외 놀이나 활동은 주중 115분, 주말 159분, 계획된 수업이나 활동은 주중 144분, 주말 15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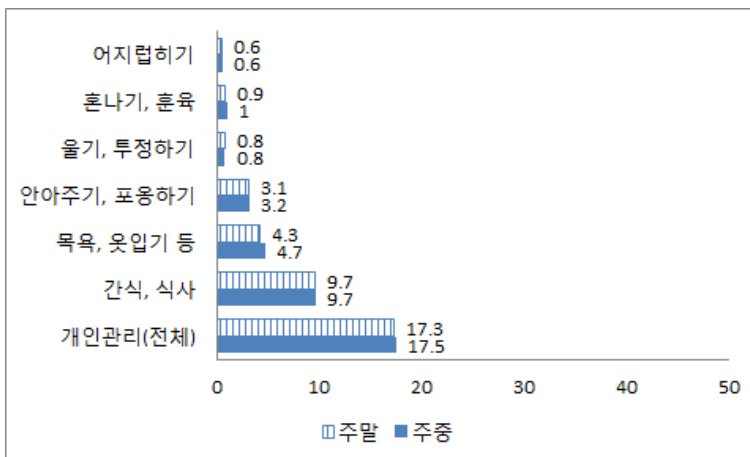
넷째, 이동은 주중 118분, 주말 128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인과 함께 장소가기(taken places with adult)는 주중 51분, 주말 67분, 차타고 이동(travel in a car)은 주중 70분, 주말 65분, 대중교통으로 이동(travel on

public transport)은 주중 7분, 주말 6분, 자전거 또는 유모차 등으로 이동(taken in a pusher/bike seat)은 주중 5분, 주말 5분으로 나타났다(그림 II-2-1~II-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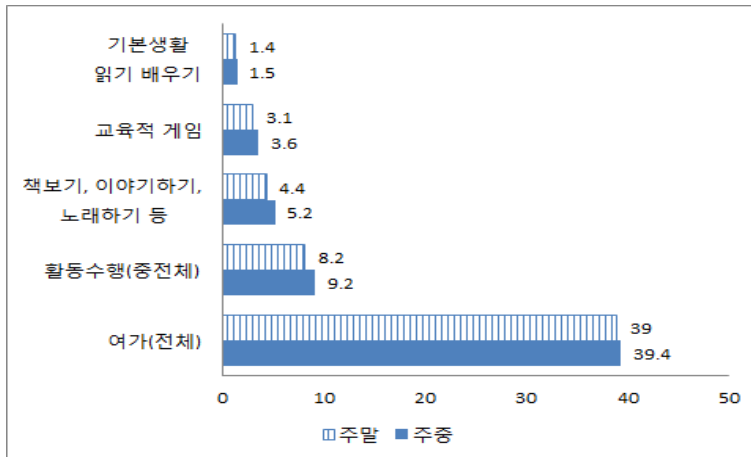
주: 데이터 값은 24시간을 100%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
 자료: Baxter(2007). Children's time use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data quality and analytical issues in the 4-year cohort의 표 16을 도식화함.

[그림 II-2-1]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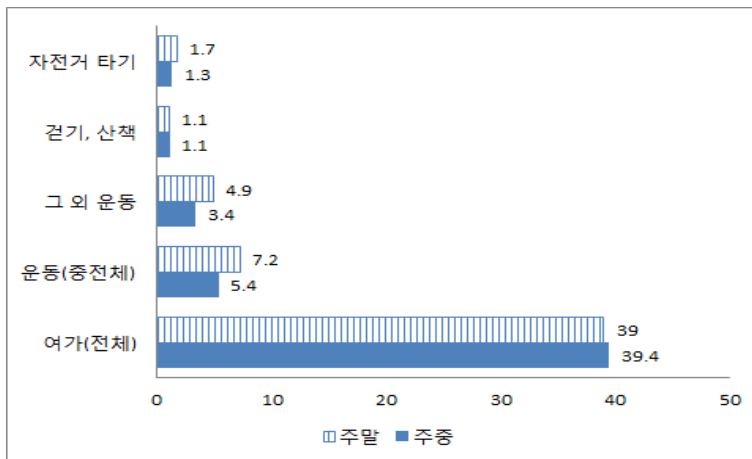
주: 데이터 값은 24시간을 100%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
 자료: Baxter(2007). Children's time use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data quality and analytical issues in the 4-year cohort의 표 16을 도식화함.

[그림 II-2-2] 개인관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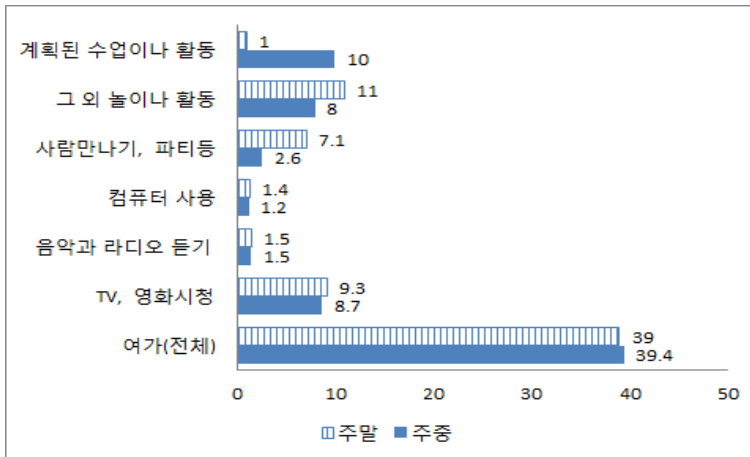
주: 데이터 값은 24시간을 100%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
 자료: Baxter(2007). Children's time use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data quality and analytical issues in the 4-year cohort의 표 16을 도식화함.

[그림 II-2-3] 여가시간(활동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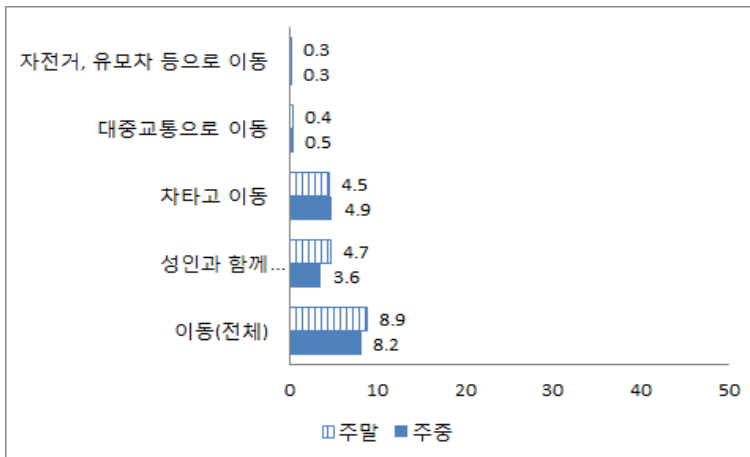
주: 데이터 값은 24시간을 100%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
 자료: Baxter(2007). Children's time use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data quality and analytical issues in the 4-year cohort의 표 16을 도식화함.

[그림 II-2-4] 여가시간(운동)



주: 데이터 값은 24시간을 100%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
 자료: Baxter(2007). Children's time use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data quality and analytical issues in the 4-year cohort의 표 16을 도식화함.

[그림 II-2-5] 여가시간(기타)



주: 데이터 값은 24시간을 100%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
 자료: Baxter(2007). Children's time use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data quality and analytical issues in the 4-year cohort의 표 16을 도식화함.

[그림 II-2-6] 이동시간

즉, 4-5세 유아는 하루 24시간 중 수면시간을 주중 49.3%, 주말 49.6%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여가시간을 주중 39.4%, 주말 39%로 많이 소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부범주로는 개인관리의 간식, 식사시간이 주중, 주말 각 9.7%인 반면, 여가의 TV 또는 영화시청시간이 주중 8.7%, 주말 9.3%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중과 주말의 시간차이가 많이 나는 활동으로는 계획된 수업이나 활동을 주중 10%, 주말 1.0%으로 주중에 훨씬 많이 사용하는 반면, 사람만나기, 특별행사, 파티 시간이 주중 2.6%, 주말 7.1%, 운동시간은 주중 5.4%, 주말 7.2%로 주말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영유아의 생활시간과 가족

영유아의 생활시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가족유형 및 부모의 소득 수준, 학력 등에 따른 가족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영유아의 생활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종단연구인 가계패널 부가조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의 아동발달 부가조사(Child development supplement)는 1981년에서 1997년 사이 미국 아동들의 부모와의 공유시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족구조 및 부모교육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일지와 관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부모 공유시간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영향력의 크기는 미미하였고 양부모 가족의 아동들은 어머니, 아버지 및 부모와의 공유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한부모 가족의 아동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Hofferth & Sandberg, 2001).

Bianchi와 Robinson(1997)은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3~11세 아이들의 시간사용과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서, 텔레비전 시청, 학습, 가사일 돕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아동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적고 공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 가정 및 양부모 가정의 아이들 사이에 각 활동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취업 상태와 아동들의 가정 활동 시간 사이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미국의 NICHD 영유아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영유아들의 생후 1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생활시간과 부모의 취업, 모자 관계 및 초기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취업으로 인한 시간할당은 집안일이나 여가, 사회

적 활동의 시간은 줄어도 영아를 돌보는 시간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에 비해 가용시간 중 양육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주중 양육 활동 시간은 적으나 주말의 양육 시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모의 근무시간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 가정환경의 질, 그리고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Huston & Aronson, 2005).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의 자녀양육 시간은 차이가 존재한다. Usdansky와 Parker(2007)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공유시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6시간 반정도를 자녀와 함께 하는 반면 아버지는 4시간 15분정도를 공유하여 어머니들에 비해 2/3정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본적 양육이나 집안일에 아버지의 2배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TV시청, 여가활동 시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간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활동유형 별로 사용된 시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2-2〉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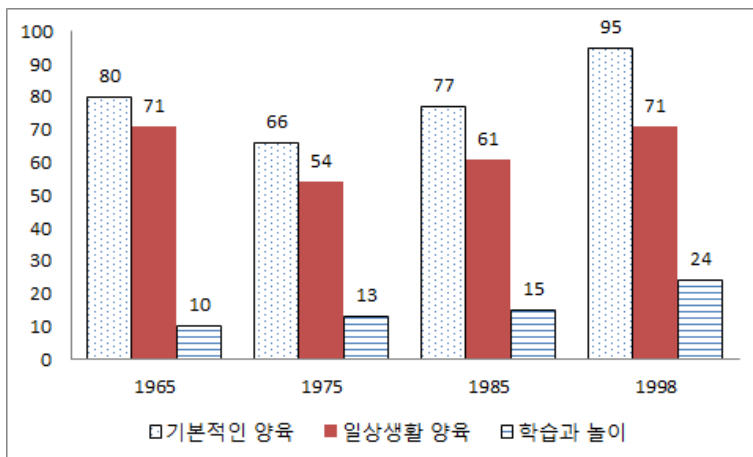
구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소비시간의 차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비율
기본적 양육	30.57	77.25	***	0.4
상호작용적 돌봄	26.83	44.97	***	0.6
쇼핑	16.51	28.3	***	0.58
집안일	23.9	63.1	***	0.38
식사	46.37	55.81	***	0.83
여가	48.9	55.33		0.88
TV시청	54.57	53.06		1.03
전체	254.82	384.81	***	0.66

자료: Usdansky & Parker(2007). Married father and mother's time with children. 표2를 재구성함(<http://paa2007.princeton.edu/papers/70390>).

가족과 영유아의 생활시간은 한부모의 확대, 취업한 부모의 증가, 가족 구성원의 감소 및 부모의 고령화, 부모의 고학력화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부모됨의 자발적 특성, 자녀 안전에 대한 염려, 부모와 아동기의 문화적 특성의 변화 등의 행동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Sayer, Bianchi, & Robinson, 2004).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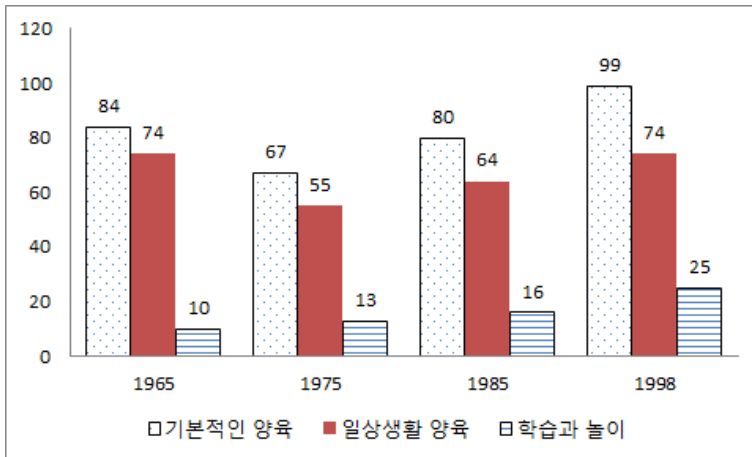
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부모의 취업 유무, 가족 유형별 자녀와 공유시간, 기본적인 양육시간에 대한 시대적 변화추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Bianchi, Raley, & Milkie, 2005; Fox, Han, Ruhm, & Waldfogel, 2011; Sayer, Bianchi, & Robinson, 2004).

Sayer, Bianchi와 Robinson(2004)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부부가 함께 있는 가정의 어머니와 한부모(모자)가정의 어머니에 따른 아동양육참여시간을 1965년, 1975년, 1985년, 1998년의 10년 주기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어머니들의 기본적인 양육(primary care)과 일상생활의 양육(daily care)을 위한 시간은 1965년에서 1975년 사이에는 감소하다가 1985년과 1998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85년 시간소비의 양은 1965년보다 적었다. 이는 미국 사회의 1965년과 1975년 사이 출산율 하락의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 학습과 놀이(teaching and playing)는 년도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양부모 가정 어머니의 경우 이와 유사한 시간사용의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모자가정 어머니의 경우 시간의 양은 양부모 가정의 어머니보다 적었으나 시대적 변화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양육, 일상생활의 양육, 학습과 놀이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각 시대별 하위범주에 따른 1일 시간사용(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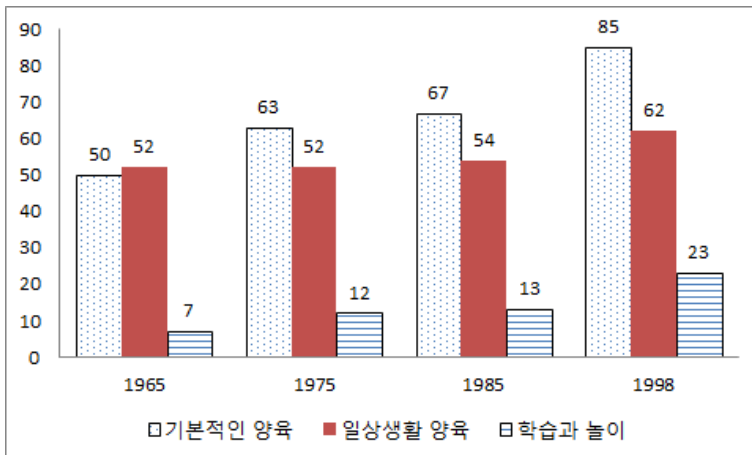
자료: Sayer, Bianchi, & Robinson(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pp18. 표 1을 도식화하여 제시함.

[그림 II-2-7] 어머니의 자녀양육 1일 평균 참여시간(분)



자료: Sayer, Bianchi, & Robinson(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pp18. 표 1을 도식화하여 제시함.

[그림 II-2-8] 부+모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1일 평균 참여시간(분)



자료: Sayer, Bianchi, & Robinson(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pp18. 표 1을 도식화하여 제시함.

[그림 II-2-9] 한부모(모자)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1일 평균 참여시간(분)

Bianchi, Raley와 Milkie(2005)는 1975년과 2000년의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와의 공유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는 1975년에 비해 모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

히 취업모의 경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적은 시간을 유아와 함께 하지만, 2000년에는 1975년보다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2000년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한 주에 36시간임을 고려할 때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와 공유시간의 차이는 5시간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비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책을 보는데 0.5일/주,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데 0.8일/주 정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두 범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숙제를 봐주고, 학교나 외부활동을 위해 데려다주고, 활동 시 함께 참여하고, 집안일을 같이 하는 시간에는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ox, Han, Ruhm과 Waldfogel(2011)은 1967년과 2009년의 부모의 근로형태에 따른 유아를 위한 시간사용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영유아를 위한 기본적인 양육시간이 더 적었으며,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2003-2008년 부모들은 1975년 부모들에 비해 영유아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2003-2008년 취업모는 1975년 비취업 모만큼 자녀의 기본적 양육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나, 아버지들도 최근 더 많은 시간을 자녀 양육에 소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 양육시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특히 5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2003~2008년에는 주당 4시간~6시간정도 증가하였으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기본적 양육 시간의 경우 1997년과 2003~2008년 모두 주당 9~14시간 정도로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시간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다양한 가족 구조, 맞벌이 부모의 증가, 고학력화 등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소비한 생활시간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취업유무, 성차에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공유하는 시간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 및 모 취업유무 측면에서는 영아를 위한 기본적인 양육시간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기본적 양육이나 돌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TV시청, 여가활동, 식사활동 시간을 자녀와 함께 더 많이 공유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나. 국내의 영유아 생활시간조사

1) 영유아의 생활시간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는 상대적으로 조사된 바가 많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연구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영유아기의 생활조사는 방법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영유아기의 아동들은 하루일과를 구조화하여 기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기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들의 생활시간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적 어려움 외에도 ‘어린 아동들의 생활시간 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를 지적하기도 한다(진미정, 2010; p. 44).

그러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영유아 가족의 구조, 규모와 생활시간 사용에 의해 다양한 생활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영유아기의 생활시간 구성을 파악하고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일은 필요한 작업이다.

한국아동패널(이정림 외, 2011; 김은설 외, 2012)의 하루 일과시간 분석에 따른 유아의 생활실태 중 3세와 4세를 비교하여 보면, 하루 일과 중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시간이 383분에서 446분으로, 주양육자와 놀기 194분에서 129분으로, 친구와 놀기 133분에서 71분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3세에서 4세 사이에서도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주양육자나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기숙과 손수연의 연구(2012)에 의하면, 한국, 중국, 일본과 대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는데, 기상시각과 취침시각, 식사 시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교육·보육 기관의 등·하원 시각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조기/특기교육과 전자매체 사용 시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의 유아들이 기상과 취침 시각, 식사 시간도 늦은 편이었고, 한국의 유아들이 조기/특기교육 참여가 높았으며, 컴퓨터의 사용은 제일 높았다.

김미숙·송운진(2011)의 연구는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394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습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김은화(2012)는 만 1세 이상 취학전 영유아와 부모 140쌍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위해 어머니에게 영유아의 활동을 중심으로 평일과 주말 각각 1일씩 24시간 동안의 생활을 시간일지에 작성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질

문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영미(2011)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3~6세 유아의 어머니 3731명을 대상으로 유아 일상생활 전반적인 경향을 조사하였다.

김미숙·송윤진(2011)의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의 취침시각은 21시 53분이었고, 시간대별 빈도를 보면 57.4%가 밤 10시 이후에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밤 9시 이전에 취침하는 경우는 8.7%에 불과하였다. 일어나는 시각은 평균 7시 40분이었고, 시간대별로 빈도를 보면, 36%가 8시 이후에 일어나고, 유아들의 수면시간은 평균적으로 9시간 47분이었으나 10시간의 수면을 채우지 못하는 유아가 53.6%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늦은 귀가와 늦은 취침,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유아도 더불어 부모의 일상생활습관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람직하지 않은 수면 습관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중 수면시간이 평균 10시간 16분으로 영유아들의 권장 수면량보다 1~2시간 정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미(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은 7시 30분에서 8시 경에 기상하고 8시에서 8시 30분 경에 아침 식사를 한 후 9시경 등원하여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귀가하였으며 기관재원 시간의 평균은 6.41이었다. 저녁식사는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하고 오후 9시 이후에 취침하여 평균 수면시간은 9.82시간이었다.

식사습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숙·송윤진(2011)의 연구에서는 아침을 매일 먹거나 대체로 먹는다는 응답이 85.9%, 저녁 7시 이후에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72.3%이었고, 취침 전 야식은 매일 먹거나 먹을 때가 많다는 응답이 28.8%로 나타났다.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는 식사와 간식 먹기에 하루 평균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 18분이었고, 이영미(2011)는 저녁식사는 7시에서 7시반 사이에 먹는다고 하였다. 늦은 저녁 식사는 늦은 취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침 전 야식섭취는 비만이나 깊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며,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사람은 영유아들이 올바른 식사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배변습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숙·송윤진(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아침 배변 상황은 매일 아침 배변을 하거나 배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24.1%, 매일 아침에 배변을 절대 하지 않거나 배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49.7%로 나타났다. 배변시각은 오전 8~12시 사이가 22.3%, 18시 이후가 24.1%이었으며,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이 41.1%로 높았다. 유아들이 낮 시간 동안 충분히 신체활동을 하고 기분 좋은 피로감으로 깊은 숙면을 취한 뒤 아침을 반

드시 섭취함으로써 배변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놀이습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미숙·송윤진(2011)의 연구에서 유아의 가정에서 놀이습관 중 놀이 공간에 대한 응답에서 항상 집안에서 놀거나 거의 집안에서 논다는 응답이 61.7%, 유아의 실외 놀이시간이 1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74.4%인 것으로 나타나 놀이 공간이 주로 실내인 집안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대근육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아들의 야외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들의 생활시간이 성과 연령, 기관의 특징 등의 변인에 따라 어떠한지를 살펴본 연구로는 이경미·이기숙(2009)과 이부미(2011)의 연구가 있다. 이경미·이기숙(2009)은 만 3~5세 유아 총 166명을 대상으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일과가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서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성에 따라 유아의 하루일과가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부 일과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를 보였다. 남아는 쌓기놀이, 대근육활동, 탈 것, 동물 관찰과 돌보기에, 여아는 역할놀이, 언어영역에서 놀이, 조형활동, 음률활동, 그네를 타거나 대화하기에 많이 참여했다. 반면, 집단활동, 특별활동, 급식/간식, 휴식/낮잠, 전이, 씻기 및 용변, 귀가시간에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5세 유아들은 만 3세에 비해 집단활동과 특별활동에 많이 참여했다.

위와 같이 영유아의 생활시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수면시간, 식사습관, 배변습관, 놀이습관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었다. 또한 기관의 유형, 연령, 성별에 따른 영유아의 생활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영유아들의 기본 생활시간과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2) 영유아의 생활시간과 가족관련 변인

영유아의 생활시간에 있어서 시간 배분은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가족 연구들이 가족 구조의 영향력을 설명할 때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 등을 매개로 하는 경우도 여전히 가족구조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생활시간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며 가족 안에서 아동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찰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먼저 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진미정(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학교 시간과 수동적 놀이시간은 가족구조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원에 다니는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가족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는 양친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3세대 가족, 조손가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2004년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0세에서 18세 미만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소득과 가족원수를 통제한 결과, 모자가족, 3세대 가족과 양친가족의 아동 사이의 차이는 사라졌으며, 부자가족과 조손가족 아동의 경우만 유의하였다.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들이 시간을 배분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는 전국 3,5세 유아들 2,350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생태학적인 변인(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취업유무, 생활지역,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양육불안 등)이 유아의 하루일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중 유아의 하루일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아의 연령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취업유무, 생활지역, 어머니의 양육불안 순으로 유아의 하루일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평일 부모-자녀 공유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평일에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였다. 평일 놀이활동의 총 공유시간은 비취업모 가정의 아버지들과 취업모 가정의 아버지들이 동일하였고, 평일에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학습 활동에 소요하고 있었다. 주말 부모-자녀 공유 시간을 보면, 취업모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로 놀이 활동과 학습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비취업모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놀이 활동 영역 중에서 바깥놀이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취업모 가정의 아버지들은 비취업모 가정의 아버지들보다 주말에 놀이나 학습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주말에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어머니들의 양육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최호중·김설한·김성재(2009)의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의 신체 건강과 기본생활습관의 차이를 분석했다. 서울 및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을 다니고 있는 유아를 둔 어머니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의 수면습관, 식사습관, 놀이습관 및 여가활동에서 취업모와 미취업모 유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배변습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유아의 수면습관은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취업모의 경우 유아가 10시 이후 취침하는 경우가 34.4%로 16.8%인 미취업모 유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기상 시각은 모의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오전 7시~8시 사이가 65.8%에 해당하였고, 기상 시 기분상태는 미취업모의 유아가 취업모의 유아보다 항상 기분이 좋거나 기분 좋게 일어나는 비율이 약 24%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식사습관 중 아침 식사 전 활동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유아들 모두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시청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아침 식사를 매일 먹고 있는 유아는 취업모의 경우 84%, 미취업모의 경우 92.4%이었으며, 취업모 유아의 경우 아침을 거의 먹지 않거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8%로 미취업모 유아 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식사 시간은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6시 30분~7시 30분 사이가 50%였다. 셋째, 유아의 놀이 습관 중 방과후 놀이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69.6%의 유아들이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외놀이보다는 실내놀이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다.

부모와의 공유시간 별로 시간사용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머니이고, 모자간 공유시간이 부자 공유시간의 2배 이상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일상 활동과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고, 공유 시간의 양도 일상 활동과 놀이 활동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한 이영환(2012)의 연구결과에서는 첫째,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보내는 시간은 평일은 44분, 주말은 3시간 41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보내는 시간은 평일은 4시간 50분, 주말은 6시간 30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주로 주말에 자녀를 돌보며 평일에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6.5배가 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버지에 비해서 어머니가 영·유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영유아들의 생활이 현대사회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부모의 생활양식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수면, 식사, 배변 등의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현재의 영유아의 기본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임에 틀림이 없다.

Ⅲ. 영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 개관

이번 장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실시되었던 부모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반적인 영유아의 특성 및 어머니의 특성을 소개함으로써 이후 4~6장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영유아 특성

다음은 영유아의 특성 중 신체 특성인 아동의 키, 몸무게와 체온을 측정된 결과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평소의 자녀 건강상태와 기분상태를 알아보았다.

가. 키, 몸무게, 체온

어머니가 영유아의 키, 몸무게, 체온을 측정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Ⅲ-1-1>과 같다. 영유아의 키는 평균 94.81cm로서, 남아 평균은 94.74cm, 여아 평균은 94.87cm였다.

<표 Ⅲ-1-1> 영유아의 키, 몸무게, 체온

단위: 명, cm, kg, ℃

구분	사례수	키			몸무게			체온		
		평균	표준 편차	F	평균	표준 편차	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500	94.81	11.12		14.11	2.78		36.75	0.57	
성별										
남아	256	94.74	10.93	0.04	14.41	2.85	12.84***	36.74	0.62	0.23
여아	244	94.87	11.32		13.79	2.66		36.76	0.52	
연령										
1세	128	83.13	5.50	4102***	11.40	1.53	299.68***	36.75	0.54	2.02
2세	133	92.57	7.74		13.55	1.89		36.72	0.57	
3세	118	98.98	7.40		15.16	2.06		36.83	0.63	
4세	121	105.55	8.83		16.55	2.50		36.71	0.55	

*** $p < .001$

연령별 키는 1세는 83.13cm, 2세는 92.57cm, 3세는 98.98cm, 4세는 105.55cm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키의 평균도 증가되고 편차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몸무게는 평균은 14.11kg이며, 남아는 14.41kg, 여아는 13.79kg 였다. 연령별로는 1세는 11.40kg, 2세는 13.55kg, 3세는 15.16kg, 4세는 16.55kg 였으며 성별과 연령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갔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몸무게도 증가하고 편차도 조금씩 증가하였다. 한편 체온의 경우 평균 체온을 보면, 36.75℃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로 체온 평균은 크게 차이는 없었다.

나. 건강상태

어머니가 보는 영유아의 평소의 건강상태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87.2%가 좋은 편, 12.4%가 보통, 0.4%가 나쁜 편이라고 했다. 영유아의 건강상태는 영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직업 유형과 양육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 직업유형에 따라서 휴직/시간제가 4.11점으로 유직 4.09점과 무직 4점 보다 더 높았다. 어머니 양육 유형에서는 민주형 4.29점, 통제형 4.18점, 방임형 3.95점, 적대형 3.77점으로 민주형과 통제형 자녀의 건강상태가 방임형과 적대형 보다 좋은 편에 더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표 III-1-2〉 영유아의 건강상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평균	t/F	
전체	500	18.2	69.0	12.4	0.4	4.05		
성별								
남아	256	15.2	73.8	10.2	0.8	4.04	0.72	
여아	244	21.3	63.9	14.8	0.0	4.07		
연령								
1세	128	17.2	67.2	15.6	0.0	4.02		
2세	133	17.3	70.7	12.0	0.0	4.05	0.80	
3세	118	20.3	70.3	7.6	1.7	4.09		
4세	121	18.2	67.8	14.0	0.0	4.04		
직업유형								
유직	216	19.0	70.8	10.2	0.0	4.09		
휴직/시간제	46	19.6	71.7	8.7	0.0	4.11	3.04*	
무직	238	17.2	66.8	15.1	0.8	4.00		

(표 III-1-2 계속)

구분	사례수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평균	t/F
양육유형							
민주형	69	34.8	59.4	5.8	0.0	4.29	39.45***
통제형	203	20.7	76.4	3.0	0.0	4.18	
적대형	109	6.4	66.1	25.7	1.8	3.77	
방임형	119	15.1	64.7	20.2	0.0	3.95	

주: 해석의 이해를 돕기위해 척도 점수를 변환 하였음.

* $p < .05$, *** $p < .001$

다. 기분상태

평소 자녀의 기분상태가 어떠한지를 어머니가 5점 척도로 보고한 결과를 보면 <표 III-1-3>과 같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분상태에 대해 90.2%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영유아의 연령, 어머니 직업유형과 양육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1-3〉 영유아의 기분상태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평균	t/F
전체	500	16.2	74.0	9.4	0.4	4.06	
아동 성별							
남아	256	16.4	71.5	11.7	0.4	4.04	1.71
여아	244	16.0	76.6	7.0	0.4	4.08	
아동 연령							
1세	128	13.3	76.6	10.2	0.0	4.03	2.93*
2세	133	20.3	72.9	6.8	0.0	4.14	
3세	118	13.6	74.6	11.0	0.8	4.01	
4세	121	17.4	71.9	9.9	0.8	4.06	
직업유형							
유직	216	19.0	74.5	6.5	0.0	4.12	6.26**
휴직/시간제	46	10.9	76.1	13.0	0.0	3.98	
무직	238	14.7	73.1	11.3	0.8	4.02	
양육유형							
민주형	69	34.8	62.3	2.9	0.0	4.32	23.69***
통제형	203	15.3	79.8	4.9	0.0	4.10	
적대형	109	10.1	69.7	18.3	1.8	3.88	
방임형	119	12.6	74.8	12.6	0.0	4.00	

주: 해석의 이해를 돕기위해 척도 점수를 변환 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의 기분상태는 연령 중 2세의 평균점수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유직의 평균 점수가 4.12점으로 무직 4.02점, 휴직/시간제 3.98점 보다 높았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민주형 자녀가 4.32점, 적대형 3.88점으로 민주형의 자녀가 적대형의 자녀보다 기분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특성

다음은 어머니의 시간사용과 자녀의 시간사용에 대해 살펴보고 시간일지를 작성한 주중, 주말 이틀 동안 시간만족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어머니 개인적 특성으로 우울정도 지각, 삶의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지각, 어머니의 자녀양육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어머니의 시간사용

1) 하루 일과 계획 여부

어머니의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하루 일과의 계획 여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 48.2%, 아니다 51.8%로 하루일과를 계획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유형과 학력, 가구 월수입, 양육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 하위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III-2-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직업유형에 따라서 유직, 시간제/휴직의 경우는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무직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는 하루일과를 계획하는 경우가 52.5% 정도 되었으나, 초대졸이상은 하루일과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가구 월수입의 경우 500만원 이상에서 하루일과를 계획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양육유형의 경우 민주형, 통제형은 하루일과를 계획하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적대형과 방임형은 하루일과를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2-1〉 어머니의 하루 일과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χ^2
전체	500	48.2	51.8	
직업유형				
유직	216	51.9	48.1	21.29***
휴직/시간제	46	65.2	34.8	
무직	238	41.6	58.4	
학력				
고졸이하	118	52.5	47.5	2.69**
초대졸	160	48.1	51.9	
대재 이상	222	45.9	54.1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108	49.1	50.9	16.35***
300-500만원	277	43.3	56.7	
500만원 이상	115	59.1	40.9	
양육유형				
민주형	69	52.2	47.8	21.19***
통제형	203	55.7	44.3	
적대형	109	40.4	59.6	
방임형	119	40.3	59.7	

** $p < .01$, *** $p < .001$

2) 시간부족 이유

어머니의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각 변인별로 통계적 유의도를 분석하였으나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부적절하나 차이가 있었다. 직장(일)이 29.2%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부족을 못 느낀다는 경우도 1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자녀양육 18.8%, 가사노동 17.4%순이었으며, 이외 항목은 10%이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유직 어머니의 경우 직장(일)이 60.2%, 가사노동 13%였으며, 휴직/시간제의 경우 직장(일) 32.6%, 시간 부족 못 느낌 23.9%, 가사노동 17.4%였다. 반면 무직의 경우 자녀양육 30.3%, 시간 부족 못 느낌 25.2%, 가사 노동 21.4%를 보였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직장(일)로 인한 시간 부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가구 월수입의 경우 300만원 미만은 자녀양육이 30.6%로 가장 높은 반면 3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은 직장(일)이 각각 29.2%, 51.3%로 가장 높았다. 양육유형의 경우 통제형을 제외한 민주형, 적대형, 방임형 모두 직장(일)이 시간 부족 이유의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시간 부족 못 느낌의 경우 민

주형은 24.6%, 통제형은 26.1%인 반면 적대형 8.3%, 방임형 13.4%로 나타나 민주형과 통제형이 상대적으로 시간 부족을 못 느끼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어머니의 시간 부족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직장 (일)	자녀 양육	가사 노동	시간관리 못해서	자녀 교육	교제/ 사회활동	자기 개발	자신의 건강	이동 시간 많아	시간 부족 못느낌	χ^2
전체	500	29.2	18.8	17.4	7.8	2.8	1.8	1.6	0.8	0.8	19.0	
직업유형												
유직	216	60.2	7.4	13.0	4.6	1.9	0.5	0.9	0.0	0.5	11.1	na
휴직/시간제	46	32.6	13.0	17.4	8.7	0.0	0.0	4.3	0.0	0.0	23.9	
무직	238	0.4	30.3	21.4	10.5	4.2	3.4	1.7	1.7	1.3	25.2	
학력												
고졸 이하	118	23.7	22.0	17.8	6.8	2.5	4.2	1.7	0.8	1.7	18.6	na
초대졸	160	25.6	16.9	23.1	9.4	1.9	1.9	1.3	1.3	1.3	17.5	
대재 이상	222	34.7	18.5	13.1	7.2	3.6	0.5	1.8	0.5	0.0	20.3	
가구 월수입												
300만원미만	108	5.6	30.6	18.5	13.0	2.8	2.8	1.9	1.9	0.0	23.1	na
300-500만원	277	29.2	17.7	19.1	6.9	3.6	1.8	1.4	0.7	1.4	18.1	
500만원이상	115	51.3	10.4	12.2	5.2	0.9	0.9	1.7	0.0	0.0	17.4	
양육유형												
민주형	69	36.2	17.4	14.5	4.3	1.4	1.4	0.0	0.0	0.0	24.6	na
통제형	203	25.6	15.3	17.2	5.9	3.4	3.4	2.0	0.0	1.0	26.1	
적대형	109	30.3	28.4	12.8	10.1	3.7	0.9	1.8	1.8	1.8	8.3	
방임형	119	30.3	16.8	23.5	10.9	1.7	0.0	1.7	1.7	0.0	13.4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나. 자녀의 시간사용

1) 자녀의 일과계획 여부

어머니가 자녀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500명의 어머니 중에서 일과계획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44%,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 어머니는 56%로 나타났다.

하루 일과의 계획여부를 어머니의 직업유형, 학력, 가구 월수입, 양육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는 <표 III-2-3>과 같다. 어머니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유직과 무직은 각각 56.5%, 58.8%로 계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 휴직/시간제의 경우는 계

획을 하는 경우가 60.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자녀일과 계획의 유무를 보면, 고졸이하, 초대졸, 대재이상 세 집단 모두 자녀의 일과 계획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 집단 중, 가장 계획을 많이하고 있는 집단은 고졸 이하로 49.2%였고, 가장 계획을 안 하는 집단은 대재 이상으로 59.5%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계획을 안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3〉 어머니의 자녀 하루 일과 계획 여부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단위: 명, % χ^2
전체	500	44.0	56.0	
직업유형				
유직	216	43.5	56.5	12.21**
휴직/시간제	46	60.9	39.1	
무직	238	41.2	58.8	
학력				
고졸이하	118	49.2	50.8	4.83**
초대졸	160	45.0	55.0	
대재 이상	222	40.5	59.5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108	46.3	53.7	2.29**
300-500만원	277	41.9	58.1	
500만원 이상	115	47.0	53.0	
양육유형				
민주형	69	60.9	39.1	39.28***
통제형	203	49.3	50.7	
적대형	109	36.7	63.3	
방임형	119	31.9	68.1	

** $p < .01$, *** $p < .001$

어머니 양육유형에 따른 자녀 일과 계획의 여부를 보면, 민주형은 계획을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통제형과 적대형, 방임형은 계획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민주형의 부모들이 일과계획을 하는 비율이 6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통제형 49.3%, 적대형 36.7%, 방임형 31.9%의 순이었다.

2) 자녀 일과 계획 시 중점 사항

어머니가 하루 일과를 계획할 경우, 건강, 안전, 놀이, 학습, 기타 중 어떤 영

역에 중점을 두는 지 살펴보았다(표 III-2-4 참조). 어머니 220명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하위 요인 중에서 건강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 31.8%, 놀이 23.2%, 학습 8.6%,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영유아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자기 조절이 되지 않는 시기이므로, 건강과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일과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4〉 어머니의 자녀 하루 일과 계획 시 중점사항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건강	안전	놀이	학습	기타	χ^2
전체	220	35.9	31.8	23.2	8.6	0.5	
직업유형							
유직	94	42.6	31.9	20.2	5.3	0.0	na
휴직/시간제	28	28.6	35.7	21.4	14.3	0.0	
무직	98	31.6	30.6	26.5	10.2	1.0	
학력							
고졸이하	58	24.1	43.1	19.0	12.1	1.7	na
초대졸	72	38.9	26.4	22.2	12.5	0.0	
대재 이상	90	41.1	28.9	26.7	3.3	0.0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50	36.0	24.0	30.0	8.0	2.0	na
300-500만원	116	35.3	33.6	21.6	9.5	0.0	
500만원 이상	54	37.0	35.2	20.4	7.4	0.0	
양육유형							
민주형	42	42.9	31.0	19.0	4.8	2.4	na
통제형	100	35.0	29.0	25.0	11.0	0.0	
적대형	40	27.5	40.0	20.0	12.5	0.0	
방임형	38	39.5	31.6	26.3	2.6	0.0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하루 일과 계획 시 중점 사항에 대해 각 변인별로 통계적 유의도를 분석하였으나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은 부적절하나 약간 차이는 있었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하루 일과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고졸이하인 경우, 안전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건강 24.1%, 놀이 19.0%, 학습 12.1%순이었다. 초대졸은 건강 38.9%로 가장 높았고 안전 26.4%, 놀이 22.2% 순이었다. 대재 이상은 건강 4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안전 28.9%, 놀이 26.7%이었다. 하루 일과 계획시 중점 사항의 하위 영역인 학습에 대해 살펴보면, 세 그룹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졸이하와 초대졸은 대재이상보다 약 4배 정도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일과계획에 학습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루 일과 계획 시 중점을 두는 영역을 양육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민주형과 통제형, 방임형은 건강, 안전, 놀이, 학습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대형은 안전, 건강, 놀이, 학습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4가지의 양육유형 모두 일과 계획시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자녀의 일과 계획의 필요성 지각 여부

자녀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어머니가 시간일지를 작성하면서 시간계획의 필요성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그렇다 80%, 아니다 20%로 나타나 시간일지를 작성하면서 어머니들은 자녀 계획의 필요성을 대부분 지각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표 III-2-5 참조).

자녀 일과계획의 필요성 지각 여부를 각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 직업유형, 학력과 가구 월수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육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적대형 어머니가 85.5%로 양육유형 중 가장 많이 자녀의 시간계획의 필요성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어머니의 자녀 하루 일과 계획 필요성 지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χ^2
전체	280	80.0	20.0	
직업유형				
유직	122	79.5	20.5	0.23
휴직/시간제	18	77.8	22.2	
무직	140	80.7	19.3	
학력				
고졸이하	60	81.7	18.3	2.4
초대졸	88	83.0	17.0	
대재 이상	132	77.3	22.7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58	82.8	17.2	0.81
300-500만원	161	78.9	21.1	
500만원 이상	61	80.3	19.7	
양육유형				
민주형	27	81.5	18.5	10.92*
통제형	103	72.8	27.2	
적대형	69	85.5	14.5	
방임형	81	84.0	16.0	

* $p < .05$

다. 시간 사용의 만족도

1) 시간 만족도(평일)

시간 일지를 작성하는 이틀 동안 어머니들이 주중 자녀의 시간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의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46.6% 이었고, 보통이 44%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녀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5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6 참조).

자녀의 시간 사용 만족도는 어머니 직업유형과 가구 월수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력과 양육유형에서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와 초대졸이 각각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재 이상은 3.33점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양육유형에 따라서는 민주형이 3.94점으로 양육유형 중 자녀의 시간 사용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어머니의 자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주중)

구분	사례수	단위: 명, %, 점					평균	F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체	500	4.0	42.6	44.0	9.2	0.2	3.41	
직업유형								
유직	216	5.1	45.8	37.0	11.6	0.5	3.44	0.46
휴직/시간제	46	0.0	45.7	47.8	6.5	0.0	3.39	
무직	238	3.8	39.1	49.6	7.6	0.0	3.39	
학력								
고졸이하	118	4.2	47.5	39.8	8.5	0.0	3.47	5.12**
초대졸	160	6.3	42.5	43.8	7.5	0.0	3.47	
대재 이상	222	2.3	40.1	46.4	10.8	0.5	3.33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108	5.6	36.1	49.1	9.3	0.0	3.38	0.60
300-500만원	277	4.0	42.6	43.7	9.4	0.4	3.40	
500만원 이상	115	2.6	48.7	40.0	8.7	0.0	3.45	
양육유형								
민주형	138	18.8	58.0	21.7	1.4	0.0	3.94	189.68***
통제형	406	3.0	70.9	24.6	1.5	0.0	3.75	
적대형	218	0.9	14.7	68.8	15.6	0.0	3.01	
방임형	238	0.0	10.9	67.2	21.0	0.8	2.88	

주: 해석의 이해를 돕기위해 척도 점수를 변환 하였음.

** $p < .01$, *** $p < .001$

2) 시간 만족도(주말)

시간 일지를 작성하면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주말 시간 사용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만족과 만족이 48.6%이었고, 보통이 41%로 나타나 자녀의 시간 사용에 대해 어머니의 만족도는 50%가 되지 않았다(표 III-2-7 참조).

자녀의 주말 시간 사용 만족도는 어머니의 직업유형, 학력, 가구 월수입, 양육유형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의 시간 사용 만족도는 유직의 어머니가 3.55점으로 무직의 어머니 3.34점 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어머니 학력 중 대재 이상이 3.37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주중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이 3.5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주형 어머니의 만족도가 3.94점으로 다른 양육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어머니의 자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주말)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F
전체	500	4.2	44.4	41.6	9.6	0.2	3.43	
직업유형								
유직	216	6.5	50.5	34.3	8.8	0.0	3.55	10.28***
휴직/시간제	46	0.0	43.5	43.5	13.0	0.0	3.30	
무직	238	2.9	39.1	47.9	9.7	0.4	3.34	
학력								
고졸이하	118	5.1	48.3	39.0	6.8	0.8	3.50	2.83*
초대졸	160	5.6	45.0	38.8	10.6	0.0	3.46	
대재 이상	222	2.7	41.9	45.0	10.4	0.0	3.37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108	4.6	38.9	47.2	9.3	0.0	3.39	5.32**
300-500만원	277	4.0	42.2	42.6	10.8	0.4	3.39	
500만원 이상	115	4.3	54.8	33.9	7.0	0.0	3.57	
양육유형								
민주형	69	17.4	62.3	17.4	2.9	0.0	3.94	177.99***
통제형	203	4.4	69.0	26.6	0.0	0.0	3.78	
적대형	109	0.0	18.3	59.6	21.1	0.9	2.95	
방임형	119	0.0	16.0	64.7	19.3	0.0	2.97	

주: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척도 점수를 변환 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라. 어머니 개인적 특성

1) 우울 정도 지각

시간일지를 작성한 이틀 동안 어머니가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 전혀 우울하지 않음, 우울하지 않음, 보통임, 우울함, 매우 우울함의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표 III-2-8>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 중 우울하지 않음이 4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 보통이 33.6%, 우울함의 응답은 8.4%였다.

어머니의 우울정도 지각은 어머니 직업유형과 가구 월수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 학력과 양육유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 이상이 2.47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하가 2.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양육유형에서는 적대형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주형 어머니가 1.6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적대형 양육행동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우울함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어머니의 우울 정도 지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우울하지 않음	우울하지 않음	보통	우울함	평균	F
전체	500	14.4	43.6	33.6	8.4	2.36	
직업유형							
유직	216	10.6	50.5	33.3	5.6	2.34	0.54
휴직/시간제	46	19.6	34.8	28.3	17.4	2.43	
무직	238	16.8	39.1	34.9	9.2	2.37	
학력							
고졸이하	118	16.9	48.3	31.4	3.4	2.21	8.08***
초대졸	160	16.3	43.8	31.9	8.1	2.32	
대재 이상	222	11.7	41.0	36.0	11.3	2.47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108	22.2	37.0	31.5	9.3	2.28	1.43
300-500만원	277	12.6	45.5	33.6	8.3	2.38	
500만원 이상	115	11.3	45.2	35.7	7.8	2.40	
양육유형							
민주형	69	42.0	50.7	7.2	0.0	1.65	240.8***
통제형	203	17.2	61.1	20.7	1.0	2.05	
적대형	109	0.0	4.6	64.2	31.2	3.27	
방임형	119	6.7	45.4	42.9	5.0	2.46	

*** $p < .001$

2) 삶의 만족도 지각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매우만족, 만족,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의 5점 척도로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III-2-9>와 같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경우가 52.6%, 보통이 39.8%, 불만인 경우가 7.6%였다.

삶의 만족도 지각은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 직업유형, 가구 월수입과 양육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직업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유직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무직이 3.42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구 월 수입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이 3.3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양육유형에서는 민주형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대형이 2.76점으로 가장 낮았다.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무직보다는 유직의 어머니가, 가구 월 수입이 높을수록, 민주형 양육행동의 어머니일수록 어머니 자신의 삶의 만족도 지각이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9>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지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F
전체	500	3.4	49.2	39.8	7.4	0.2	3.48	
직업유형								
유직	216	4.2	53.2	36.6	6.0	0.0	3.56	4.44*
휴직/시간제	46	2.2	50.0	39.1	8.7	0.0	3.46	
무직	238	2.9	45.4	42.9	8.4	0.4	3.42	
학력								
고졸이하	118	5.1	45.8	42.4	6.8	0.0	3.49	0.45
초대졸	160	5.6	46.3	41.9	5.6	0.6	3.51	
대재 이상	222	0.9	53.2	36.9	9.0	0.0	3.46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108	3.7	35.2	51.9	9.3	0.0	3.33	6.46**
300-500만원	277	4.0	51.6	37.2	6.9	0.4	3.52	
500만원 이상	115	1.7	56.5	34.8	7.0	0.0	3.53	
양육유형								
민주형	69	14.5	72.5	13.0	0.0	0.0	4.01	233.7***
통제형	203	3.4	72.9	22.7	1.0	0.0	3.79	
적대형	109	0.0	5.5	66.1	27.5	0.9	2.76	
방임형	119	0.0	35.3	60.5	4.2	0.0	3.31	

주: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척도 점수를 변환 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3)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지각

어머니 자신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매우 가치있음, 가치 있음, 보통임, 가치없음, 전혀 가치없음의 5점 척도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II-2-10>과 같다. 가치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4%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32.2%, 가치없다고 생각한 경우는 0.4%였다.

어머니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지각은 어머니의 직업유형, 학력, 양육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가구 월수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휴직/시간제가 3.8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 이상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다. 양육유형에 따라서는 민주형이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대형이 3.3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2-10> 어머니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지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가치있음	가치 있음	보통	가치 없음	평균	F
전체	500	9.4	58.0	32.2	0.4	3.76	
직업유형							
유직	216	9.7	62.0	28.2	0.0	3.81	4.11*
휴직/시간제	46	13.0	56.5	30.4	0.0	3.83	
무직	238	8.4	54.6	36.1	0.8	3.71	
학력							
고졸이하	118	13.6	50.0	35.6	0.8	3.76	5.10**
초대졸	160	9.4	50.0	40.0	0.6	3.68	
대재 이상	222	7.2	68.0	24.8	0.0	3.82	
가구 월수입							
300만원 미만	108	7.4	54.6	38.0	0.0	3.69	2.57
300-500만원	277	10.1	57.0	32.1	0.7	3.77	
500만원 이상	115	9.6	63.5	27.0	0.0	3.83	
양육유형							
민주형	69	27.5	56.5	15.9	0.0	4.12	75.83***
통제형	203	10.8	71.9	17.2	0.0	3.94	
적대형	109	2.8	31.2	64.2	1.8	3.35	
방임형	119	2.5	59.7	37.8	0.0	3.65	

주: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척도 점수를 변환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마.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II-2-11>과 같다. 어머니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지,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해주는지 등 사회적 양육행동에 속하는 항목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3.6%~80.2%였다.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치거나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을 하게 한다거나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 주지 않는지 등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의 경우는 그렇다는 응답이 약 42.0%~60.2%였다.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은 한계설정보다는 사회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2-11>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단위: %, 점

구분	매우	대체로	보통	별로	전혀	평균	표준 편차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11.6	62.6	21.2	4.4	0.2	2.19	0.70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10.0	56.4	29.0	4.6	0.0	2.28	0.70
아이와 이야기해 주고 놀아준다	14.6	48.0	30.2	7.2	0.0	2.30	0.80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6.4	37.2	36.2	18.6	1.6	2.72	0.89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11.8	53.6	30.6	3.6	0.4	2.27	0.73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13.4	66.8	19.0	0.8	0.0	2.07	0.59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16.6	43.0	34.0	6.4	0.0	2.30	0.82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11.4	42.0	37.4	8.8	0.4	2.45	0.82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6.4	37.6	41.2	14.2	0.6	2.65	0.82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6.2	47.8	38.2	7.2	0.6	2.48	0.74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5.2	55.0	32.4	6.6	0.8	2.43	0.73
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1.4	40.6	40.0	16.0	2.0	2.77	0.80

3. 요약

전반적인 영유아의 특성 및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먼저 영유아의 키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키의 평균도 증가되고 편차도 컸다. 몸무게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하였고, 편차도 조금씩 증가했다. 체온의 경우에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영유아의 건강상태와 기분상태는 대체적으로 좋은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의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하루 일과의 계획여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 48.2%, 아니다 51.8%로 하루일과를 계획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하루일과 계획은 어머니의 직업유형과 학력, 가구 월 수입, 양육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직장(일)이 2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시간부족을 못 느낀다는 경우도 1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녀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어머니는 44%,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 어머니는 5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유형과 양육유형에 따라 자녀의 하루 일과 계획의 유무가 차이가 있었지만, 어머니 학력 정도에 따른 차이 없이 자녀의 하루 일과 계획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자녀의 일과 계획 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건강이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 31.8%, 놀이 23.2%, 학습 8.6%, 기타 0.5%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일과 계획시 중점을 두는 사항에 차이가 나타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선 순위가 달랐다. 자녀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어머니가 시간일지를 작성하면서 시간계획의 필요성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그렇다가 80%, 아니다가 20%로 시간일지를 작성하면서 부모들은 자녀 계획의 필요성을 대부분 지각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시간일지를 작성한 이틀동안 자녀의 시간사용 만족에 대해 알아본 결과 주중 시간 사용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46.6%이었고, 보통이 44%로 나타나 어머니는 자녀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50%가 채 되지 않았다. 주말에도 주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매우 만족과 만족이 48.6%이었고, 보통이 41%로 나타나 자녀의 시간 사용에 대해 어머니의 만족도는 50%가 되지 않았다.

시간일지를 작성한 이틀 동안 어머니가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전체 중 우울하지 않음이 4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 보통이 33.6%, 우울함의 응답은 8.4%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우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경우가 52.6%, 보통이 39.8%, 불만인 경우가 7.6%였다. 어머니 자신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는 가치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4%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32.2%, 가치없다고 생각한 경우는 0.4%였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양육행동에 속하는 항목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3.6%~80.2%였다.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의 경우는 그렇다는 응답이 약 42.0%~60.2%로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은 한계설정보다는 사회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IV. 영유아의 생활시간

본 장에서는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 행동영역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동영역별 공유자들을 살펴보았다.

영유아의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을 파악하기 먼저 대분류 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보고, 대분류의 각 영역별 중분류와 소분류 행동의 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보았다. 영유아의 생활시간 사용은 '영유아 행동 분류 기준'에 따라 행동 영역별로 주중과 주말의 평균 사용시간과 활동에 참여한 영유아의 비율인 행위자 비율, 행위에 참여한 영유아의 평균시간인 행위자 평균시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중과 주말 외에 영유아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활동하며 지내는지, 얼마만큼 그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일 평균 시간을 제시하였다. 1일 평균 사용시간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각 행동별로 (주중 사용시간×5일)+(주말 사용시간×2일)로 '주당 사용시간을 산출한 후, 주당 사용시간을 7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1.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

연구 대상 전체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영유아의 1일 평균 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들은 잠자고 먹고 씻는 등의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시간인 14시간 50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 또는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활동, tv시청, 놀이, 관람, 레저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제 및 여가관련 행동에 4시간 44분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도우미 이용 등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시간이 3시간 8분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동하기 1시간 4분, 학습 10분, 가정관리 돕기 1분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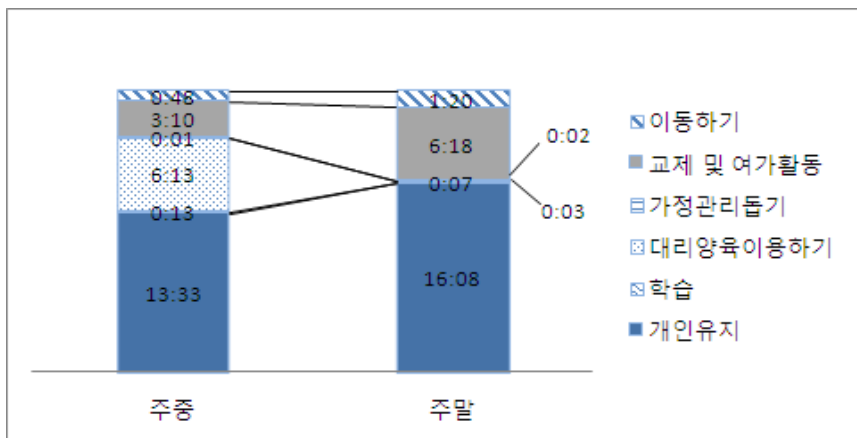
각 행동 영역별로 전체 영유아 중 각 행동을 10분 이상 참여한 영유아의 비율을 의미하는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은 모든 영유아가 참여하는 행동으로 100%의 행위자 비율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동하기의 경우 97.2%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이동하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다음으로는 대리양육 이용이 42.7%, 학습 23.7%, 가정관리 돕기 6.4%, 기타 행동 1.5%였다. 행위에 참여한 영유아들의 평균 시간인 행위자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14시간 50분, 대리양육 이용하기 7시간 20분, 교제 및 여가활동 4시간 44분, 이동하기 1시간 6분, 학습 44분, 기타행동 22분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영유아 생활시간 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3:33	100	13:33	16:08	100	16:08	14:50	100	14:50
학습	0:13	29.8	0:45	0:07	17.6	0:41	0:10	23.7	0:44
대리양육 이용하기	6:13	84.4	7:22	0:03	1.0	5:09	3:08	42.7	7:20
가정관리 돕기	0:01	4.8	0:22	0:02	8.0	0:28	0:01	6.4	0:26
교제 및 여가활동	3:10	100	3:10	6:18	100	6:18	4:44	100	4:44
이동하기	0:48	98.2	0:49	1:20	96.2	1:23	1:04	97.2	1:06
기타행동	0:00	1.2	0:25	0:00	1.8	0:21	0:00	1.5	0:22



[그림 IV-1-1] 주중 및 주말의 전반적인 생활시간 분포

영유아의 생활시간이 행동영역별로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주중 보다는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유지 평균시간은 주중 13시간 33분이었고, 주말에는 16시간 8분으로 주중 보

다는 주말에 개인유지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더 많았다. 학습의 경우에는 주중의 경우 평균 13분을 학습하는데 시간을 보냈으며 주말의 경우에는 7분으로 주말 보다는 주중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는 주중과 주말 시간이 큰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들은 주중 평균 6시간 13분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양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말에는 평균 3분으로 주말에는 대리양육을 거의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제 및 여가활동은 주중 보다는 주말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들은 주중 교제 및 여가활동을 3시간 10분 하였지만 주말에는 6시간 18분으로 3시간 가량 주말이 더 많았다. 이동하기도 주중 보다는 주말에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영유아들은 주중 48분을 이동하기에 참여한 반면 주말에는 1시간 20분을 이동하기에 참여하여 주말 이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영역별로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모두 100%였고,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평균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학습의 경우에는 전체 영유아의 29.8%가 주중 학습에 참여하여 주말 학습 17.6%보다 참여율이 더 높았다. 학습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45분, 주말 41분으로 영유아들은 주중과 주말 학습에 40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경우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주중의 경우 영유아의 84.4%가 대리양육을 이용하였지만 주말에는 1%의 영유아만 대리양육을 이용하였다. 대리양육 이용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7시간 22분, 주말에는 5시간 9분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은 주말에 대리양육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대리양육을 이용해도 이용시간은 주중 보다는 적게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이동하기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 98.2% 주말 96.2%로 거의 비슷했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49분, 주말 1시간 23분으로 30분 가량 주말이 더 많았다(표 IV-1-1, 그림 IV-1-1 참조).

가. 개인유지

전체 영유아의 생활시간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각 영역별로 시간 사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유지 항목의 1일 평균시간부터 살펴보면, 가장 많은 행동을 차지하는 행동은 수면으로 영유아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48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이 1시간 58분, 씻고 옷갈아 입기 등 개인관리 행동은 1시간 1분이었다. 그 외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 활동은 1분 또는 그 이하였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면과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행동은 행위자 비율이 90% 이상으로 대부분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수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순이었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1일 평균 시간과 동일하였다.

주중과 주말별로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수면은 주중보다 주말에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총 수면이 주중은 11시간 1분, 주말은 12시간 35분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밤잠이 주중 10시간 34분, 주말 11시간 12분인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들은 주중 보다 주말에 밤잠을 많이 취하고 있었다. 낮잠 및 줄음 또한 주중 24분, 주말 1시간 21분으로 주말에 낮잠 시간이 1시간 가량 더 많았다. 식사 및 간식 또한 주중보다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는데 주중은 1시간 28분, 주말은 2시간 27분이었으며, 식사하기가 주중 1시간 5분, 주말 1시간 51분이었다. 개인관리의 경우 주중 1시간, 주말 1시간 2분으로 시간 사용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그 외 개인유지 항목의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은 1분 또는 그 이하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주중과 주말의 개인유지 항목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면과 식사 및 간식하기, 개인관리에 99%이상의 영유아들이 참여하였고, 주중과 주말 큰 차이는 없었다. 건강관리의 경우 약 2% 주중이 높았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40분 정도로 비슷했다. 개인 양육 받기 행동의 경우 주말에 약 2%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20분 정도로 비슷했다(표 IV-1-2, 그림 IV-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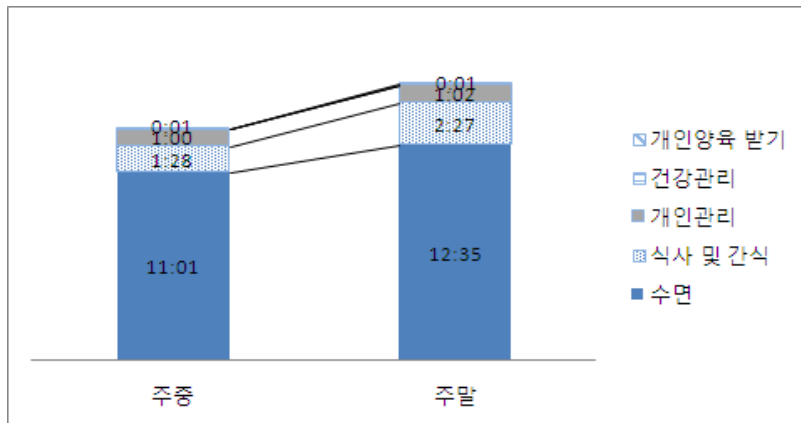
〈표 IV-1-2〉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3:33	100	13:33	16:08	100	16:08	14:50	100	14:50
수면	11:01	100	11:01	12:35	100	12:35	11:48	100	11:48
밤잠	10:34	100	10:34	11:12	100	11:12	10:53	100	10:53
낮잠·줄음	0:24	21.4	1:53	1:21	77.6	1:45	0:53	49.5	1:47
수면관련행동	0:02	13.0	0:16	0:01	9.2	0:19	0:01	11.1	0:17

(표 IV-1-2 계속)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식사및 간식	1:28	99.6	1:28	2:27	100	2:27	1:58	99.8	1:58
식사하기	1:05	99.4	1:05	1:51	99.6	1:51	1:28	99.5	1:28
간식먹기	0:22	67.2	0:34	0:36	81.6	0:45	0:29	74.4	0:40
개인관리	1:00	99.4	1:00	1:02	99.4	1:02	1:01	99.4	1:01
개인위생	0:46	99.4	0:46	0:49	99.0	0:50	0:48	99.2	0:48
외모관리	0:13	75.2	0:18	0:12	65.6	0:19	0:13	70.4	0:18
건강관리	0:01	3.8	0:40	0:00	1.6	0:46	0:01	2.7	0:41
개인양육 받기	0:00	3.0	0:19	0:01	4.8	0:21	0:00	3.9	0:20
위로받기	0:00	2.4	0:18	0:00	4.4	0:21	0:00	3.4	0:20
훈육받기	0:00	0.6	0:23	0:00	0.4	0:15	0:00	0.5	0:20
기타 일상 활동	0:00	2.6	0:33	0:00	1.6	0:27	0:00	2.1	0:31



[그림 IV-1-2] 주중 및 주말의 개인유지 시간 분포

나. 학습

학습 영역의 1일 평균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들은 학습지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습지 활동의 평균시간은 4분으로 12.2%의 영유아가 참여하였으며 행위자 평균은 33분이었다. 1일 평균 시간은 1분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유아들은 특기 적성활동에 2.8% 참여하고 있었고, 행위자 평균은 1시간 10분으로 시간사용이 많았다. 또한 학원 및 기관과제활동을 하는 영유아는 1%로 참여율은 미약하였지만 행위자 평균은 28분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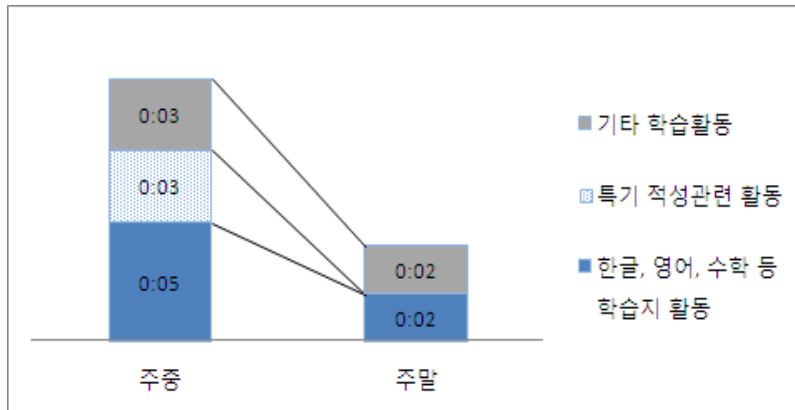
주중과 주말 학습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습지 활동과 특기 적성관련 활동에서 3분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 나머지 영역에서는 시간사용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었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주중 학습지 활동이 17.4%로 주말 7%보다 높았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32분, 주말 36분으로 비슷했다.

영유아들은 주중 5.2%, 주말 0.4%로 주중에 특기 적성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모두 1시간 10분으로 주중과 주말 큰 차이는 없었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행위자 비율은 주중 0.6%, 주말 0.4%로 1% 미만의 영유아들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43분, 주말 1시간 9분으로 시간 사용이 많았다(표 IV-1-3, 그림 IV-1-3 참조).

〈표 IV-1-3〉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시 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시 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학습	0:13	29.8	0:45	0:07	17.6	0:41	0:10	23.7	0:44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0:00	1.0	0:24	0:00	1.0	0:32	0:00	1.0	0:28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	0:05	17.4	0:32	0:02	7.0	0:36	0:04	12.2	0:33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0:00	0.6	0:43	0:00	0.4	1:09	0:00	0.5	0:54
특기 적성 관련 활동	0:03	5.2	1:10	0:00	0.4	1:10	0:01	2.8	1:10
각종 교구 이용 학습	0:00	1.6	0:45	0:00	2.0	0:48	0:00	1.8	0:46
기타 학습활동	0:03	8.4	0:37	0:02	8.4	0:34	0:03	8.4	0:35



[그림 IV-1-3] 주중 및 주말의 학습 시간 분포

다. 대리양육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1일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3시간 7분, 기관 중 어린이집은 2시간 58분, 유치원은 9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은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42.7%, 어린이집은 40%, 유치원은 2.5%, 기타시설 0.4%였으며, 양육도우미 이용은 1% 미만이었다. 행위자 평균 시간은 어린이집이 7시간 25분, 유치원 6시간 19분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1시간 가량 많았고, 양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균 5시간 29분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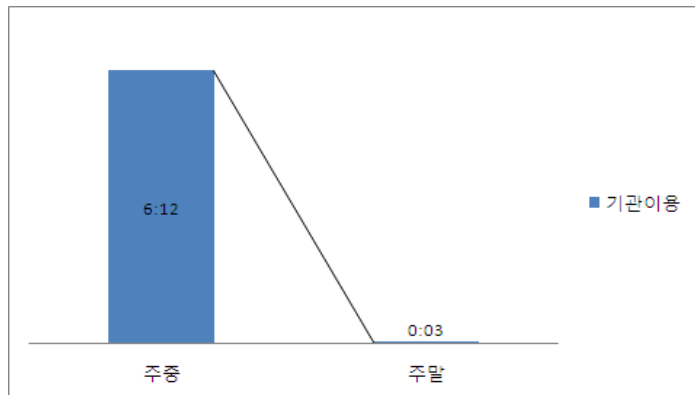
주중과 주말 대리양육 이용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기관이용의 경우 주중이 주말보다 월등히 시간사용이 많았다. 주중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평균시간은 5시간 53분으로 주말 3분 보다 많았으며, 유치원의 경우 주중에만 이용시간이 있었고, 평균시간은 19분이었다. 한편 기관이용 중 기타시설과 양육도우미 이용의 평균시간은 없었다. 행위자 비율 또한 주중이 월등히 높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주중에는 79.2%였지만 주말은 1% 미만으로 주말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주중에만 행위자 비율이 5%였으며 기타시설과 양육도우미 이용은 주중과 주말 모두 1% 미만이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어린이집의 경우 주중 7시간 25분, 주말 6시간 24분으로 주중이 1시간 가량 많았으며, 유치원의 경우 주중 6시간 19분이었으며, 주말 시간사용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들은 주말보다는 주중에 기관이용을 이용했으며 유치원 보다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표 IV-1-4, 그림 IV-1-4 참조).

〈표 IV-1-4〉 대리양육 이용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대리양육 이용	6:13	84.4	7:22	0:03	1.0	5:09	3:08	42.7	7:20
기관이용	6:12	84.4	7:21	0:03	1.0	5:09	3:07	42.7	7:19
어린이집	5:53	79.2	7:25	0:03	0.8	6:24	2:58	40.0	7:25
유치원	0:19	5.0	6:19	0:00	0.0	0:00	0:09	2.5	6:19
기타시설	0:00	0.6	0:56	0:00	0.2	0:10	0:00	0.4	0:45
양육도우미	0:00	0.2	5:29	0:00	0.0	0:00	0:00	0.1	5:29



[그림 IV-1-4] 주중 및 주말의 대리양육 이용 시간 분포

라. 가정관리 돕기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1일 평균 시간은 1분으로 6.4%의 영유아가 참여했으며 행위에 참여한 영유아들은 평균 26분을 사용하였다. 가정관리 돕기 하위 영역에서 1일 평균 시간은 나타나지 않았고, 행위자 비율은 3% 이하로 나타났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가 30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의류관리 돕기와 청소 및 정리 돕기가 23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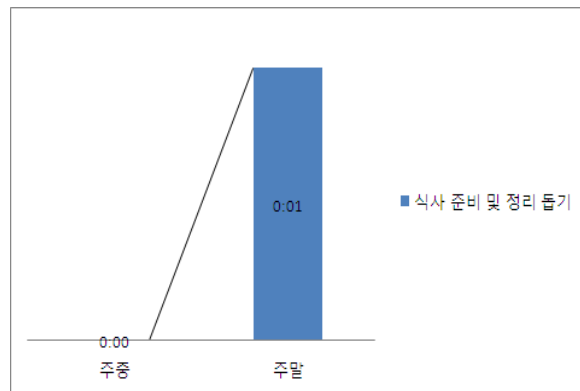
주중과 주말별로 가정관리 돕기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주말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1분을 제외하면 주중과 주말 모두 각 하위 영역의 평균시간 사용

은 없었다.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청소 및 정리 돕기는 주중 2.0% 주말 3.8%로 주말이 약간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과 주말 20분 정도로 차이는 없었다.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의 경우 주중 1.6% 주말 3.6%로 주말에 참여 비율이 2%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25분, 주말 32분으로 주말에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표 IV-1-5, 그림 IV-1-5 참조).

〈표 IV-1-5〉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가정관리 돕기	0:01	4.8	0:22	0:02	8.0	0:28	0:01	6.4	0:26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0:00	1.6	0:25	0:01	3.6	0:32	0:00	2.6	0:30
의류관리 돕기	0:00	0.6	0:23	0:00	0.0	0:00	0:00	0.3	0:23
청소 및 정 리 돕기	0:00	2.0	0:21	0:00	3.8	0:25	0:00	2.9	0:23
기타 가정관 리 돕기	0:00	1.2	0:11	0:00	0.6	0:20	0:00	0.9	0:14



[그림 IV-1-5] 주중 및 주말의 가정관리 돕기 시간 분포

마.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1일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놀이와 미디어 이용 시간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놀이는 2시간 13분, 미디어 이용 행동은 1시간 26분을 사용했다. 1일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유아들은 미디어 이용과 놀이 활동에 각각 95.3%, 90.9% 참여하고 있었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놀이가 2시간 20분으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 이용은 1시간 35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과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의 평균시간은 5분 가량으로 적었고 행위자 비율도 각각 3.7%, 5.7%로 낮았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각 2시간 5분, 1시간 34분으로 시간사용이 많았다.

주중과 주말별로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주중보다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는 놀이에 1시간, 미디어 이용에 40분,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따라가기에 각각 30분을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그 외 나머지 영역에서도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으며,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과 문화 스포츠 관람 행사참여 활동은 주말에만 각각 10분 정도 시간 사용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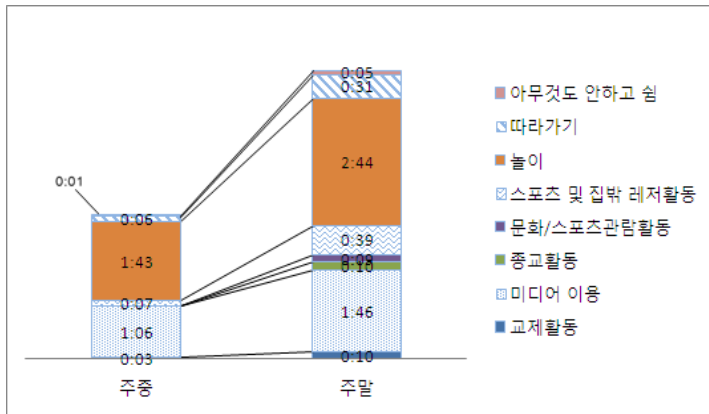
행위자 비율 또한 대체적으로 주중보다 주말이 높았다. 특히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주중 15.8%, 주말 43.6%였으며, 따라가기의 경우 주중 17.2%, 주말 44.2%로 주중과 주말 비율차이가 약 27%~28%로 크게 나타났다. 교제활동 또한 주말에 10% 높았으며,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과 문화/스포츠관람/행사참여 활동은 주중에 행위자 비율이 없거나 1% 미만이었으나 주말에는 각각 10%, 7.4%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미디어 이용과 놀이의 행위자 비율은 87%~97%로 높았고 주중보다 주말 비율이 높았으나 비율차는 약 3%~5%로 큰 차이는 없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이 주중에는 시간사용이 없었으나 주말에는 2시간 5분으로 시간 차이가 매우 컸으며, 놀이와 미디어 이용은 평균시간과 동일하게 놀이 1시간, 미디어 이용 40분의 차이를 보였다. 미디어 이용 중 TV시청에서 주중 1시간 8분, 주말 1시간 42분으로 주중과 주말 시간 차이가 컸다.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과 따라가기에서도 주중보다 주말에 시간사용이 30분 가량 더 많았다(표 IV-1-6, 그림 IV-1-6 참조).

〈표 IV-1-6〉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3:10	100	3:10	6:18	100	6:18	4:44	100	4:44
교제활동	0:03	14.0	0:28	0:10	21.6	0:47	0:07	17.8	0:39
가족과 시간보내기	0:02	10.2	0:25	0:03	11.8	0:29	0:03	11.0	0:27
가족 외 친척과 시간보내기	0:00	1.6	0:21	0:02	6.8	0:42	0:01	4.2	0:38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시간보내기	0:00	1.0	1:14	0:02	3.8	1:07	0:01	2.4	1:08
애완동물과 시간보내기	0:00	1.6	0:18	0:01	2.2	0:56	0:00	1.9	0:40
미디어 이용	1:06	88.6	1:14	1:46	93.2	1:54	1:26	90.9	1:35
tv시청	0:58	84.4	1:08	1:31	89.2	1:42	1:14	86.8	1:26
핸드폰/스마트폰 이용	0:02	9.0	0:30	0:06	12.6	0:49	0:04	10.8	0:41
컴퓨터 이용	0:02	6.2	0:45	0:06	10.2	1:01	0:04	8.2	0:55
CD, TAPE, MP3, 라디오 이용	0:02	8.4	0:31	0:02	8.0	0:33	0:02	8.2	0:32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	0:00	0.4	0:59	0:10	11.0	1:35	0:05	5.7	1:34
문화/스포츠관람/행 사참여 활동	0:00	0.0	0:00	0:09	7.4	2:05	0:04	3.7	2:05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0:07	15.8	0:48	0:39	43.6	1:31	0:23	29.7	1:20
걷기/산책	0:04	11.0	0:42	0:10	17.4	0:57	0:07	14.2	0:51
스포츠 활동	0:01	4.0	0:41	0:06	13.4	0:51	0:04	8.7	0:49
아웃도어 활동	0:01	1.6	1:26	0:23	18.2	2:06	0:12	9.9	2:03
놀이	1:43	94.0	1:49	2:44	96.6	2:50	2:13	95.3	2:20
장난감 가지고 놀기	0:40	65.6	1:01	1:02	81.4	1:16	0:51	73.5	1:09
장난감 없이 놀기	0:12	27.0	0:47	0:19	35.0	0:55	0:16	31.0	0:52
기타 놀이활동	0:06	16.2	0:38	0:12	24.2	0:50	0:09	20.2	0:45
놀이터 이용	0:14	27.8	0:50	0:28	44.2	1:05	0:21	36.0	0:59
예술경험놀이 (미술/음률활동)	0:05	16.6	0:32	0:12	29.2	0:42	0:08	22.9	0:38
책읽기	0:24	65.0	0:37	0:29	63.8	0:45	0:26	64.4	0:41
따라가기	0:06	17.2	0:38	0:31	44.2	1:10	0:18	30.7	1:01
아무것도 안하고 쉽	0:01	8.8	0:22	0:05	15.8	0:34	0:03	12.3	0:3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4	0:25	0:00	1.4	0:45	0:00	0.9	0:41



[그림 IV-1-6] 주중 및 주말의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분포

바. 이동하기

이동하기 영역의 1일 평균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하기 중 따라가기 관련이동이 9분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이 8분, 놀이 관련이동이 6분, 문화 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이 5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이 44.9%였으며, 놀이관련 이동은 39.4%, 따라가기 관련이동이 34.1%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교제활동 관련 이동이 38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종교참여, 관람 및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이 36분, 따라가기 29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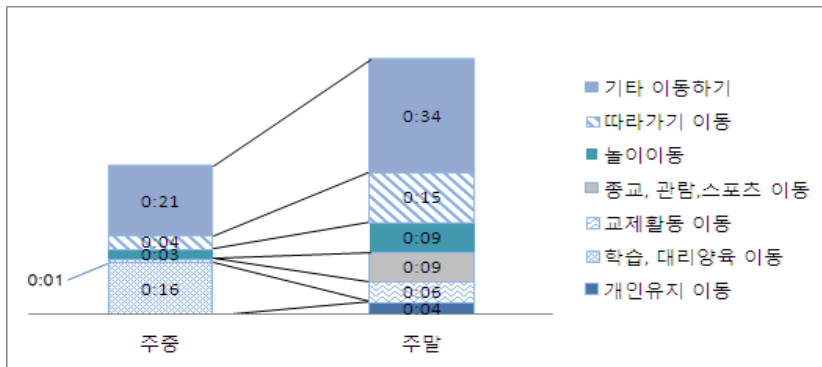
주중과 주말의 이동하기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학습, 대리양육 이용 이동에서 주중 16분, 주말 0분으로 시간사용이 차이가 있었다. 놀이 관련 이동은 주중 3분, 주말 9분이었고, 따라가기 관련 이동은 주중 4분, 주말 15분으로 두 영역 모두 주중보다 주말에 시간이 사용이 많았다.

주중과 주말의 이동하기 영역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주중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이 86.2%로 주말 3.6%보다 더 높았다. 놀이 관련 이동은 주중 27%, 주말 51.8%로 주말에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 시간도 주중 13분 주말 18분으로 5분 더 많았다. 따라가기 관련 이동은 주중 19% 주말 49.2%로 나타나 주말 따라가기 관련 이동에 참여하는 영유아는 연구 대상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가기 관련 이동하기에 참여한 영유아들의 평균 시간은 주중 22분, 주말 31분으로 주말이 10분 가량 높게 나타났다(표 IV-1-7, 그림 IV-1-7 참조).

〈표 IV-1-7〉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이동하기	0:48	98.2	0:49	1:20	96.2	1:23	1:04	97.2	1:06
개인유지 관련이동	0:00	3.8	0:24	0:04	18.0	0:23	0:02	10.9	0:23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0:16	86.2	0:19	0:00	3.6	0:22	0:08	44.9	0:19
교제활동 관련 이동	0:01	5.4	0:20	0:06	13.4	0:45	0:03	9.4	0:38
종교참여, 관람 및 문화 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	0:00	1.6	0:26	0:09	26.8	0:37	0:05	14.2	0:36
놀이 관련 이동	0:03	27.0	0:13	0:09	51.8	0:18	0:06	39.4	0:16
따라가기 관련 이동	0:04	19.0	0:22	0:15	49.2	0:31	0:09	34.1	0:29
기타 이동하기	0:21	97.2	0:21	0:34	93.6	0:36	0:27	95.4	0:28



[그림 IV-1-7] 주중 및 주말의 이동하기 시간 분포

사. 기타행동

기타행동의 시간사용은 1일 평균 0시간으로 나타났고 주중과 주말에도 0시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1일 기타행동은 1.5%로 나타났으며, 기타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는 1일 평균 22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타 행동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은 1.2%, 주말은 1.8%로 나타났고, 행위자 평균시

간은 주중 25분, 주말은 21분으로 나타났다(표 IV-1-8 참조).

〈표 IV-1-8〉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

행동 영역	단위: 시간, 분, %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기타 행동	0:00	1.2	0:25	0:00	1.8	0:21	0:00	1.5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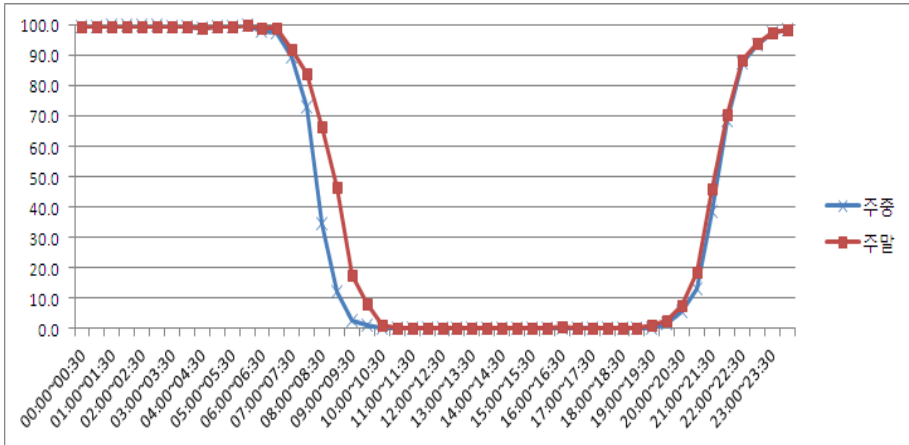
2. 행동영역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주요 행동영역의 시간량에 이어 행동영역의 시간대별로 행위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 교제 및 여가활동의 주요 하위영역에 대한 행위자 비율의 변화추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 개인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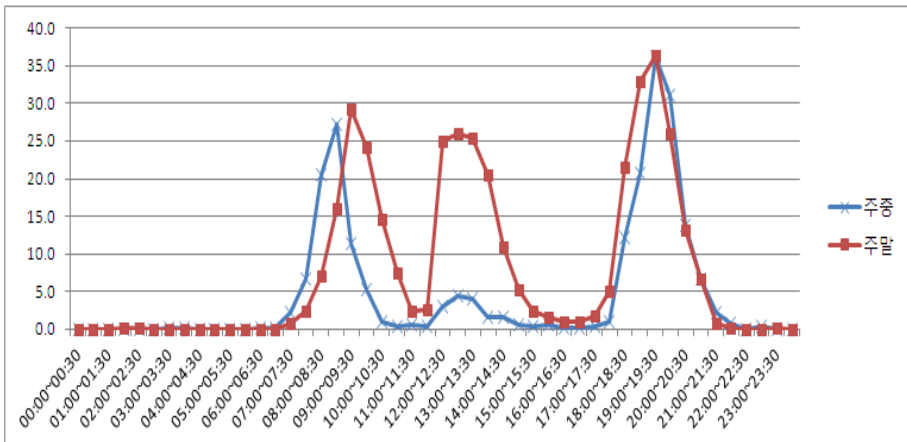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는 수면, 식사, 씻기 등의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 대리양육 이용하기, 이동하기, 학습 순으로 시간을 사용했다. 주중과 주말의 시간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 가정관리 돕기,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하기 행동은 주말에 시간 사용이 많았으나 학습과 대리양육 이용하기는 주중에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개인유지 시간의 하위영역 중 수면의 경우, 영유아는 주중보다 주말에 수면 중 밤잠에 1시간 더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영유아는 주중 11시간 1분, 주말 12시간 35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하고 있었고, 수면 중 밤잠 수면은 주중 10시간 34분, 주말 11시간 12분을 사용했다. 영유아가 밤잠을 취하는 시간대는 21시 30분에서 22시 30분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중과 주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기상시간의 경우 주중에는 8시~9시 사이, 주말에는 9시~10시 사이로 주중이 1시간 가량 빨랐다(그림 IV-2-1 참조).



[그림 IV-2-1] 주중 및 주말 방잠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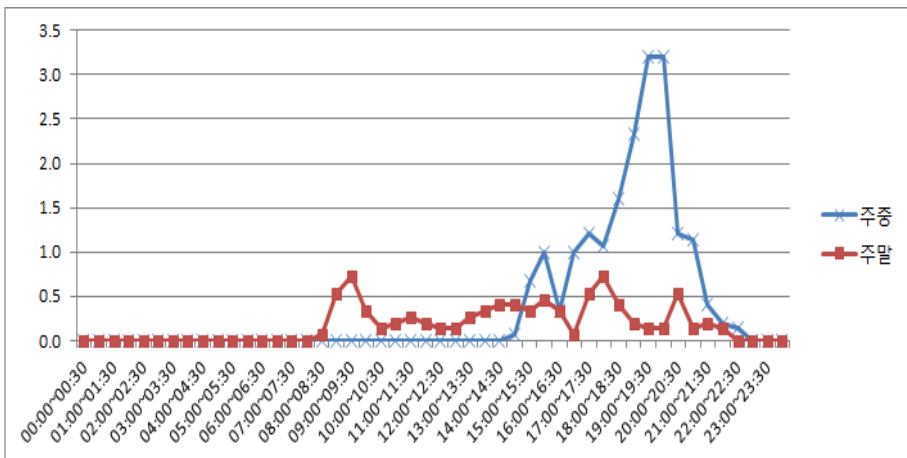
영유아는 식사 및 간식 시간에 주중 1시간 28분, 주말 2시간 27분을 사용하였다. 그 중 식사에 주중 1시간 5분, 주말 1시간 51분을 사용하였다. 영유아가 식사를 하는 시간대는 아침의 경우 주중 오전 8시~9시 사이, 주말 오전 9시~10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점심은 주중과 주말 모두 12~1시 사이에 식사를 하였다. 저녁의 경우 주중 오후 7시~8시, 주말 오후 6시반~7시반으로 주말에 30분 가량 더 빨리 식사가 이루어졌다(그림 IV-2-2 참조).



[그림 IV-2-2] 주중 및 주말 식사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나. 학습

영유아의 학습지 활동을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확인한 결과, 주중 32분과 주중 36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중에는 17.4%의 영유아가, 주말에는 7.0%의 영유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보다는 주중에 영유아의 학습지 활동이 많았으나 시간은 주말이 좀 더 많았다. 한편 학습지 활동을 하는 시간대를 알아본 결과, 주중에는 5시에서 9시까지 저녁시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주말에는 비율은 낮으나 낮 시간부터 저녁시간에 이르러 학습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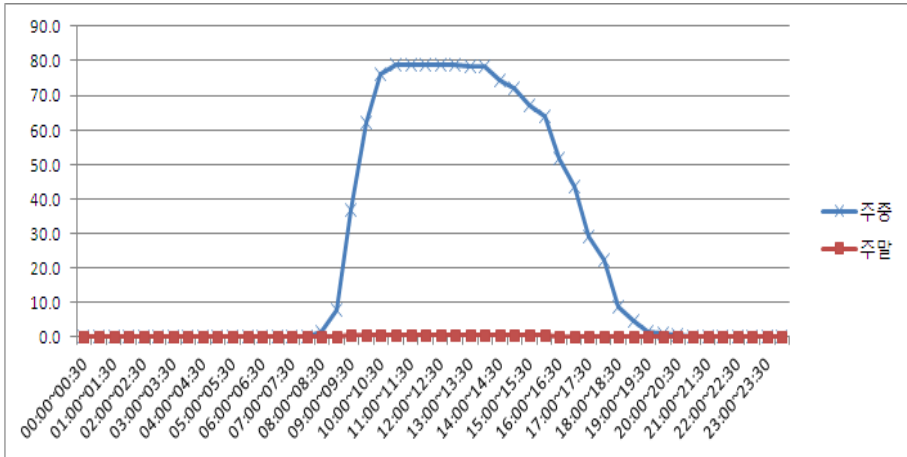


[그림 IV-2-3] 주중 및 주말 학습지활동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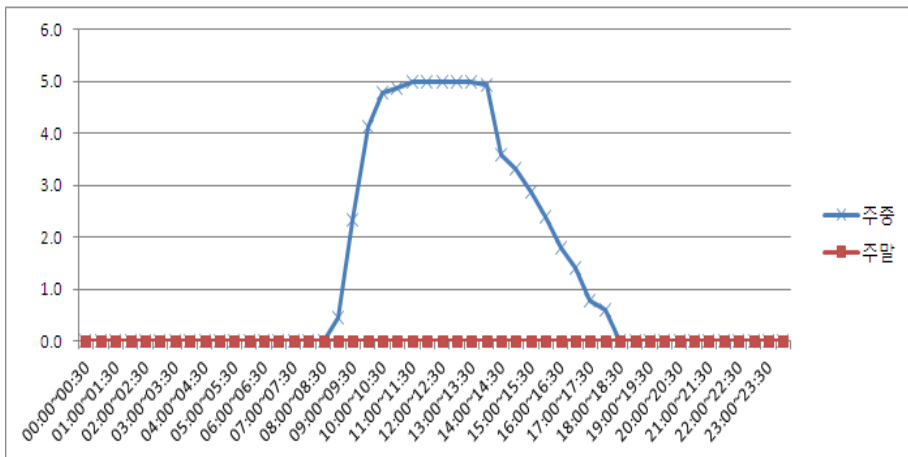
다. 대리양육

주중 기관이용의 경우 전체 영유아의 84.4%가 기관을 이용하였고, 그중 어린이집이 79.2%, 유치원이 5%로 어린이집 이용이 더 높았다. 주중 기관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하루 평균 7시간 25분을 기관에서 보냈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하루 평균 6시간 19분의 시간을 사용하여 유치원 보다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주말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전체의 0.8%로 이용율이 매우 낮았으며, 유치원은 이용율이 없었다. 주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기관이용 평균시간은 6시간 24분으로

평일 보다는 1시간 가량 짧았다.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주중에는 오전 8시부터 8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여 저녁 7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말에는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는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등원하여 5시에서 5시 30분 사이 귀가하고 있었다(그림 IV-2-4, 그림 IV-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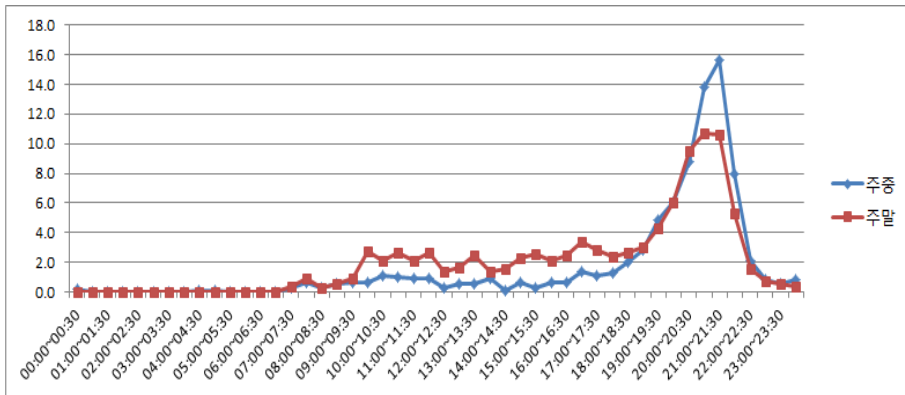
[그림 IV-2-4] 주중 및 주말 어린이집 이용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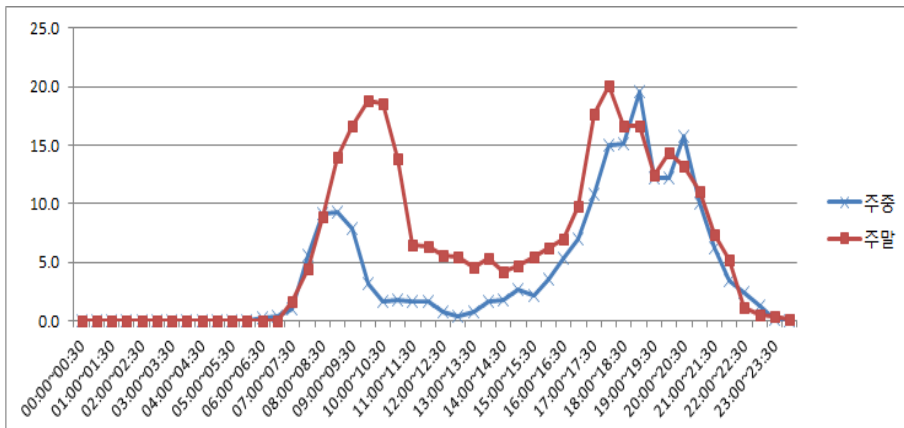
[그림 IV-2-5] 주중 및 주말 유치원 이용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라. 교제 및 여가 활동

영유아의 책읽기 시간은 주중 37분, 주말 45분으로 주중과 주말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위자 비율도 주중 65%, 주말 63.8%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 주중에는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13.8%~15.7% 정도가 책을 읽고 있었으며, 주말에는 같은 시간대에 10.6%~10.7% 정도가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주말보다는 주중에 책읽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저녁 시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그림 IV-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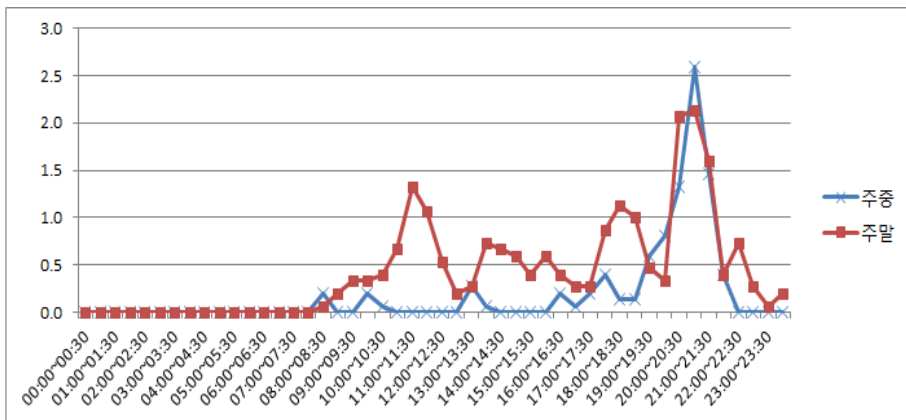
[그림 IV-2-6] 주중 및 주말 책읽기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그림 IV-2-7] 주중 및 주말 TV시청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중 TV시청에서 주중 1시간 8분, 주말 1시간 42분으로 주중과 주말 시간 차이가 컸으며 행위자 비율은 주중 84.4%, 주말 89.2%로 나타났다. 주중에는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10%~19.6%가 TV시청을 하고 있으며 6시 30분에서 7시까지 가장 많은 영유아들이 TV시청을 하고 있었다. 한편 주말의 TV시청을 살펴 보면, 오전과 저녁 시간대의 시청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오전에는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14%~19% 시청을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좀 더 이른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TV시청을 하고 있었다(그림 IV-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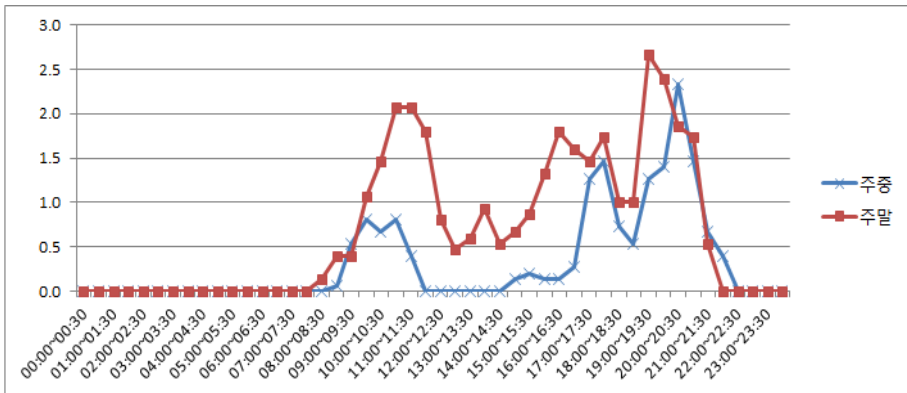
한편 영유아의 모바일폰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주중에는 9%의 영유아가 30분을, 주말에는 12.6%의 영유아가 4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하는 영유아의 경우는 30분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주중에는 오후 8시부터 9시 30분 정도에 1% 이상이 사용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전반적으로 주중보다는 여러 시간대에 걸쳐 사용하고 있었는데, 두드러진 시간대는 오전 11시에서 12시, 6시에서 7시, 8시에서 9시 30분까지였다(그림 IV-2-8 참조).



[그림 IV-2-8] 주중 및 주말 모바일폰 이용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영유아들의 걷기/산책 시간을 알아본 결과, 주중에는 42분, 주말에는 57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11%, 주말에는 17.4%가 참여하고 있었다. 걷기/산책 비율은 높지 않으나 평균시간은 51분 정도하고 있었다. 한편 활동영역별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주중에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0.5%~0.8%가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 오후 5시~7시 사이에 0.5%~1.5%, 오후 7시에서 9시 30분 사이는 0.7%~2.3% 정도가 걷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한편 주말에는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0.8%~2.1%, 오후 3시 30분에서 9시까지 1.0%~2.7%가 참여하고 있었다(그림 IV-2-9 참조).



[그림 IV-2-9] 주중 및 주말 걷기/산책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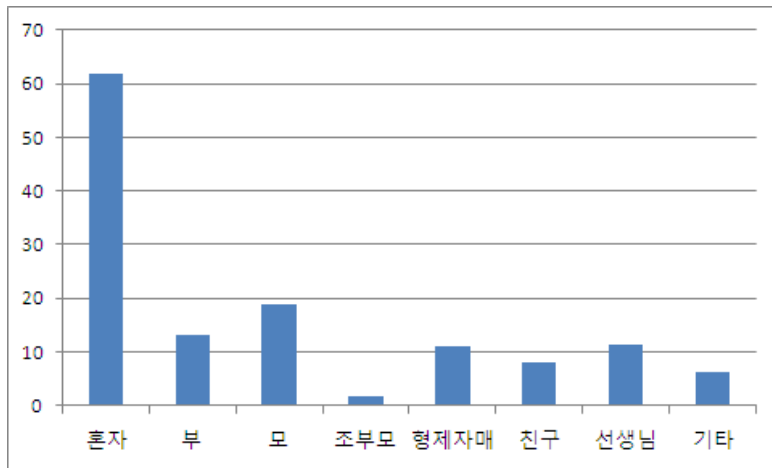
3. 행동영역별 공유자

대상자별 공유시간의 일반적 경향은 <표 IV-3-1>과 같다. 영유아가 공유자 없이 혼자 보내는 비율은 61.9%로 나타났다. 공유대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대상은 어머니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그 다음 아버지는 13.1%를 차지했고 선생님이 11.5%, 형제 자매가 11.1%를 차지했다.

<표 IV-3-1> 공유자의 일반적 경향

단위: %

행동 영역	혼자	공유대상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전체	61.9	13.1	18.9	1.7	11.1	8.1	11.5	6.2



[그림 IV-3-1] 공유시간의 일반적 경향

가. 개인유지

개인유지의 공유자를 살펴보면 <표 IV-3-2>와 같다. 먼저 영유아의 수면시간은 거의 혼자 보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활동에 대한 공유대상을 알아보았다. 영유아가 공유대상 없이 혼자 보낼 경우, 수면 전후의 시간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일상활동 30.6%, 치료시간과 훈육받기의 시간이 25%, 간식 19.9%, 위로받기 등의 시간이 16.7%였다.

영유아들이 개인유지의 세부항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경우를 살펴보면, 영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형제자매 순이었으며, 식사の場合は 어머니가 95%, 아버지는 67.7%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수면 전후 행동, 식사, 간식, 개인 위생, 병원 등에 함께 하고 있었고 행위자 비율은 17.9%~42.9% 정도였다. 한편 조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식사, 간식, 병원, 위로받기 등으로 나타났고, 행위자 비율은 10%~15% 정도였다. 영유아의 행동이 공유대상을 볼 때, 많은 시간이 가족내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순으로 함께 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 대상자별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

단위: %

행동영역	공유대상							
	혼자	공유대상						
	행위자 비율	부 행위자 비율	모 행위자 비율	조부모 행위자 비율	형제자매 행위자 비율	친구 행위자 비율	선생님 행위자 비율	기타 행위자 비율
수면 전·후 관련 행동	43.1	22.2	42.5	-	23.4	-	-	-
식사	1.4	67.7	95.0	10.0	42.9	1.4	0.4	5.2
간식	19.9	38.0	63.4	10.6	33.9	1.9	0.2	3.6
개인위생	11.4	20.1	65.6	2.1	17.9	0.0	0.0	0.4
외모관리	10.1	13.5	74.6	1.7	9.0	0.3	-	0.4
병원	-	32.5	81.3	10.0	23.8	-	-	8.8
자가치료	25.0	-	75.0	-	-	-	-	-
상담치료	-	-	-	-	-	-	100.0	-
위로받기	16.7	25.0	50.0	15.0	1.7	-	-	3.3
훈육받기	25.0	37.5	37.5	-	-	12.5	-	12.5
기타일상활동	30.6	8.2	57.1	4.1	2.0	-	-	-

나. 학습

대상자별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는 다음의 <표 IV-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원/기관 과제 활동은 혼자 25%, 어머니 65%, 형제자매 35%로 나타나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습지 활동은 어머니 46.5%, 선생님 42.1%, 혼자 5.3%로 스스로 하기 보다는 어머니 또는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

〈표 IV-3-3〉 대상자별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

단위: %

행동영역	공유대상							
	혼자	공유대상						
	행위자 비율	부 행위자 비율	모 행위자 비율	조부모 행위자 비율	형제자매 행위자 비율	친구 행위자 비율	선생님 행위자 비율	기타 행위자 비율
학원/기관 과제활동	25	-	65	-	35	-	-	-
학습지 활동	5.3	3.8	46.5	1.2	19.3	0.9	42.1	-
온라인 학습	90.9	-	9.1	-	9.1	-	-	-
특기적성활동	0.6	-	4.2	-	12.7	32.7	87.9	23
교구이용학습	32.4	33.8	39.4	-	18.3	-	5.6	-
기타 학습활동	7.6	16.4	71.6	3.2	18.4	10	18.8	5.6

한편, 온라인 학습의 경우 혼자 90.9%로 나타나 컴퓨터와 같은 온라인 학습은 대부분 영유아 혼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구이용 학습의 경우 혼자 32.4%, 아버지 33.8%, 어머니 39.4%로 다른 학습유형에 비해 아버지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다. 대리양육 이용하기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경우 공유시간을 살펴보면, 혼자 보내는 경우는 0.2%로 적었고, 친구와 선생님, 기타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9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와 기타 순이었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는 선생님이 100.0%, 그 다음은 친구 64.9%, 기타 54.9%의 순이었다.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친구와 선생님이 100.0%였고, 그 외 어머니 35.7%와 형제자매 28.6%였다. 대리양육 이용하기는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선생님과 공유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친구와 기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3-4〉 대상자별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

단위: %

행동영역	혼자		공유대상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어린이집	0.2	-	0.3	-	4.5	62.9	99.5	43.8	
유치원	-	-	3.5	-	-	64.9	100.0	54.9	
기타 시설	-	-	35.7	-	28.6	100.0	100.0	-	
양육도우미	-	-	-	-	-	-	-	100.0	

라.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의 대상자별 공유자를 살펴보면 <표 IV-3-5>와 같다. 먼저 영유아가 공유대상 없이 혼자 보낼 경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보내는 영유아가 가장 많았으며 60.9%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쉽이 59.3%, 컴퓨터 이용이 49.9%, CD, TAPE, MP3, 라디오 이용이 35.0%, tv시청이 28.5%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혼자 있을 때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CD, TAPE, MP3, 라디오 이용 등의 미디어를 하면서 보

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경우를 살펴보면, 교제활동을 할 때, 영유아들은 가족, 특히 주로 부모들과 보내고 있었다. 행위자 비율이 아버지는 52.6%, 어머니는 53.3%로 나타났다. 친척과 시간을 보낼 때는 주로 조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위자 비율은 62.6%였다.

〈표 IV-3-5〉 대상자별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공유

단위: %

행동영역	혼자	공유대상						
	행위자 비율	부 행위자 비율	모 행위자 비율	조부모 행위자 비율	형제자매 행위자 비율	친구 행위자 비율	선생님 행위자 비율	기타 행위자 비율
가족과시간보냄	4.2	52.6	53.3	8.8	30.9	0.4	-	6.0
친척과시간보냄	1.4	31.7	33.1	62.6	34.5	-	-	36.7
그 외 사람들과 교제	-	11.3	26.2	7.8	7.8	75.2	4.3	39.7
애완동물과시간 보내기	16.4	28.4	29.9	31.3	20.9	-	-	16.4
tv시청	28.5	32.2	36.1	3.7	38.6	0.4	-	1.7
핸드폰/스마트폰 이용	60.9	12.8	13.6	-	21.3	0.5	-	0.5
컴퓨터 이용	49.9	24.0	9.4	-	25.3	1.6	-	1.3
CD,TAPE MP3, 라디오 이용	35.0	26.9	43.5	-	16.1	-	-	1.8
종교활동참여	1.8	55.2	65.0	4.5	35.4	41.0	40.1	18.3
문화/스포츠관람/ 행사참여 활동	1.6	95.6	93.0	5.2	63.1	2.9	-	4.9
걷기/산책	-	61.7	73.6	9.9	40.1	6.0	-	4.4
스포츠활동	5.9	51.3	40.8	7.4	43.9	12.5	0.8	5.4
아웃도어활동	3.7	75.1	80.3	4.8	37.9	12.2	-	13.8
장난감가지고 놀기	31.1	22.4	18.4	2.3	34.5	4.1	0.3	2.5
장난감없이놀기	16.9	42.9	16.9	5.1	33.6	3.4	0.1	6.0
기타놀이활동	28.1	24.4	31.2	2.8	35.2	5.6	0.3	4.0
놀이터이용	1.4	38.4	54.9	7.1	43.6	26.2	0.8	8.4
예술경험놀이	17.8	20.5	37.6	3.0	43.7	1.8	0.4	3.8
책읽기	12.3	30.9	49.1	1.6	25.9	0.7	-	0.5
따라가기	-	72.5	94.3	6.9	39.0	0.8	-	5.6
아무것도안하고 쉬	59.3	28.1	31.5	1.6	10.7	-	-	0.9

미디어 이용을 할 때를 살펴보면, TV의 경우는 형제자매와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순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행위자 비율은 38.6%, 어머니는 36.1%, 아버지는 32.2%로 나타났다. 혼자서 보는 경우도 28.5%로 높았으며, 친구와 보는 경우는 0.4%로 거의 없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혼자서 이용할 때가 가장 많았는데 60.9%였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주로 형제자매, 부모와 함께 하고 있었으며, 행위자 비율은 형제자매 21.3%, 어머니 13.6%, 아버지 12.8% 순이었다. 또한, 영유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핸드폰을 이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는 경우가 4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함께 컴퓨터를 할 때는 형제자매, 아버지와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각각 25.3%, 24.0%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에 참여할 때는 부모와 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행위자 비율은 아버지가 55.2%, 어머니가 65.0%로 나타났다. 선생님, 친구, 형제자매와 참여하는 경우도 모두 3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의 경우는 주로 부모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고, 행위자 비율은 아버지가 95.6%, 어머니가 93.0%였다.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와 보내는 경우가 63.1%로 나타났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1.6%로 가장 낮았다. 아웃도어 활동의 경우,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은 어머니 80.3%, 아버지 75.1%, 형제자매가 37.9%로 나타났다.

영유아들이 놀이를 하는 경우는, 장난감의 유무에 따라 함께 하는 사람이 달라졌다.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형제자매, 혼자, 아버지 순으로 나타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을 때는 아버지, 형제와 자매, 어머니나 혼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행위자 비율을 보면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형제자매 34.5%, 혼자 31.1%, 아버지 22.4%로 나타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을 때는 아버지 42.9%, 형제자매 33.6%, 어머니와 혼자는 16.9%였다. 영유아들이 놀이터에서 놀이할 때는 주로 어머니와 형제자매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행위자 비율은 어머니 54.9%, 형제자매 43.6%였다. 책을 읽을 때는 주로 부모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는 49.1%, 아버지는 30.9%이었다.

영유아들이 어른들을 따라서 갈 때, 주로 부모와 함께 갔으며, 형제자매를 따라가는 경우도 높았다. 행위자 비율은 어머니 94.3%, 아버지 72.5%, 형제자매 39.0%로 나타났다.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경우는 혼자서 쉬는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쉬는 경우는 어머니가 31.5%, 아버지가 28.1%로 그 다음 순이었다.

4. 요약

영유아의 생활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영유아의 1일 평균 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들은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으며, 1일 평균 시간은 14시간 50분이었다.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관련 행동에 4시간 44분을 사용하였고, 대리양육 이용 3시간 8분, 이동하기 1시간 4분, 학습 10분, 가정관리 돕기 1분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100%로 영유아들은 하루에 한번은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행동을 했으며, 이동하기 행동도 97.2%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이동하기 행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리양육 이용과 학습의 행위자 비율은 각각 42.7%와 23.7%였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대리양육 이용이 7시간 20분, 학습이 44분으로 시간사용이 많았다.

주중과 주말의 생활시간 사용은 대체적으로 각 행동영역별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시간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과 이동하기 등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과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경우는 주중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 주말에는 행위 비율이 매우 낮았다.

또한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면시간은 거의 주중과 주말이 유사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말에 기상시간이 더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식사시간은 주중과 주말의 큰 차이가 없으나 주말 아침은 좀 늦어지고 저녁시간은 약간 빠른 경향을 보였다. 대리양육 시간은 주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율이 7시간 이상 높으나 주말에는 이용율이 거의 없고 책읽기 시간은 저녁 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TV시청 시간은 오전과 저녁 시간에 이용율이 높았으나 모바일폰 이용시간이나 걷기/산책 시간 이용은 매우 낮았다.

한편 대상자별 공유시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영유아가 공유대상 없이 혼자 보내는 비율은 61.9%였다. 공유대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대상은 어머니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고, 그 다음 아버지는 13.1%, 선생님이 11.5%,

형제 자매가 11.1%였다.

개인유지의 대상자별 공유시간의 경우 영유아가 공유대상 없이 혼자 보낼 경우, 수면 전후의 시간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일상활동은 30.5%, 치료 시간과 훈육받기 시간은 25%, 간식은 19.9%, 위로받기 등의 시간이 16.7%이었다. 학습영역의 공유 대상자는 대부분 학습 유형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비중이 높았다. 교구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아버지의 참여도와 유아 혼자 참여하는 정도가 어머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는 달리, 온라인 학습의 경우 유아 혼자 참여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 이용하기는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선생님과의 공유시간이 거의 10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친구와 기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영유아들이 교제활동 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경우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주로 부모와 보내고 있었다. 행위자 비율은 아버지는 52.6%, 어머니는 53.3%로 나타났다. 친척과 시간을 보낼 때는 주로 조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위자 비율은 62.6%였다. 영유아들이 놀이를 할 때를 보면, 장난감 놀이시는 형제나 자매와 함께 하는 경우가 3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혼자서 하는 경우로 31.1%, 아버지와 하는 경우가 22.4%였다. 장난감 없이 놀이를 할 때는 아버지와 하는 경우가 4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형제자매 33.6% 순이었다. 교제활동 중 주로 혼자서 하는 활동으로는 핸드폰/스마트폰 이용이 60.9%, 컴퓨터 이용 49.9%로 나타나 영유아들은 미디어를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서 이용할 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영유아의 연령별 생활시간

본 장에서는 영유아의 생활시간량을 연령에 따라 행동영역별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며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각 연령에 따라 행동영역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행동영역별 생활시간량

가. 개인유지 시간

개인유지에 사용되는 시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가 15시간 36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개인유지에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2세가 14시간 52분이었고, 4세는 14시간 16분으로 가장 낮았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100%로 나타났다. 영유아들의 수면 평균시간은 1세는 12시간 20분, 2세는 11시간 49분, 3세는 11시간 32분, 4세는 11시간 29분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면시간은 감소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100%로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했다. 식사 및 간식시간을 살펴보면, 1세가 평균시간이 2시간 10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는 1시간 49분에서 1시간 58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을 보면 99.6%~100%로 나타났다.

개인관리의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 1시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행위자 비율은 1세 99.2%, 2세 98.5%, 3세와 4세는 100%로 3세와 4세가 가장 높았고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3세와 4세로 갈수록 씻기, 옷갈아 입기,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건강관리, 개인양육 받기, 기타 일상활동의 경우 평균시간은 1분 내외로 전 연령대에서 시간 사용이 많지 않았지만 행위자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건강관리에서는 1세가 3.9%로 행위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세가 3.8%를 보였다. 개인양육받기는 1세 5.9%, 2세 4.1%, 3세 3.0%, 4세 2.5%로 어린 영아일수록 부모에게 안기거나 업히기 등의 위로를 받거나 훈육을 더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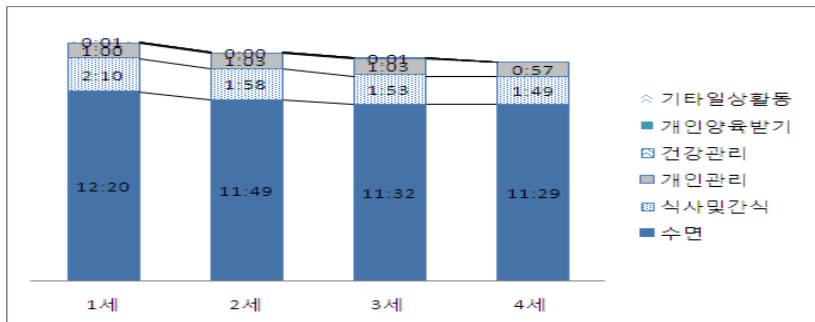
〈표 V-1-1〉 개인유지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1세			2세			3세			4세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 유지	15:36	100	15:36	14:52	100	14:52	14:33	100	14:33	14:16	100	14:16
χ^2	—											
수면	12:20	100	12:20	11:49	100	11:49	11:32	100	11:32	11:29	100	11:29
χ^2	—											
식사 및 간식	2:10	100	2:10	1:58	99.6	1:59	1:53	99.6	1:54	1:49	100	1:49
χ^2	2.00											
개인 관리	1:00	99.2	1:00	1:03	98.5	1:04	1:03	100	1:03	0:57	100.0	0:57
χ^2	6.67**											
건강 관리	0:01	3.9	0:50	0:00	1.9	0:24	0:01	3.8	0:48	0:00	1.2	0:23
χ^2	5.18*											
개인 양육 받기	0:01	5.9	0:20	0:00	4.1	0:19	0:00	3.0	0:24	0:00	2.5	0:18
χ^2	4.45*											
기타 일상 활동	0:01	5.9	0:33	0:00	1.1	0:33	0:00	1.3	0:20	0:00	0.0	0:00
χ^2	28.80***											

주: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1-1] 개인유지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기타 일상활동에서는 1세 5.9%, 2세 1.1%, 3세 1.3%, 4세는 0%로 1세의 경우 개인유지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 행동에 참여율이 더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전체 평균시간보다 많았는데, 건강관리의 경우 23~54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개인양육받기는 18~24분, 기타 일상활동은 0~33분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표 V-1-1, 그림 V-1-1 참조).

나. 학습 시간

학습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사용은 다음의 <표 V-1-2>와 <그림 V-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생활시간 사용은 1일 평균 1세는 4분, 2세는 8분, 3세는 11분, 4세는 18분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학습에 대한 생활시간 사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의 하위영역 중 학습지 활동의 경우 2세부터 시작하여 2세는 2분, 3세는 5분, 4세는 8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기적성 학습은 3세부터 나타나 3세는 1분, 4세는 5분을 사용했다. 반면 교구이용 학습은 1세에서만 1일 평균 1분정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과 온라인 학습은 전 연령에서 시간사용이 0분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연령별 행위자 비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의 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세가 10.9%로 가장 적었고, 4세가 38.8%로 가장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각 하위영역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에서는 1세, 2세, 3세 보다 4세가 2.9%로 약 2% 더 높았고, 학습지 활동에서는 1세가 3.9%로 가장 적었고, 4세가 22.7%로 가장 높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지 활동 참여율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학습의 경우에도 1세와 2세는 행위자 비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3세 0.4%, 4세 1.7%로 1세와 2세 보다는 3세가 그리고 3세보다 4세가 tv나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특기적성 학습 또한 온라인 학습과 마찬가지로 1세와 2세의 0.8%보다 3세가 2.5%로 높았고, 3세보다는 4세가 7.4%로 높아 1세와 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3세와 4세가 특기적성에 관련된 학습에 더 많이 참여했다. 반면 교구이용 학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위자 비율이 더 낮았다. 1세의 경우 3.1%로 행위자 비율이 높았으나 4세의 경우 0%로 행위자 비율이 없었다. 즉, 어린 영아들에게는

학습지 활동이나 온라인 학습, 특기적성 활동 보다 교구를 이용한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학습활동에서는 1세가 3.5%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고 그 다음 3세 8.5%, 2세 10.5%, 4세 11.2% 순으로 나타나 기타 학습활동에서도 4세의 참여율이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은 1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세와 3세는 20분~25분 정도, 4세는 30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학습은 1세, 2세 영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세는 30분, 4세는 1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학습지 활동은 1세 24분, 2세와 3세 33분, 4세는 3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기적성학습의 경우에도 1세 25분, 2세 50분에 이르며, 3세와 4세는 1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구이용 학습은 행위자의 연령이 어릴 수록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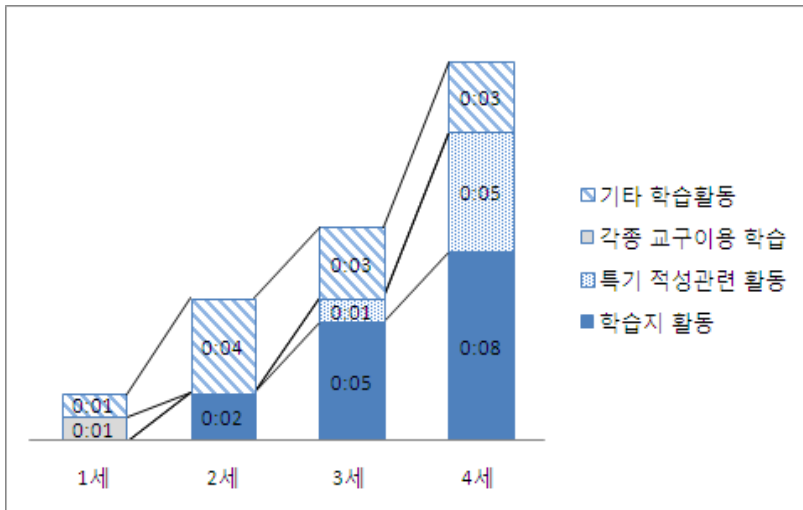
〈표 V-1-2〉 학습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1세			2세			3세			4세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학습	0:04	10.9	0:37	0:08	19.5	0:43	0:11	26.7	0:41	0:18	38.8	0:48
χ^2	57.45***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	0:00	0.0	0:00	0:00	0.8	0:25	0:00	0.4	0:20	0:00	2.9	0:30
χ^2	12.30**											
학습지 활동	0:00	3.9	0:24	0:02	7.5	0:33	0:05	15.7	0:33	0:08	22.7	0:35
χ^2	49.58***											
온라인 학습	0:00	0.0	0:00	0:00	0.0	0:00	0:00	0.4	0:30	0:00	1.7	1:00
χ^2	9.12**											
특기 적성 학습	0:00	0.8	0:25	0:00	0.8	0:50	0:01	2.5	1:13	0:05	7.4	1:16
χ^2	27.12***											
교구 이용학습	0:01	3.1	0:52	0:00	2.3	0:43	0:00	1.7	0:40	0:00	0.0	0:00
χ^2	7.31**											
기타 학습활동	0:01	3.5	0:36	0:04	10.5	0:42	0:03	8.5	0:36	0:03	11.2	0:28
χ^2	11.89**											

주: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 $p < .01$, *** $p < .001$



[그림 V-1-2] 학습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다. 대리양육 이용 시간

대리양육 이용하기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사용은 <표 V-1-3>과 <그림 V-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리양육 이용은 4세가 3시간 40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 3세가 3시간 28분, 2세가 3시간 11분이었고, 1세는 2시간 15분으로 가장 적었다. 각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들이 기관이용을 하는 1일 평균시간은 4세가 3시간 40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1세가 2시간 13분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양육도우미와 함께 보내는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1세가 평균 1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연령에서는 양육도우미와 보내는 시간이 없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에 대한 연령별 행위자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대리양육 이용과 각 하위영역 모두 행위자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먼저 대리양육을 이용한 행위자 비율은 1세 32%, 2세 41.7%, 3세 47.9%, 4세 5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리양육 이용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하위영역인 기관이용의 행위자 비율의 경우도 대리양육 이용의 행위자 비율과 동일하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양육도우미의 경우 2세, 3세, 4세는 행위자 비율이 0%로 나타났으나 1세의 경우 0.4%로 나타나 1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양육도우미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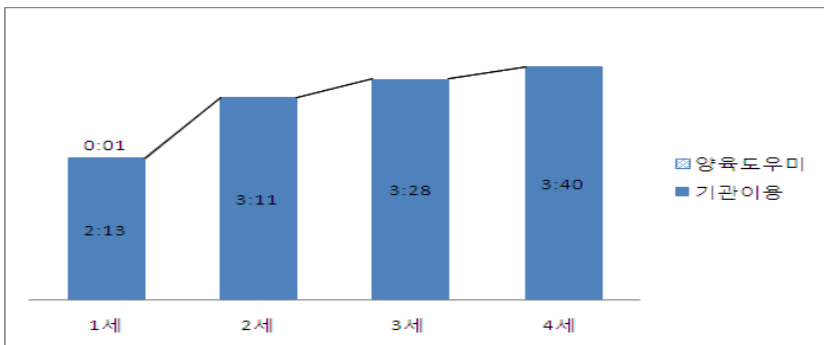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대리양육 이용은 2세가 7시간 39분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4세가 7시간 20분, 3세가 7시간 15분이었고, 1세가 7시간 2분이었으며, 기관이용 행위자 평균시간은 1세가 6시간 58분이었고 나머지 연령은 대리양육 이용 평균시간과 동일했다. 즉 영유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대략 7시간 이상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양육도우미의 경우 1세가 5시간 29분이었고, 2~4세 모두 0분이었다. 즉 양육도우미의 경우 1세만 이용하고 있었으며, 양육도우미와 함께 하는 영유아의 수는 작지만, 참여하는 영유아의 평균 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대리양육 이용하기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1세			2세			3세			4세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대리양육 이용	2:15	32.0	7:02	3:11	41.7	7:39	3:28	47.9	7:15	3:40	50.0	7:20	
χ^2	19.87***												
기관이용	2:13	32.0	6:58	3:11	41.7	7:39	3:28	47.9	7:15	3:40	50.0	7:20	
χ^2	19.87***												
양육도우미	0:01	0.4	5:29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χ^2	2.91*												

주: χ^2 의 값은 사용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 $p < .05$, *** $p < .001$



[그림 V-1-3] 대리양육 이용하기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라.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연령별 시간은 <표 V-1-4>와 <그림 V-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1세가 하루 평균 5시간 3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세와 3세가 4시간 41분과 4시간 40분으로 비슷했다. 4세의 경우 평균 4시간 30분으로 연령 중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적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100%로 전체 영유아가 참여하였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1일 평균시간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제활동에서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미디어 이용은 4세가 1시간 30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1세가 1시간 21분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 활동 참여에서는 미디어 이용과 마찬가지로 4세가 8분으로 가장 시간사용이 많았고,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의 경우 3세와 4세가 6분으로 동일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1세가 27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4세가 26분으로 그 다음이었다. 놀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세의 경우 2시간 27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4세는 1시간 49분으로 가장 적었다. 따라가기의 경우에는 1세, 3세, 4세 모두 19분으로 나타났으며, 2세의 경우 17분으로 다소 적었고,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경우 3분~4분 정도로 연령별로 시간사용의 차가 크지 않았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하위 영역별로 연령에 따라 행위자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미디어 이용과 종교활동 참여,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놀이, 기타 여가관련 행동에서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미디어 이용의 경우 행위자 비율은 2세 95.1%, 3세 91.9%, 4세 90.9%, 1세 85.5%로 2세가 3세와 4세보다 tv시청이나 핸드폰, 컴퓨터 이용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종교활동 참여에서는 4세가 7.9%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고,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는 1세가 1.6%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2세 3.0% 3세 5.1%, 4세 5.4%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관람 및 문화행사에 참여율이 더 높았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1세가 35.5%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고 그 다음 4세, 2세, 3세 순이었다. 놀이의 경우 1세의 행위자 비율이 97.7%로 가장 높았고, 4세가 91.7%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기타 여가관련 행동에서는 2세가 행위자 비율 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1세, 4세 순이었고 3세의 경우 행위자 비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교제활동의 경우 1세, 2세, 4세의 경우는 38분, 3세의 경우 43

분을 사용했고, 미디어 이용과 놀이는 모든 연령에서 1일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 시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종교활동과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따라가기의 경우는 행위자 평균시간이 1일 평균시간 보다 월등히 많았다.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27분~32분으로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타 여가관련 행동은 4세가 1시간 5분으로 가장 많았고, 3세는 시간사용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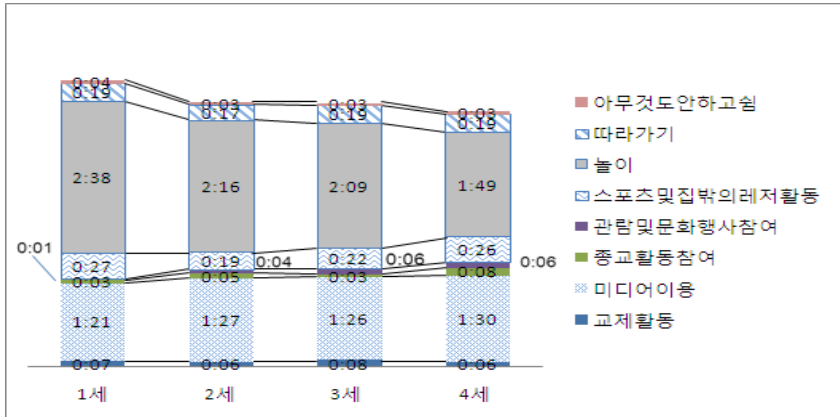
〈표 V-1-4〉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1세		2세		3세		4세					
	평균 행위자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행위자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행위자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행위자 시간	행위자 비율				
교제 및 여가활동	5:03	100	5:03	4:41	100	4:41	4:40	100	4:40	4:30	100	4:30
χ^2	-											
교제활동	0:07	18.4	0:38	0:06	16.5	0:38	0:08	19.9	0:43	0:06	16.5	0:38
χ^2	1.33											
미디어이용	1:21	85.5	1:34	1:27	95.1	1:32	1:26	91.9	1:33	1:30	90.9	1:39
χ^2	14.89**											
종교활동 참여	0:03	4.3	1:30	0:05	6.4	1:28	0:03	4.2	1:21	0:08	7.9	1:49
χ^2	4.20*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0:01	1.6	1:52	0:04	3.0	2:30	0:06	5.1	2:06	0:06	5.4	1:52
χ^2	6.81**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27	35.5	1:16	0:19	27.4	1:10	0:22	25.0	1:30	0:26	30.6	1:27
χ^2	7.43**											
놀이	2:38	97.7	2:42	2:16	95.1	2:23	2:09	96.6	2:14	1:49	91.7	1:59
χ^2	10.96**											
따라가기	0:19	33.6	0:57	0:17	28.6	1:01	0:19	29.7	1:06	0:19	31.0	1:02
χ^2	1.70											
아무것도 안하고 쉬	0:04	13.7	0:32	0:03	10.5	0:31	0:03	14.0	0:27	0:03	11.2	0:28
χ^2	2.14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1.2	0:26	0:00	1.5	0:40	0:00	0.0	0:00	0:00	0.8	1:05
χ^2	3.46*											

주: χ^2 의 값은 사용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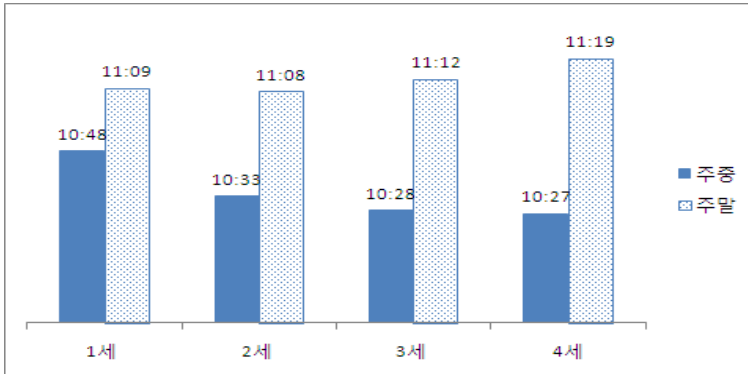
[그림 V-1-4]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

2. 행동영역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연령별 주요 행동영역의 시간량에 이어 행동영역의 시간대별로 행위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 교제 및 여가활동의 주요 하위 영역에 대한 연령별 행위자 비율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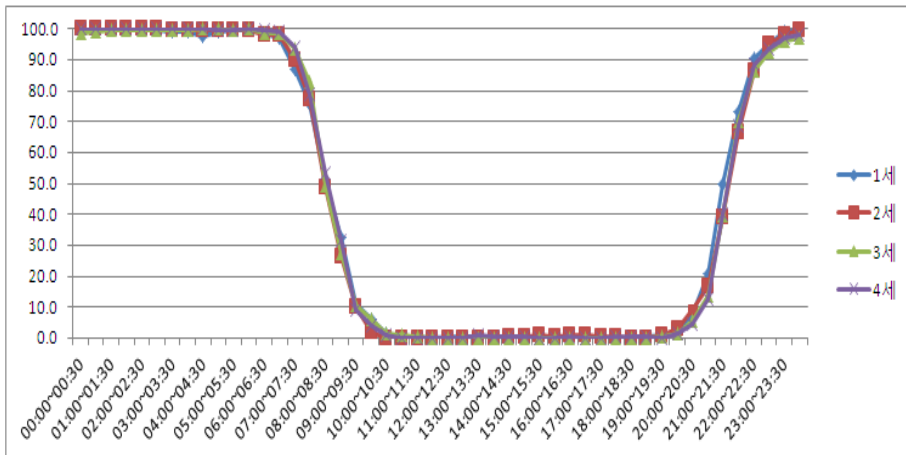
가. 개인유지

연령에 따라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체 수면시간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하여 영유아들의 수면 평균시간은 1세 12시간 20분, 2세 11시간 49분, 3세 11시간 32분, 4세 11시간 29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밤잠 수면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우선 주중 밤잠시간은 1세 10시간 48분, 2세 10시간 33분, 3세 10시간 28분, 4세 10시간 27분이었다. 주말 밤잠시간은 1세 11시간 9분, 2세 11시간 8분, 3세 11시간 12분, 4세 11시간 19분이었다. 밤잠 수면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주중과 주말 모두 연령에 따라 시간사용의 차이가 없어 어린 영아일수록 밤잠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V-2-1 참조).



[그림 V-2-1] 연령별 주중과 주말 밤잠시간

연령별로 밤잠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연령별로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V-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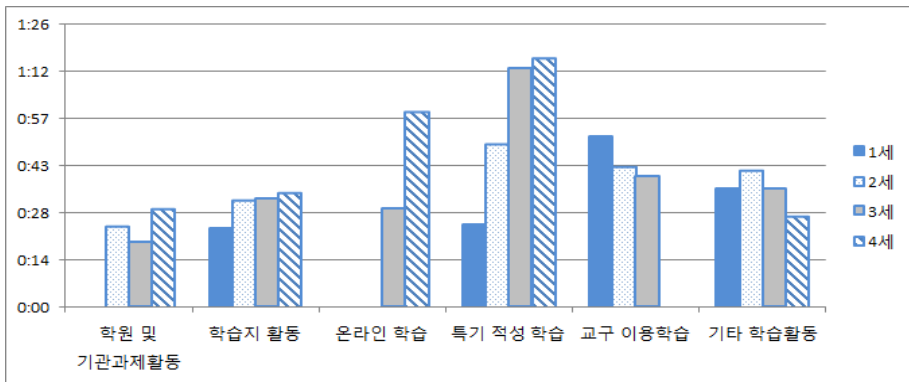
[그림 V-2-2] 연령별 밤잠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나.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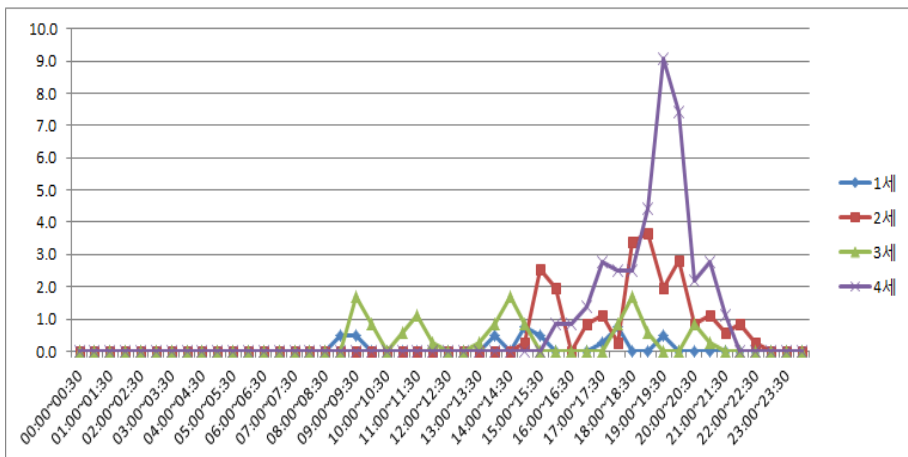
학습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지 활동은 2세부터 시작하였고 교구이용 학습은 만 4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에 참여한 행위자 비율은 낮았지만 행위자 평균 시간사용은 학습지 활동은 24분~35분, 특기적성학습 25분~1시간 16분으로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학습지 활동의 시간의 경우는 1세 24분, 2세 33분, 3세 33분, 4세 35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각 연령대의 행위자의 비율은 3.9%, 7.5%, 15.7%, 22.7%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나 4세의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고 4세는 전체의 약 23%가 학습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오후 늦게부터 저녁시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저녁에는 6시부터 8시 정도에 많이 학습지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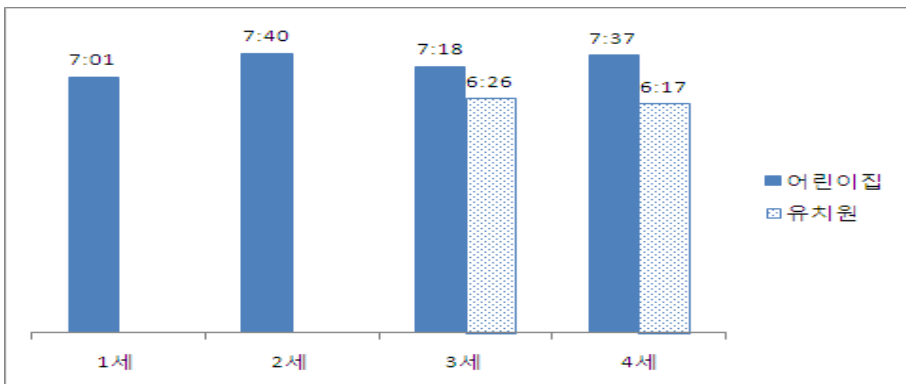
[그림 V-2-3] 연령별 학습시간의 행위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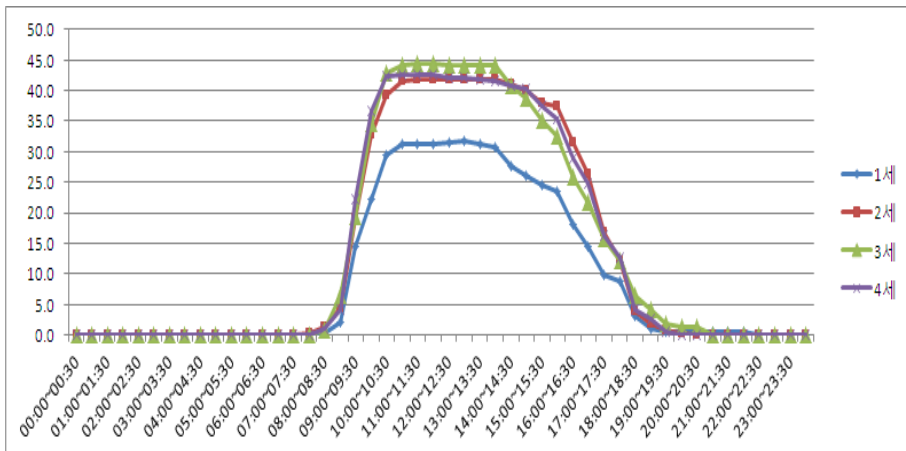
[그림 V-2-4] 연령별 학습지활동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다. 대리양육

주중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1세 32%, 2세 41.7%, 3세 47.9%, 4세 50%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리양육이용 중 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은 1세 0.4%, 2세 82.0%, 3세 89.0%, 4세 84.3%로 평균이용시간은 1세 7시간 1분, 2세 7시간 40분, 3세 7시간 18분, 4세 7시간 37분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50~80%의 영유아들이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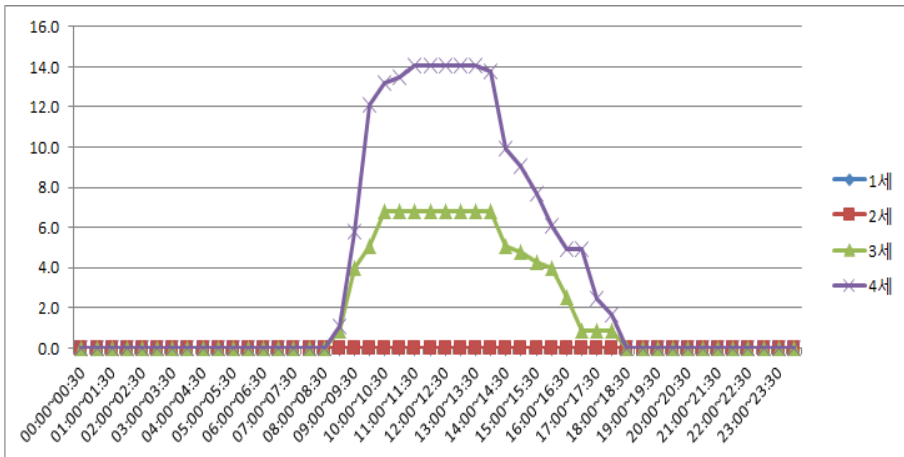


[그림 V-2-5] 연령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행위자 평균시간



[그림 V-2-6]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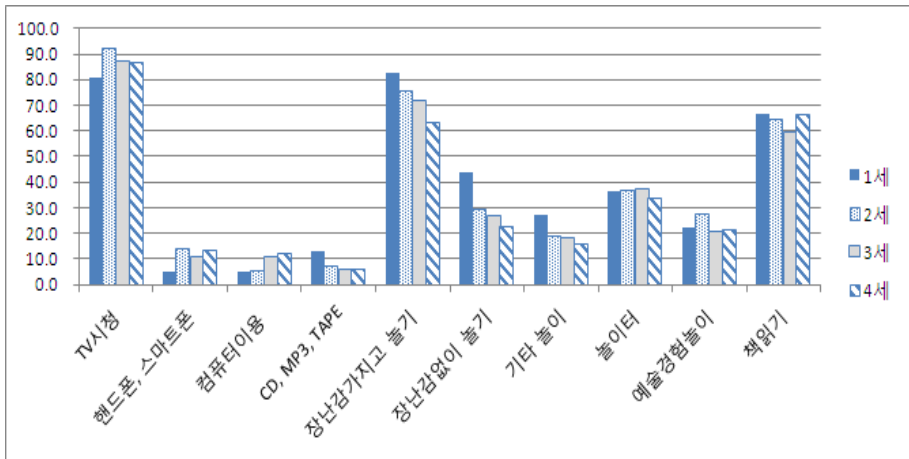
유치원의 이용비율은 1세와 2세는 0%, 3세 6.8%, 4세 14%로 어린이집보다 이용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 연령별 유치원 이용시간은 차이를 보였는데, 1세와 2세에는 이용율이 거의 없었으나, 3세 6시간 26분, 4세 6시간 17분이 평균이용시간이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6~14%의 영유아들이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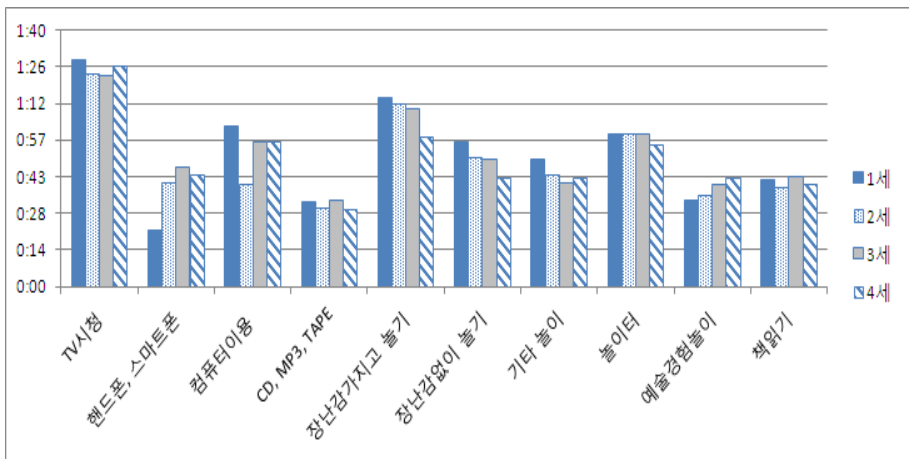
[그림 V-2-7] 연령별 유치원 이용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라.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하위영역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동은 미디어 이용과 놀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디어 이용 중 TV시청의 경우 1세 80.9%, 2세 92.1%, 3세 87.3%, 4세 86.8%로 모든 연령에서 80%이상 TV를 시청했고, 특히 만 2세의 경우 90% 이상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시청하는 영유아들의 평균 시간은 1세 1시간 29분, 2세 1시간 24분, 3세 1시간 23분, 4세 1시간 27분으로 영유아들은 하루 중 1시간 30분 가량을 TV시청에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는 1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TV시청에 참여하는 비율이 놀이에 참여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TV를 시청하는 영유아들의 평균 TV시청 시간은 연령과 상관없이 놀이의 하위영역 평균시간 보다 많았다(그림 V-2-8, 그림 V-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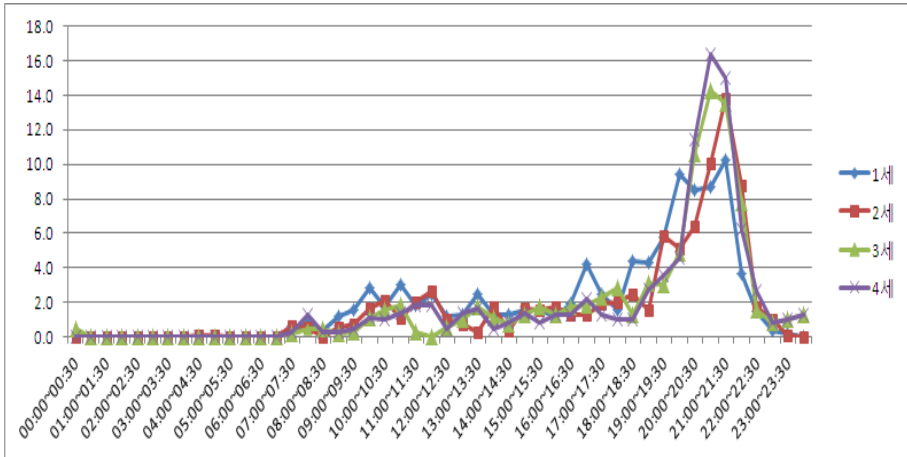


[그림 V-2-8] 연령별 미디어 이용과 놀이의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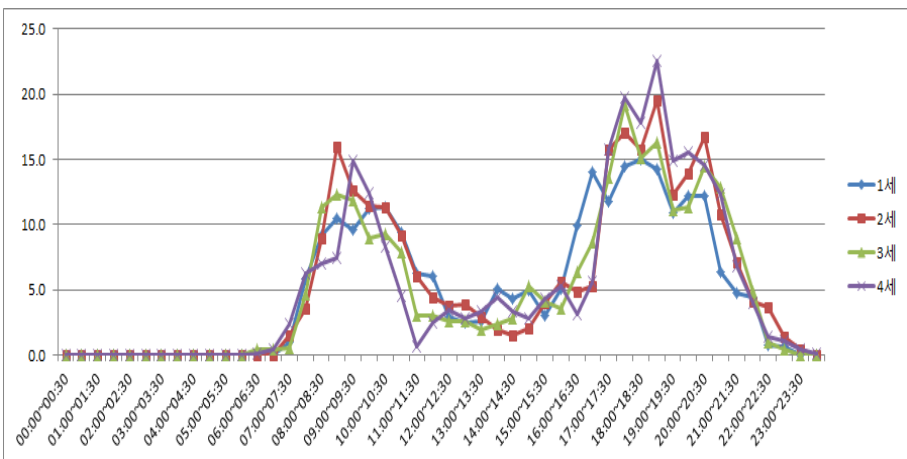


[그림 V-2-9] 연령별 미디어 이용과 놀이의 행위자 평균 시간

영유아의 놀이 영역 중 일부인 책읽기의 경우 1세 42분, 2세 39분, 3세 43분, 4세 40분을 사용하고, 행위자 비율은 66.4%, 64.7%, 59.7%, 66.5%로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읽기 시간의 시간대별 비율은 이보다 낮은 0%~16% 정도의 비율을 보였는데, 책읽기 시간은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잠자기 전에 부모가 읽어주는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V-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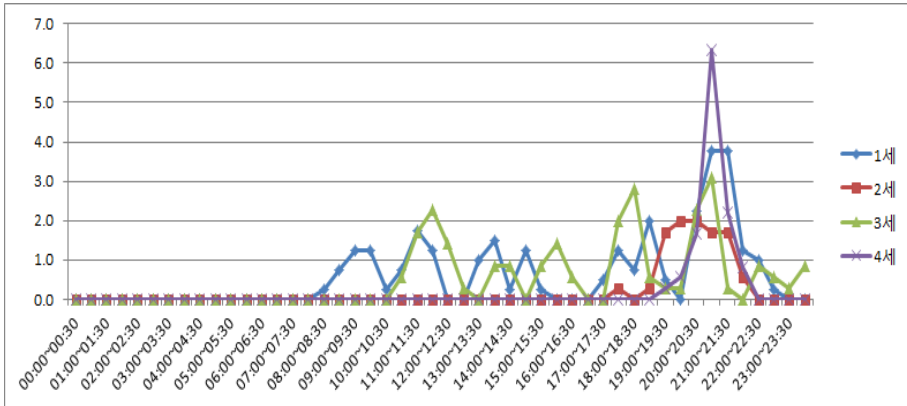
[그림 V-2-10] 연령별 책읽기 시간의 시간대별 비율



[그림 V-2-11] 연령별 TV시청 시간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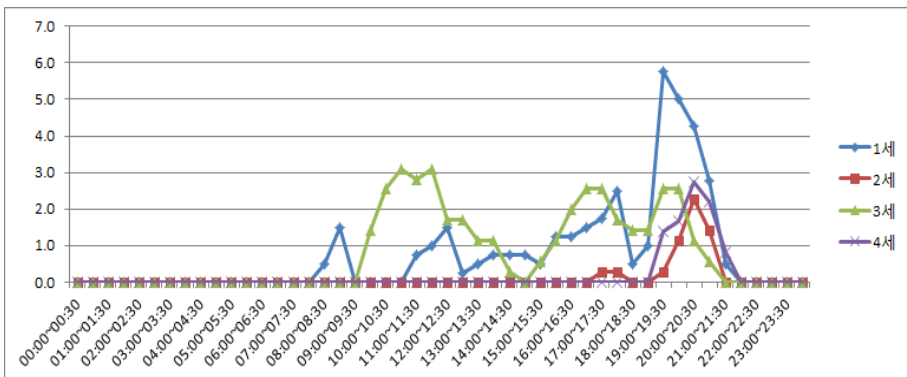
TV시청 시간의 경우는 1세 1시간 29분, 2세 1시간 24분, 3세 1시간 23분, 4세 1시간 27분으로 각 연령대의 80.9%, 92.1%, 87.3%, 86.8%가 TV시청을 하고 있었다. 이는 1세에서 4세의 약 87%가 평균 약 1시간 26분 정도 시청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유아들의 TV시청 시간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에는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7.4%~15.4%가 TV시청을 하고 있었으며, 낮 시간에는 5% 미만의 시청률을 보이다가 저녁 시간에는 5시부터 9시까지 10.9%~

19.7%가 TV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2-11 참조).



[그림 V-2-12] 연령별 모바일폰이용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연령에 따른 모바일폰 이용 시간의 경우는 1세 22분, 2세 68분, 3세 47분, 4세 44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각 연령대의 행위자의 비율은 5.1%, 13.9%, 11.0%, 13.2%으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1세의 경우도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저녁 시간대의 사용이 두드러져 보이고, 2세부터 4세의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많았고 저녁 시간대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의 경우는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모바일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4세는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의 사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V-2-12 참조).



[그림 V-2-13] 연령별 걷기/산책의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한편, 걷기/산책하기 이용 시간의 경우는 1세 54분, 2세 33분, 3세 1시간, 4세 45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 연령대의 행위자 비율은 20.3%, 5.1%, 19.5%, 5.8% 정도로 1세와 3세만 약 20%가 참여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시간대별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1세의 경우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2세는 저녁 시간대에 약간, 3세는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에 약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4세는 거의 걷기/산책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었다(그림 V-2-13 참조).

3. 연령별 생활시간량

가. 만 1세의 생활시간

만 1세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활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 이용하기, 가정관리 돕기, 교제 및 여가 활동, 이동하기, 기타 행동 등의 영역별 생활시간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유지 행동이 1일 평균 15시간 36분으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이 5시간 3분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리양육 이용하기는 2시간 15분, 이동하기가 5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과 가정관리 돕기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으며 기타행동 영역에서는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유지가 100%, 교제 및 여가활동 100%로 나타나 만 1세 모든 영아가 하루에 한 번은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다. 행위자 평균 시간의 경우 대리양육 이용이 7시간 2분으로 개인유지 다음으로 시간 사용이 많았고, 학습의 경우 37분으로 만 1세의 경우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학습을 할 경우 30분 이상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의 생활시간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하기의 평균시간은 주중보다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다.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2시간, 이동하기의 경우 30분으로 주말에 시간사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 주말보다 주중에 시간사용이 더 많았는데 주중 4시간 26분, 주말 4분으로 4시간 이상 차이를 보였다.

행동영역별로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 가정관리 돕기, 이동하기, 기타행동은 행위자 비율이 같거나 2%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 주중 63.3%, 주말 0.8%로 주중 행위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학습의 경우도 주중 12.5%, 주말 9.4%로 주중에 참여율이 더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과 주말 평균시간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V-3-1 참조).

〈표 V-3-1〉 만 1세 생활시간 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4:43	100	14:43	16:29	100	16:29	15:36	100	15:36
학습	0:04	12.5	0:36	0:03	9.4	0:38	0:04	10.9	0:37
대리양육 이용하기	4:26	63.3	7:00	0:04	0.8	8:49	2:15	32.0	7:02
가정관리 돕기	0:01	3.1	0:42	0:01	5.5	0:31	0:01	4.3	0:35
교제 및 여가활동	3:58	100	3:58	6:07	100	6:07	5:03	100	5:03
이동하기	0:44	93.0	0:47	1:12	95.3	1:16	0:58	94.1	1:02
기타행동	0:00	1.6	0:30	0:00	1.6	0:10	0:00	1.6	0:20

1) 개인유지

만 1세의 1일 평균 개인유지 행동을 살펴보면 <표 V-3-2>와 같다. 만 1세의 경우 개인유지 항목 중 가장 많은 행동을 차지하는 행동은 수면으로 만 1세는 하루 평균 12시간 20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에 2시간 10분을 사용하였고, 개인관리 행동은 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 영역의 1일 평균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면과 식사 및 간식은 100%, 개인관리 행동은 99.2%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1일 평균 시간과 동일하였다.

주중과 주말별로 개인유지 영역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수면은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았다. 수면이 주중은 11시간 46분, 주말은 12시간 55분으로 주말이 1시간 정도 많았으며, 수면 중 밤잠과 낮잠 및 졸음이 주말에 30분~1시간 정도 많았다. 식사 및 간식의 경우도 주중 1시간 50분, 주말은 2시간 30분으로 주말에 40분 정도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한편 개인관리,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영역은 시간사용의 차이가 2분 또는 그 이하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개인유지 항목의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비교해 볼 때, 수면과 식사 및 간식하기, 개인관리의 행위자 비율은 99.2%~100%로 큰 차이가 없었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평균시간과 동일했다. 건강관리와 개인 양육받기의 경우 행위자 비율이 약 4%~5%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관리의 경우 주중 6.3%, 주말 1.6%로 주중이 약간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46분, 주말 1시간 5분을 건강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양육받기는 주중 3.9%, 주말 7.8%로 주말이 약간 더 높았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에는 18분, 주말에는 22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2 참조).

<표 V-3-2> 만 1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4:43	100	14:43	16:29	100	16:29	15:36	100	15:36
수면	11:46	100	11:46	12:55	100	12:55	12:20	100	12:20
밤잠	10:48	100	10:48	11:09	100	11:09	10:59	100	10:59
낮잠·졸음	0:54	44.5	2:03	1:43	91.4	1:53	1:19	68.0	1:56
수면 전·후 관련행동	0:02	12.5	0:19	0:01	8.6	0:20	0:02	10.5	0:19
식사 및 간식	1:50	100	1:50	2:30	100	2:30	2:10	100	2:10
식사하기	1:15	100	1:15	1:48	100	1:48	1:31	100	1:31
간식먹기	0:35	78.1	0:44	0:42	89.8	0:46	0:38	84.0	0:45
개인관리	1:01	99.2	1:01	0:59	99.2	0:59	1:00	99.2	1:00
개인위생	0:49	99.2	0:49	0:46	97.7	0:47	0:48	98.4	0:48
외모관리	0:11	65.6	0:17	0:12	62.5	0:20	0:12	64.1	0:18
건강관리	0:02	6.3	0:46	0:01	1.6	1:05	0:01	3.9	0:50
개인양육 받기	0:00	3.9	0:18	0:01	7.8	0:22	0:01	5.9	0:20
위로받기	0:00	3.9	0:18	0:01	7.8	0:22	0:01	5.9	0:20
훈육받기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기타일상활동	0:02	7.8	0:36	0:01	3.9	0:28	0:01	5.9	0:33

2) 학습

만 1세 학습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표 V-3-3>과 같다. 학습의 1일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1세의 경우 교구이용 학습과 기타 학습활동에 평균 1분을 사용하였고, 그 외 학습 활동의 평균시간은 없었다. 만 1세 중 교구이용

학습을 하는 경우는 3.1%이지만 교구이용 학습에 참여하여 보내는 시간은 평균 52분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습활동의 경우 3.5%의 참여율을 보였고 참여한 만 1세의 평균 기타학습 시간은 36분이었다. 학습지 활동과 특기 적성학습의 경우 시간 사용은 없었지만 행위자 비율은 각각 3.9%, 0.8%였으며, 행위자 평균 시간은 24분~25분 정도로 비슷했다.

주중과 주말별로 학습영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습의 평균시간은 없거나 차이가 1분 내외로 크지 않았다. 행위자 비율 또한 같거나 2%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구이용 학습은 주중과 주말 모두 평균 1분으로 행위자 비율 또한 3.1%로 같게 나타났다. 교구이용 학습에 참여하는 만 1세의 경우 주말에는 평균 45분, 주중에는 평균 1시간을 사용하여 참여율은 적었지만 교구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시간은 많았다.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의 평균시간은 주중 1분만 나타났지만 행위자 비율은 주중 4.7%, 주말 3.1%로 주중에 학습지 활동의 참여가 약간 더 높았고, 학습지 활동을 한 평균 시간은 주중 25분, 주말 22분으로 주중이 3분 더 많았다(표 V-3-3 참조).

〈표 V-3-3〉 만 1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학습	0:04	12.5	0:36	0:03	9.4	0:38	0:04	10.9	0:37
하원 및 기관 과제 활동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	0:01	4.7	0:25	0:00	3.1	0:22	0:00	3.9	0:24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특기적성관련 활동	0:00	1.6	0:25	0:00	0.0	0:00	0:00	0.8	0:25
각종교구이용 학습	0:01	3.1	0:45	0:01	3.1	1:00	0:01	3.1	0:52
기타 학습활동	0:01	3.9	0:40	0:01	3.1	0:32	0:01	3.5	0:36

3) 대리양육 이용하기

만 1세 대리양육 이용 시간사용을 알아본 결과는 <표 V-3-4>과 같다. 만 1세 기관이용은 1일 평균 2시간 13분으로 기관은 어린이집 이용이 31.6%로 평균 7시간 2분을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별로 대리양육 이용의 평균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기관이용 중

어린이집 이용의 평균시간은 주중 4시간 23분이었고, 주말에는 평균 4분으로 주중에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많았다. 주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62.5%로 평균 7시간 1분을 기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의 경우 주말에 어린이집 이용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유아는 전체의 0.8%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행위자 평균시간은 8시간 49분으로 주중보다 이용시간이 약 2시간 가량 많았다. 한편 만 1세의 경우 주중과 주말 유치원 이용은 없었으며, 양육도우미의 행위자 비율은 1%미만이었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5시간 30분이었다(표 V-3-4 참조).

<표 V-3-4> 만 1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시간
대리양육 이용	4:26	63.3	7:00	0:04	0.8	8:49	2:15	32.0	7:02
기관이용	4:23	63.3	6:56	0:04	0.8	8:49	2:13	32.0	6:58
어린이집	4:23	62.5	7:01	0:04	0.8	8:49	2:13	31.6	7:02
유치원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기타시설	0:00	0.8	1:00	0:00	0.0	0:00	0:00	0.4	1:00
양육도우미	0:02	0.8	5:30	0:00	0.0	0:00	0:01	0.4	5:29

4) 가정관리 돕기

만 1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1일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표 V-3-5>와 같다.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평균시간은 없었지만 가정관리 돕기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청소 및 정리돕기에 2.7%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에 1.2% 참여하고 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청소 및 정리 돕기 35분,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30분, 의류관리 돕기 25분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별로 가정관리 돕기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각 가정관리 돕기의 주중 평균시간은 없었다. 주말에는 청소 및 정리돕기 행동에서 평균 1분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만 1세의 경우 청소 및 정리 돕기에 1.6%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평균 55분을 사용하였다. 주말의 경우 3.9%의 참여율을 보여 주중 보다는 2% 정도 참여율이 더 많았으나 참여한 평균시간은 28분으로 주중보다 30분 가량 적었다.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의 경우

주중 0.8%, 주말 1.6%로 주말의 참여가 약간 더 높았으며, 참여한 평균 시간도 주중 10분, 주말 40분으로 주말이 30분 가량 더 많았다(표 V-3-5 참조).

〈표 V-3-5〉 만 1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행동영역	단위: 시간, 분, %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가정관리 돕기	0:01	3.1	0:42	0:01	5.5	0:31	0:01	4.3	0:35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0:00	0.8	0:10	0:00	1.6	0:40	0:00	1.2	0:30
의류관리 돕기	0:00	1.6	0:25	0:00	0.0	0:00	0:00	0.8	0:25
청소 및 정리 돕기	0:00	1.6	0:55	0:01	3.9	0:28	0:00	2.7	0:35
기타 가정관 리 돕기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5) 교제 및 여가활동

만 1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1일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표 V-3-6>과 같다. 놀이가 하루 평균 2시간 38분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 미디어 이용 행동이 1시간 21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이 27분, 쇼핑, 마트 물건 구입 등으로 어른을 따라가는 행동은 19분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만 1세의 경우 놀이에 97.7%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그다음 미디어 이용에 85.5% 참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35.5%, 따라가기 행동에 33.6% 참여하고 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놀이가 2시간 42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문화, 스포츠 관람활동이 1시간 52분, 미디어 이용이 1시간 34분, 종교활동이 1시간 30분, 따라가기 57분 순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별로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주중보다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놀이는 50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24분, 따라가기 20분, 미디어 이용 15분으로 만 1세의 경우 주중보다 주말에 교제 및 여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교제활동 중 가족 외 친척과 시간보내기와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은 주말에만 시간사용이 나타났으며 시간사용은 2분~7분 정도였다.

〈표 V-3-6〉 만 1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3:58	100	3:58	6:07	100	6:07	5:03	100	5:03
교제활동	0:05	15.6	0:32	0:09	21.1	0:43	0:07	18.4	0:38
가족과 시간보내기	0:03	10.2	0:30	0:05	17.2	0:29	0:04	13.7	0:29
가족 외 친척과 시간보내기	0:00	1.6	0:20	0:02	3.9	1:15	0:01	2.7	1:00
가족/ 친척 외 사람들과 시간보내기	0:01	1.6	1:24	0:01	1.6	1:10	0:01	1.6	1:17
애완동물과 시간보내기	0:00	2.3	0:16	0:00	0.0	0:00	0:00	1.2	0:16
미디어 이용	1:13	85.9	1:25	1:28	85.2	1:44	1:21	85.5	1:34
tv시청	1:05	81.3	1:20	1:19	80.5	1:39	1:12	80.9	1:29
핸드폰/스마트폰 이용	0:01	7.0	0:24	0:00	3.1	0:17	0:01	5.1	0:22
컴퓨터 이용	0:01	3.9	0:42	0:04	6.3	1:16	0:03	5.1	1:03
CD, TAPE, MP3, 라디오 이용	0:04	14.1	0:32	0:03	11.7	0:34	0:04	12.9	0:33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	0:00	0.0	0:00	0:07	8.6	1:30	0:03	4.3	1:30
문화/스포츠관람/행사 참여 활동	0:00	0.0	0:00	0:03	3.1	1:52	0:01	1.6	1:52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0:15	28.9	0:52	0:39	42.2	1:32	0:27	35.5	1:16
걷기/산책	0:11	25.0	0:46	0:13	21.9	1:01	0:12	23.4	0:53
스포츠 활동	0:01	3.1	1:02	0:03	9.4	0:39	0:02	6.3	0:44
아웃도어 활동	0:01	2.3	1:03	0:22	16.4	2:14	0:11	9.4	2:05
놀이	2:12	96.9	2:16	3:03	98.4	3:06	2:38	97.7	2:42
장난감 가지고 놀기	0:54	80.5	1:07	1:07	84.4	1:20	1:01	82.4	1:14
장난감 없이 놀기	0:22	40.6	0:56	0:27	46.9	0:59	0:25	43.8	0:57
기타 놀이활동	0:11	25.0	0:44	0:16	28.9	0:56	0:13	27.0	0:50
놀이터 이용	0:12	25.0	0:51	0:31	47.7	1:05	0:21	36.3	1:00
예술경험 놀이 (미술/음률활동)	0:04	16.4	0:25	0:10	27.3	0:40	0:07	21.9	0:34
책읽기	0:26	66.4	0:40	0:30	66.4	0:45	0:28	66.4	0:42
따라가기	0:09	23.4	0:39	0:29	43.8	1:06	0:19	33.6	0:57
아무것도 안하고 쉬	0:03	10.2	0:30	0:05	17.2	0:33	0:04	13.7	0:32
기타 여가관련행동	0:00	0.8	0:20	0:00	1.6	0:30	0:00	1.2	0:26

주중과 주말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비율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따라가기,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아무것도 안하고 쉬이였으며 주말 행위자 비율이 더 높았다. 먼저 따라가기는 주중 23.4%, 주말 43.8%로 주말에 따라가기와 관련된 행동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주중 28.9%, 주말 42.2%로 주말이 15% 가량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하위 영역인 아웃도어 활동에서 10% 이상 주말 행위자 비율이 높았다. 아무것도 안하고 쉬의 경우 주중 10.2%, 주말 17.2%로 7%가량 차이가 있었다. 한편 놀이의 경우 행위자 비율은 주중과 주말 비슷했지만 놀이의 하위영역 중 예술경험 놀이에서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차가 10% 이상 나타나 만 1세의 경우 주말에 미술이나 음률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과 문화/스포츠관람/행사참여 활동은 주중에 시간사용은 없었으나 주말에는 각각 1시간 30분, 1시간 52분으로 시간사용의 차이가 매우 컸다. 또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과 하위영역인 스포츠 활동과 아웃도어 활동에서 40분~50분 가량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다. 따라가기 행위자 평균시간도 주말이 30분 많았지만 그 외 나머지 영역에서의 시간차는 같거나 10분 내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표 V-3-6 참조).

6) 이동하기

만 1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표 V-3-7>과 같다. 이동하기 중 따라가기 관련 이동이 1일 평균 11분이었고,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과 놀이 관련 이동이 6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놀이 관련 이동이 41%로 높았으며, 따라가기 이동이 39.8%, 학습 또는 대리양육 관련 이동이 34%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교제관련 이동이 35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활동, 문화참여 및 스포츠 활동 관련이동이 32분, 따라가기 관련 이동이 28분이었다.

주중과 주말 이동하기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학습, 대리양육 이용 이동의 경우 주중 11분이었고, 주말은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놀이 관련 이동의 경우 주중은 3분, 주말은 9분으로 나타나 주말에 놀이 관련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가기 관련 이동 또한 주말의 평균 시간

이 많았는데 주중 6분, 주말 16분으로 주말이 10분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하기 영역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주중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이 65.6%로 주말 2.3%보다 더 높았다. 놀이 관련 이동은 주중 28.9%, 주말 53.1%로 주말에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 시간도 주중 12분, 주말 17분으로 주말이 5분 가량 많았다. 따라가기 이동은 주중 28.9%, 주말 50.8%로 나타나 주말 따라가기 관련 이동에 참여가 매우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21분, 주말 32분으로 10분 가량 많았다. 교제활동 이동 또한 주중 9.4%, 주말 12.5%로 주말 참여가 더 높았고, 평균 시간도 주중 25분, 주말 42분으로 주말에 시간 사용이 더 많았다(표 V-3-7 참조).

〈표 V-3-7〉 만 1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이동하기	0:44	93.0	0:47	1:12	95.3	1:16	0:58	94.1	1:02
개인유지 관련이동	0:01	7.8	0:19	0:03	17.2	0:22	0:02	12.5	0:21
학습, 대리양육 관련이동	0:11	65.6	0:18	0:00	2.3	0:20	0:06	34.0	0:18
교제활동 관련 이동	0:02	9.4	0:25	0:05	12.5	0:42	0:03	10.9	0:35
종교참여, 관람 및 문화 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이동	0:00	0.00	0:00	0:05	18.0	0:32	0:02	9.0	0:32
놀이 관련 이동	0:03	28.9	0:12	0:09	53.1	0:17	0:06	41.0	0:16
따라가기 관련 이동	0:06	28.9	0:21	0:16	50.8	0:32	0:11	39.8	0:28
기타 이동하기	0:18	91.4	0:20	0:31	93.8	0:33	0:25	92.6	0:27

7) 기타행동

만 1세의 기타행동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0시간으로 나타났고 주중과 주말에도 0시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1일 기타행동은 1.6%로 나타났으며, 기타 행동을 보이는 영아는 1일 평균 20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타 행동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은 1.6%, 주말은 1.6%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은 30시간 주말은 10분으로 나타났다(표 V-3-8 참조).

〈표 V-3-8〉 만 1세 기타행동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기타행동	0:00	1.6	0:30	0:00	1.6	0:10	0:00	1.6	0:20

나. 만 2세의 생활시간

만 2세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결과는 다음의 <표 V-3-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 2세의 경우 1일 평균 개인유지 행동에 14시간 52분을 사용하였으며, 대리양육 이용은 3시간 11분, 교제 및 여가 활동은 4시간 41분, 이동하기는 1시간 3분을 사용하였다. 그밖에 학습은 8분, 가정관리 돕기는 1분으로 1일 평균 10분 이하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타행동과 관련된 시간사용은 없었다.

각 행동 영역별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100%, 교제 및 여가활동 100%, 이동하기 97.4%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참여했으며, 대리양육 이용은 41.7% 정도 참여하고 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 활동은 평균시간과 동일했으며, 대리양육은 7시간 39분, 이동하기는 1시간 5분, 학습은 43분, 가정관리는 17분이었다.

만 2세 생활시간 사용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 주중은 6시간 16분, 주말은 6분을 사용하여 주중 시간사용이 6시간 정도 많았다.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도 3시간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유지는 주중은 13시간 25분, 주말은 16시간 19분을 사용하였고, 교제 및 여가활동은 주중은 3시간 12분, 주말은 6시간 10분을 사용하여 주말에 주중보다 하루 평균 약 3시간 정도 더 시간을 사용하였다. 학습은 주중 10분, 주말 6분으로 주중이 약간 더 많았고, 이동하기는 주중은 52분, 주말은 1시간 15분으로 주말에 23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V-3-9> 만 2세 생활시간 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3:25	100	13:25	16:19	100	16:19	14:52	100	14:52
학습	0:10	24.8	0:42	0:06	14.3	0:45	0:08	19.5	0:43
대리양육이용하기	6:16	82.0	7:40	0:06	1.5	7:04	3:11	41.7	7:39
가정관리돕기	0:01	7.5	0:15	0:01	6.8	0:20	0:01	7.1	0:17
교제 및 여가활동	3:12	100	3:12	6:10	100	6:10	4:41	100	4:41
이동하기	0:52	100	0:52	1:15	94.7	1:19	1:03	97.4	1:05
기타행동	0:00	1.5	0:25	0:00	2.3	0:20	0:00	1.9	0:22

각 행동 영역별로 행위자 비율을 주중과 주말별로 살펴보면,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모두 100%였으며, 이동하기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은 100%, 주말은 94.7%였다. 그러나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에는 주중에는 82%였으나 주말에는 1.5%로 나타나 주중에는 많은 영유아가 참여하지만 주말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리양육의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의 차이는 80%정도로 높았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7시간 40분, 주말 7시간 4분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7시간~8시간 정도로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1) 개인유지

만 2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수면은 1일 평균 11시간 49분, 식사 및 간식은 1시간 58분, 개인관리는 1시간 3분이었으며, 항목별 행위자 비율은 98%~100% 정도였다. 그 외 건강관리, 개인양육 받기, 기타 일상행동의 평균시간은 0분이었으며, 행위자 비율도 5% 이하로 낮았다. 그러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건강관리 24분, 개인양육받기 19분, 기타 일상행동 33분이었다.

〈표 V-3-10〉 만 2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3:25	100	13:25	16:19	100	16:19	14:52	100	14:52
수면	10:53	100	10:53	12:44	100	12:44	11:49	100	11:49
밤잠	10:33	100	10:33	11:08	100	11:08	10:51	100	10:51
낮잠·졸음	0:19	16.5	1:57	1:34	85	1:51	0:57	50.8	1:52
수면 전·후 관련행동	0:00	8.3	0:11	0:01	5.3	0:21	0:01	6.8	0:15
식사 및 간식	1:28	99.2	1:29	2:29	100	2:29	1:58	99.6	1:59
식사하기	1:06	99.2	1:06	1:51	99.2	1:51	1:28	99.2	1:29
간식먹기	0:22	66.9	0:33	0:37	88.0	0:43	0:30	77.4	0:39
개인관리	1:01	98.5	1:02	1:04	98.5	1:05	1:03	98.5	1:04
개인위생	0:46	98.5	0:47	0:51	98.5	0:52	0:49	98.5	0:50
외모관리	0:14	75.9	0:19	0:12	62.4	0:20	0:13	69.2	0:20
건강관리	0:00	2.3	0:20	0:00	1.5	0:30	0:00	1.9	0:24
개인양육받기	0:00	3.8	0:16	0:00	4.5	0:21	0:00	4.1	0:19
위로받기	0:00	3.8	0:16	0:00	4.5	0:21	0:00	4.1	0:19
훈육받기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기타일상활동	0:00	1.5	0:30	0:00	0.8	0:40	0:00	1.1	0:33

주중과 주말별로 개인유지 영역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수면과 식사 및 간식은 주중보다 주말에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수면은 주중 10시간 53분, 주말 12시간 44분을 사용하였고, 주로 밤잠을 위한 시간이었다. 식사 및 간식의 경우 주중은 1시간 28분, 주말은 2시간 29분을 할애하였으며 식사하기가 주를 차지하였다. 개인관리를 위해서는 주중 1시간 1분, 주말 1시간 4분으로 시간사용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개인관리는 주로 개인위생을 위한 시간이었고 훈육받기의 경우 행위자 비율 및 사용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표 V-3-10 참조).

2) 학습

만 2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은 2분, 기타 학습활동은 4분으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비율은 학습지 활동 7.5%, 기타 학습활동 10.5%,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과 특기 적성관련 활동 0.8%, 각종 교구이용 학습 2.3%순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시간 사용은 거의 없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특기 적성관련 활동 50분, 각종 교구이용 학습이 43분, 학습지 활동 33분,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 25분으로, 만 2세의 경우에도 학습 관련 행위자 평균이 43분이었다.

〈표 V-3-11〉 만 2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학습	0:10	24.8	0:42	0:06	14.3	0:45	0:08	19.5	0:43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0:00	0.8	0:20	0:00	0.8	0:30	0:00	0.8	0:25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	0:03	11.3	0:32	0:01	3.8	0:34	0:02	7.5	0:33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특기 적성관련 활동	0:00	1.5	0:50	0:00	0.0	0:00	0:00	0.8	0:50
각종 교구이용 학습	0:00	1.5	0:35	0:01	3.0	0:47	0:00	2.3	0:43
기타 학습활동	0:05	12.0	0:45	0:03	9.0	0:39	0:04	10.5	0:42

주중과 주말별로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영역 중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시간은 주중은 3분, 주말은 1분을 사용하였고,

기타 학습활동의 경우 주중은 5분, 주말은 3분을 사용하고 있어 만 2세의 경우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평균 시간은 주중이 주말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 외 나머지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은 없었다.

주중과 주말별로 행위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종 교구이용 학습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영역에서 주중이 주말보다 많았다. 그러나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특기적성 관련 활동과 기타 학습활동 시간을 제외하고 주말에 주중보다 많은 시간이 사용되고 있었다(표 V-3-11 참조).

3) 대리양육 이용하기

만 2세 대리양육 이용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 이용 중 어린이집의 기관이용만 하고 유치원이나 기타시설, 양육도우미 이용 시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이집의 기관이용 시간은 1일 평균 3시간 11분이었으며, 행위자 비율은 41.7%, 행위자 평균시간은 7시간 39분이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주중은 6시간 16분, 주말은 6분으로 6시간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행위자 비율 역시 주중 82%, 주말은 1.5%로 80%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행위자의 평균시간은 주중 7시간 40분, 주말 7시간 4분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어린이집을 통한 기관양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3-12 참조).

〈표 V-3-12〉 만 2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대리양육 이용	6:16	82.0	7:40	0:06	1.5	7:04	3:11	41.7	7:39
기관이용	6:16	82.0	7:40	0:06	1.5	7:04	3:11	41.7	7:39
어린이집	6:16	82.0	7:40	0:06	1.5	7:04	3:11	41.7	7:39
유치원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기타시설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양육도우미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4) 가정관리 돕기

만 2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식사 준비 및 정리돕기, 의류관리 돕기, 청소 및 정리돕기, 기타 가정관리돕기에서 0분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 가정관리 돕기의 행위자 비율은 청소 및 정리 돕기 2.6%, 기타 가정관리 돕기 2.3%,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1.9%, 의류관리 돕기 0.4%이었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식사준비 및 정리돕기 26분, 의류관리 돕기 20분, 청소 및 정리돕기 14분이었다(표 V-3-13 참조).

〈표 V-3-13〉 만 2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행동영역	단위: 시간, 분, %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가정관리 돕기	0:01	7.5	0:15	0:01	6.8	0:20	0:01	7.1	0:17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0:00	0.8	0:20	0:00	3.0	0:27	0:00	1.9	0:26
의류관리 돕기	0:00	0.8	0:20	0:00	0.0	0:00	0:00	0.4	0:20
청소 및 정리 돕기	0:00	3.0	0:15	0:00	2.3	0:13	0:00	2.6	0:14
기타 가정관리 돕기	0:00	3.0	0:12	0:00	1.5	0:15	0:00	2.3	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관리 돕기의 세부영역별 평균시간 사용은 주중과 주말은 없었고 행위자 비율은 식사 준비 및 정리돕기는 주말이 주중보다 많았으며, 그 외 영역은 주중이 더 많았다.

5) 교제 및 여가활동

만 2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은 놀이와 미디어 이용시간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놀이에 사용된 평균시간이 2시간 16분, 미디어 이용 1시간 27분으로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행위자 비율 역시 놀이와 미디어 이용이 95.1%로 가장 많았고, 놀이의 하위영역에서는 장난감 가지고 놀기 75.6%, 책읽기 64.7%, 미디어 이용의 하위영역에서는 TV 시청이 92.1%에 많은 유아가 참여하고 있었다. 행위자 평균 시간은 문화, 스포츠 관람, 행사 참여 활동 2시간 30분, 놀이 2시간 23분, 미디어 이용 1시간 32분,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활동 1시간 28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1시간 10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놀이의 경우 장난감 가지고 놀기 1시간 12분, 놀이터 이용 1시간, 장난감 없이 놀기 51분으로 행위자들은 평균 1시간 전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스포츠 레저활동의 경우 아웃도어 활동에서 1시간 42분을 이용하고 있었다. 미디어 이용에 참여한 유아의 평균 사용시간은 TV 시청이 1시간 24분으로 많았으나, 핸드폰, 스마트폰 이용 41분, 컴퓨터 이용 40분으로 다른 전자미디어의 경

우에도 40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4〉 만 2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교제 및 여가활동	3:12	100	3:12	6:10	100	6:10	4:41	100	4:41
교제활동	0:03	14.3	0:22	0:09	18.8	0:50	0:06	16.5	0:38
가족과 시간보내기	0:01	9.8	0:16	0:02	8.3	0:46	0:02	9.0	0:23
가족 외 친척과 시간보내기	0:00	3.0	0:25	0:02	6.0	0:52	0:01	4.5	0:39
가족/ 친척 외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0:00	0.8	1:00	0:01	3.8	1:36	0:01	2.3	0:53
애완동물과 시간보내기	0:00	0.8	0:40	0:02	2.3	1:45	0:01	1.5	1:22
미디어 이용	1:02	93.2	1:07	1:52	97.0	1:56	1:27	95.1	1:32
tv시청	0:56	91.0	1:02	1:38	93.2	0:50	1:17	92.1	1:24
핸드폰/스마트폰 이용	0:02	10.5	0:25	0:08	17.3	0:47	0:05	13.9	0:41
컴퓨터 이용	0:00	3.0	0:25	0:03	7.5	0:35	0:02	5.3	0:40
CD, TAPE, MP3, 라디오 이용	0:02	9.0	0:29	0:02	6.0	1:28	0:02	7.5	0:31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	0:00	0.0	0:00	0:11	12.8	1:28	0:05	6.4	1:28
문화/스포츠관람/ 행사참여 활동	0:00	0.0	0:00	0:09	6.0	2:30	0:04	3	2:30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0:05	12.8	0:39	0:33	42.1	1:19	0:19	27.4	1:10
걷기/산책	0:02	7.5	0:33	0:11	20.3	0:54	0:06	13.9	0:48
스포츠 활동	0:01	4.5	0:28	0:06	12.8	0:52	0:03	8.6	0:46
아웃도어 활동	0:01	1.5	1:24	0:15	15.0	1:44	0:08	8.3	1:42
놀이	1:52	94.0	1:59	2:40	96.2	2:46	2:16	95.1	2:23
장난감 가지고 놀기	0:46	68.4	1:07	1:03	82.7	1:17	0:55	75.6	1:12
장난감 없이 놀기	0:11	25.6	0:46	0:18	33.8	0:54	0:15	29.7	0:51
기타 놀이활동	0:06	16.5	0:38	0:10	21.8	0:48	0:08	19.2	0:44
놀이터 이용	0:15	30.1	0:52	0:28	43.6	1:05	0:22	36.8	1:00
예술경험 놀이	0:06	21.1	0:32	0:13	33.8	0:39	0:10	27.4	0:36
책읽기	0:24	65.4	0:37	0:25	63.9	0:40	0:25	64.7	0:39
따라가기	0:07	21.1	0:37	0:27	36.1	1:15	0:17	28.6	1:01
아무것도 안하고 쉬	0:01	8.3	0:20	0:05	12.8	0:39	0:03	10.5	0:31
기타 여가관련행동	0:00	0.8	0:30	0:00	2.3	0:43	0:00	1.5	0:40

그리고 교제 활동에서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53분, 애완

동물과 시간 보내기는 1시간 22분으로 유아들은 사람에 비해 동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중과 주말별로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 시간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제 및 여가활동의 세부행동영역 중 미디어 이용과 놀이에서 주말에 주중보다 5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 7개의 하위영역에서 주말에 주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행위자 비율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주말에 주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과 문화, 스포츠 관람, 행사 참여활동은 주중에는 행위자 비율이 없었으나 주말은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활동 12.8%, 문화, 스포츠 관람, 행사 참여활동은 6%가 참여하였다(표 V-3-14 참조).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도 주중에는 12.8%였으나 주말에는 42.1%의 유아가 참여하고 있었다. 행위자의 평균시간은 교제활동은 28분, 미디어 이용은 49분, 놀이는 47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40분, 따라가기 38분 정도가 주말에 주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놀이 행동영역의 소분류 항목인 장난감 가지고 놀기, 장난감 없이 놀기, 기타 놀이활동, 놀이터 이용, 예술경험놀이, 책읽기에 참여한 행위자의 평균 시간은 모두 주말이 주중보다 10분 정도 많았으나 교제활동의 애완동물과 시간보내기와 미디어 이용의 CD, Tape, MP3, 라디오 이용은 주말이 주중보다 1시간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사용되고 있었다.

6) 이동하기

만 2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기타 이동은 26분,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9분, 따라가기 관련 이동 9분으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비율은 기타이동 93.2%, 대리양육 관련 이동 45.9%, 놀이 관련 이동 38.3%, 따라가기 관련이동 30.5%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행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교 참여,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관련 이동은 43분, 교제활동 관련 이동은 42분으로 이동하기의 하위영역 중 행위자 평균시간 사용 비중이 많았다.

주중과 주말별로 이동하기 영역의 평균 시간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유지 관련이동, 교제활동 관련이동, 종교 참여,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은 주중에는 0분으로 거의 없었으나, 주말에는 개인유지 관련이동 3분, 교제활동 관련이동 6분, 종교 참여,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 11분이었다. 이 외에 놀이 관련 이동, 따라가기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도 주말이 주중보다 더 많은 시간이 사용되었다.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학습, 대리양육 이동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 88%, 주말 3.8%,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19분, 주말 30분, 교제활동 관련 이동에서 주중 16분, 주말 56분으로 나타나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교제 활동 관련 이동은 주로 주말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유지 관련 이동, 종교 참여,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활동관련 이동, 따라가기 관련 이동은 주중이 주말보다 더 많은 시간이 사용되었다(표 V-3-15 참조).

〈표 V-3-15〉 만 2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이동하기	0:52	100	0:52	1:15	94.7	1:19	1:03	97.4	1:05
개인유지 관련이동	0:00	3.0	0:32	0:03	15.0	0:24	0:02	9.0	0:25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0:17	88	0:19	0:01	3.8	0:30	0:09	45.9	0:19
교제활동 관련 이동	0:00	6.0	0:16	0:06	11.3	0:56	0:03	8.6	0:42
종교참여, 관람 및 문화 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	0:00	1.5	1:04	0:11	27.1	0:42	0:06	14.3	0:43
놀이 관련 이동	0:04	27.8	0:14	0:09	48.9	0:19	0:06	38.3	0:17
따라가기 관련 이동	0:05	17.3	0:32	0:12	43.6	0:29	0:09	30.5	0:30
기타 이동하기	0:22	97.7	0:22	0:30	88.7	0:34	0:26	93.2	0:28

7) 기타행동

만 2세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0분으로 거의 없었다. 그러나 행위자 비율은 1.9%로 행위자 기타행동 영역의 평균 사용시간은 22분이었다. 주중, 주말의 경우에도 기타행동 영역의 평균 사용시간은 0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의 경우 주중은 1.5%, 주말은 2.3%로 주말에 참여하는 행위자 비율이 높았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사용은 주중 25분, 주말 20분으로 주중에 주말보다 5분 정도 더 많았다(표 V-3-16 참조).

〈표 V-3-16〉 만 2세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기타행동	0:00	1.5	0:25	0:00	2.3	0:20	0:00	1.9	0:22

다. 만 3세의 생활시간

만 3세 1일 생활시간 사용을 하위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V-3-17>과 같다. 만 3세의 경우 개인유지를 하는 시간이 14시간 33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제 및 여가활동이 4시간 40분, 대리양육 이용하기가 3시간 28분 순이었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이 100%로 나타나 만 3세의 경우 하루에 한 번은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 3세의 생활시간이 행동영역별로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른지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주중 13시간 9분, 주말 15시간 56분이었고, 교제 및 여가활동은 주중 2시간 51분, 주말 6시간 29분이었다. 이동하기는 주중에는 46분이었고, 주말에는 1시간 22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에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하기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표 V-3-17> 만 3세 생활시간 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3:09	100.0	13:09	15:56	100.0	15:56	14:33	100.0	14:33
학습	0:14	33.1	0:43	0:07	20.3	0:38	0:11	26.7	0:41
대리양육이용하기	6:57	95.8	7:15	0:00	0.0	0:00	3:28	47.9	7:15
가정관리 돕기	0:00	3.4	0:27	0:03	7.6	0:41	0:02	5.5	0:36
교제 및 여가활동	2:51	100.0	2:51	6:29	100.0	6:29	4:40	100.0	4:40
이동하기	0:46	100.0	0:46	1:22	97.5	1:24	1:04	98.7	1:05
기타행동	0:00	0.0	0:00	0:00	2.5	0:26	0:00	1.3	0:26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행위자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보아 만 3세의 경우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참여율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경우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주중의 경우 만 3세 중 95.8%가 대리양육 이용에 참여하였지만 주말 행위자 비율은 없었다.

만 3세 중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 주중 7시간 15분을 대리양육을 이용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습의 경우에는 주중 33.1%, 주말 20.3%로 주중

이 약 10%이상 학습에 참여율이 높았고,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도 주중 43분, 주말 38분으로 주중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도 많았다. 이동하기는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이 각각 100%, 97.5%로 비율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주중 46분, 주말 1시간 24분으로 주말에 이동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1) 개인유지

만 3세 개인유지 영역의 1일 평균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11시간 32분으로 가장 많았고, 식사 및 간식하기에 보내는 시간은 1시간 53분, 개인관리에 1시간 3분이었다. 그 외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은 1일 평균 1분 또는 그 이하였다. 1일 개인유지 영역의 행동별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는 행위자 비율이 99.6%~100%로 만 3세아 대부분이 이 행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1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수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순이었으며, 1일 평균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주중과 주말별로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수면이 주중은 10시간 45분, 주말은 12시간 20분으로 1시간 40분 가량 주말이 많았다. 수면 중 밤잠이 주중은 10시간 28분, 주말은 11시간 12분으로 밤잠도 1시간 가량 주말에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잠 및 졸음도 주중 13분, 주말 1시간 4분으로 주말이 더 많았다. 식사 및 간식은 주중에는 1시간 20분, 주말은 2시간 27분으로 주말이 1시간 정도 많았으며 식사하기 시간은 50분, 간식 시간은 20분 정도 주말에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개인관리의 경우에는 주중은 1시간 2분, 주말은 1시간 5분으로 주중과 주말에 비슷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중과 주말 개인유지 영역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주중과 주말 모두 수면과 개인관리의 행위자 비율은 100%로 나타나 비율차는 없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수면의 경우 주중 10시간 45분, 주말 12시간 20분으로 주말이 더 많았고, 개인관리의 경우 주중 1시간 2분, 주말 1시간 5분으로 비슷했다. 또한 식사 및 간식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에는 99.2%, 주말에는 100%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말이 1시간 정도 많았다. 개인양육 받기는 주중 1.7%, 주말 4.2%로 주말이 약간 높았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비슷했다(표 V-3-18 참조).

〈표 V-3-18〉 만 3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3:09	100.0	13:09	15:56	100.0	15:56	14:33	100.0	14:33
수면	10:45	100.0	10:45	12:20	100.0	12:20	11:32	100.0	11:32
밤잠	10:28	100.0	10:28	11:12	100.0	11:12	10:50	100.0	10:50
낮잠·졸음	0:13	13.6	1:36	1:04	66.9	1:36	0:39	40.3	1:36
수면 잔후 관련행동	0:03	21.2	0:15	0:02	14.4	0:20	0:03	17.8	0:17
식사 및 간식	1:20	99.2	1:20	2:27	100.0	2:27	1:53	99.6	1:54
식사하기	1:01	98.3	1:02	1:52	100.0	1:52	1:26	99.2	1:27
간식먹기	0:18	61.0	0:30	0:35	79.7	0:44	0:26	70.3	0:38
개인관리	1:02	100.0	1:02	1:05	100.0	1:05	1:03	100.0	1:03
개인위생	0:48	100.0	0:48	0:52	100.0	0:52	0:50	100.0	0:50
외모관리	0:13	78.0	0:17	0:12	72.9	0:17	0:13	0.01	0:17
건강관리	0:02	4.2	0:52	0:01	3.4	0:45	0:01	3.8	0:48
개인양육받기	0:00	1.7	0:25	0:01	4.2	0:24	0:00	3.0	0:24
위로받기	0:00	0.0	0:00	0:01	4.2	0:24	0:00	2.1	0:24
훈육받기	0:00	1.7	0:25	0:00	0.0	0:00	0:00	0.8	0:25
기타일상활동	0:00	0.8	0:20	0:00	1.7	0:20	0:00	1.3	0:20

2) 학습

만 3세 학습 영역의 1일 평균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학습지 활동이 5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학습활동, 특기 적성 관련활동의 순으로 각각 3분, 1분으로 나타났다.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온라인 학습, 각종 교구이용 학습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학습지 활동이 1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기타 학습활동이 8.5%, 특기적성 관련 활동이 2.5% 순이었으며, 그 외 학습 영역의 행위자 비율은 1% 내외였다. 행위자 평균 시간은 특기적성 관련 활동이 1시간 13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학습 영역은 20분~40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중과 주말의 학습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습지 활동은 주중 6분, 주말 3분이었고, 특기 적성 활동의 경우는 주중에는 3분, 주말에는 0분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즉 만 3세 중 학습지 활동과 특기 적성활동을 할 경우 주말보다는 주중에 시간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온라인 학습, 각종 교구이용 학습은 시간사용이 없거나 시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주중과 주말 학습 시간에 대한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학습지 활동은 주중 21.2%, 주말 10.2%로 10% 정도 주중에 참여율이 더 높았다. 특기 적성활동의 경우는 주중에는 5.1%, 주말에는 0%로 특기 적성활동은 주로 주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기타 학습활동의 경우 주말에 약 4% 높았으며 그 외 나머지 영역의 경우 행위자 비율과 비율차가 1% 내외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20분~1시간 13분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행위자 비율은 적었으나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은 많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이 주중과 주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온라인 학습과 특기적성 관련 활동, 교구 이용 학습으로 30분~1시간 정도 차이를 보였다(표 V-3-19 참조).

〈표 V-3-19〉 만 3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학습	0:14	33.1	0:43	0:07	20.3	0:38	0:11	26.7	0:41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0:00	0.8	0:20	0:00	0.0	0:00	0:00	0.4	0:20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	0:06	21.2	0:32	0:03	10.2	0:36	0:05	15.7	0:33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0:00	0.0	0:00	0:00	0.8	0:30	0:00	0.4	0:30
특기 적성관련 활동	0:03	5.1	1:13	0:00	0.0	0:00	0:01	2.5	1:13
각종 교구이용 학습	0:00	1.7	0:55	0:00	1.7	0:25	0:00	1.7	0:40
기타 학습활동	0:02	6.8	0:40	0:03	10.2	0:33	0:03	8.5	0:36

3) 대리양육

만 3세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기관이용에 하루 평균 3시간 2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어린이집은 3시간 15분, 유치원은 13분, 기타시설은 0분으로 나타나 만 3세의 경우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주중과 주말에 대리양육 이용에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기관이용은 주중 6시간 57분, 주말 0분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중은 6시간 30분, 주말은 0분이었다. 유치원의 경우는 주중은 26분, 주말은 0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만 3세의 경우 주중에만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양육도우미와 보내는 시간을 보면 주중과 주말이 모두 0분이었다.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기관이용은 주중이 95.8%, 주말이 0%로 나타나 주말에는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가 없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이 7시간 15분, 주말이 0분이었다. 기관 이용 유아의 경우, 유아들은 하루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었다. 기관이용 중에서 어린이집은 주중은 89%, 주말은 0%였으며, 어린이집에 가는 유아의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 7시간 18분, 주말 0분이었다. 유치원의 경우는 행위자 비율이 주중은 6.8%, 주말은 0%로 나타나 유치원에 가는 유아는 모두 주중에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이 6시간 26분이었고 주말은 0분이었다(표 V-3-20 참조).

〈표 V-3-20〉 만 3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대리양육 이용	6:57	95.8	7:15	0:00	0.0	0:00	3:28	47.9	7:15
기관이용	6:57	95.8	7:15	0:00	0.0	0:00	3:28	47.9	7:15
어린이집	6:30	89.0	7:18	0:00	0.0	0:00	3:15	44.5	7:18
유치원	0:26	6.8	6:26	0:00	0.0	0:00	0:13	3.4	6:26
기타시설	0:00	0.8	0:50	0:00	0.0	0:00	0:00	0.4	0:50
양육도우미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	0:00

4) 가정관리 돕기

만 3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식사 준비 및 정리돕기에 보내는 시간이 1분이었고, 의류관리 돕기, 청소 및 정리 정돈 돕기에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를 볼 때, 유아들은 가정관리 돕기에는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도 1%~2% 정도로 낮았다.

주중과 주말 가정관리 돕기에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는 주중에는 0분, 주말에는 2분이었다. 이는 주말에는 유아들이 식사 준비나 정리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류관리 돕기와 청소 및 정리 돕기에서는 주중, 주말 모두 0분으로 시간사용이 없었다.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식사 준비 및 정리돕

기에서는 행위자 비율이 주중은 1.7%, 주말은 5.1%로 나타나, 만 3세의 경우 주말에 더 많이 식사 준비 및 정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40분, 주말 45분으로 주말 시간사용이 약간 더 많았다. 청소 및 정리 돕기와 기타 가정관리 돕기의 행위자 비율은 1% 내외였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은 10분, 주말은 30분~35분 정도로 주말 시간사용이 모두 많았다(표 V-3-21 참조).

〈표 V-3-21〉 만 3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행동영역	단위: 시간, 분, %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가정관리 돕기	0:00	3.4	0:27	0:03	7.6	0:41	0:02	5.5	0:36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0:00	1.7	0:40	0:02	5.1	0:45	0:01	3.4	0:43
의류관리 돕기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청소 및 정리 돕기	0:00	1.7	0:10	0:00	1.7	0:35	0:00	1.7	0:22
기타 가정관리 돕기	0:00	0.8	0:10	0:00	0.8	0:30	0:00	0.8	0:20

5) 교제 및 여가활동

만 3세 교제 및 여가활동의 1일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놀이가 2시간 9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미디어 이용은 1시간 26분이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22분, 교제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8분,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에는 6분,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에는 3분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놀이중에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51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책읽기가 26분, 놀이터 이용이 22이었다. 미디어 이용에서는 TV시청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 12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컴퓨터 이용시간으로 6분이었다. 즉 유아들은 미디어 중에서 TV와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제활동에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3분이었고, 가족 외 친척과 보내는 시간은 1분으로 시간사용이 많지 않았다.

행위자 비율은 놀이와 미디어 이용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각 2시간 14분, 1시간 33분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사용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놀이는 주중은 1시간 36분, 주말은 2시간 42분으로 주말의 놀이시간이 1시간 정도 많았다. 놀이 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경우는 주중에는 36분, 주말에는 1시간 5분이었고, 놀이터 이용의 경우는 주중 16분, 주말 28분이었

다. 미디어 이용시간의 경우는 주중에는 1시간 2분, 주말에는 1시간 50분이었고, 미디어 시청 중에서 TV시청을 하는 시간은 주중에는 52분, 주말에는 1시간 33분, 핸드폰 스마트폰 이용은 주중에는 3분, 주말에는 7분으로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있었다.

〈표 V-3-22〉 만 3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행동영역	단위: 시간, 분, %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교제 및 여가활동	2:51	100.0	2:51	6:29	100.0	6:29	4:40	100.0	4:40
교제활동	0:04	12.7	0:36	0:12	27.1	0:47	0:08	19.9	0:43
가족과 시간보내기	0:03	11.0	0:31	0:03	12.7	0:29	0:03	11.9	0:30
가족 외 친척과 시간보내기	0:00	0.0	0:00	0:03	10.2	0:33	0:01	5.1	0:33
가족/ 친척 외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0:01	0.8	2:00	0:03	6.8	0:50	0:02	3.8	0:57
애완동물과 시간보내기	0:00	0.8	0:10	0:02	5.1	0:46	0:01	3.0	0:41
미디어 이용	1:02	87.3	1:11	1:50	96.6	1:53	1:26	91.9	1:33
tv시청	0:52	81.4	1:04	1:33	93.2	1:40	1:12	87.3	1:23
핸드폰/스마트 폰 이용	0:03	8.5	0:36	0:07	13.6	0:55	0:05	11.0	0:47
컴퓨터 이용	0:05	11.0	0:50	0:06	10.2	1:05	0:06	10.6	0:57
CD, TAFE, MP3, 라디오 이용	0:01	5.1	0:31	0:02	6.8	0:36	0:02	10.6	0:57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	0:00	0.8	0:10	0:06	7.6	1:28	0:03	4.2	1:21
문화/스포츠관람/ 행사참여 활동	0:00	0.0	0:00	0:12	10.2	2:06	0:06	5.1	2:0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0:02	6.8	0:40	0:42	43.2	1:38	0:22	25.0	1:30
걷기/산책	0:01	5.1	0:33	0:11	19.5	1:00	0:06	12.3	0:54
스포츠 활동	0:00	0.8	0:40	0:05	9.3	1:00	0:03	5.1	0:59
아웃도어 활동	0:00	0.8	1:20	0:25	18.6	2:15	0:12	9.7	2:12
놀이	1:36	94.9	1:42	2:42	98.3	2:45	2:09	96.6	2:14
장난감 가지고 놀기	0:36	61.9	0:59	1:05	82.2	1:19	0:51	72.0	1:10
장난감 없이 놀기	0:09	25.4	0:37	0:17	28.8	1:01	0:13	27.1	0:50
기타 놀이활동	0:04	12.7	0:33	0:10	23.7	0:45	0:07	27.1	0:50
놀이터 이용	0:16	30.5	0:55	0:28	44.1	1:04	0:22	37.3	1:00
예술경험 놀이 (미술/음률활동)	0:04	13.6	0:34	0:12	28.0	0:43	0:08	20.8	0:40
책읽기	0:24	62.7	0:39	0:27	56.8	0:49	0:26	59.7	0:43
따라가기	0:03	9.3	0:35	0:36	50.0	1:12	0:19	29.7	1:06
이무것도 안하고 쉼	0:01	10.2	0:15	0:06	17.8	0:34	0:03	14.0	0:27
기타 여가관련행동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주중 2분, 주말 42분으로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다. 한편 문화/스포츠관람/행사참여 활동은 주중 0분, 주말 12분이었고,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은 주중 0분, 주말 6분으로 모두 주말에만 시간사용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만 3세의 경우 교제 및 여가 활동은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주중과 주말 모두 놀이와 미디어 이용에서 87%~98%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주중보다 주말에 약 4%~9% 정도 주말이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을 보면 놀이는 주중 1시간 42분, 주말 2시간 45분으로 주말이 1시간 정도 많았으며, 미디어 이용은 주중이 1시간 11분, 주말이 1시간 53분으로 40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있어서는 주중에는 6.8%, 주말에는 43.2%로 많은 차이가 있었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1시간 정도 주말이 많았다. 또한,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도 주중에는 0%, 주말에는 10.2%로 주중과 주말에 많은 차이를 보였고, 행위자 평균시간이 주말 2시간 6분으로 시간사용의 차가 컸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만 3세의 경우 주말에 교제 및 여가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스포츠나 집밖의 레저활동 및 문화 관람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표 V-3-22 참조).

6) 이동하기

만 3세 이동하기 영역의 1일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기타 이동이 28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습 및 대리양육 관련 이동과 따라가기 관련이동이 모두 9분이었다. 놀이 관련이동이 6분, 종교참여, 관람 및 문화 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이 5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은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놀이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의 비율이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20분~40분 내외였다.

주중과 주말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기타이동의 경우 주중에는 20분, 주말에는 36분으로 나타났다.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은 주중에는 18분, 주말에는 0분으로 차이가 있었고, 놀이관련 이동에 있어서는 주중은 3분, 주말은 9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가기 관련이동도 주중에는 2분, 주말에는 15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서 만 3세의 경우 주중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주말에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나 어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표 V-3-23〉 만 3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이동하기	0:46	100.0	0:46	1:22	97.5	1:24	1:04	98.7	1:5
개인유지 관련이동	0:00	2.5	0:20	0:04	22.0	0:21	0:02	12.3	0:21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0:18	95.8	0:18	0:00	1.7	0:40	0:09	48.7	0:19
교제활동 관련 이동	0:00	1.7	0:15	0:5	11.0	0:47	0:02	66.1	0:35
종교참여 관람 및 문화 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	0:00	1.7	0:10	0:10	26.3	0:39	0:05	14.0	0:37
놀이 관련 이동	0:03	29.7	0:13	0:09	52.5	0:17	0:06	41.1	0:15
따라가기 관련 이동	0:02	12.7	0:19	0:15	50.0	0:31	0:09	31.4	0:29
기타 이동하기	0:20	100.0	0:20	0:36	94.9	0:38	0:28	97.5	0:29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을 살펴보면, 기타이동의 경우 주중에는 100%, 주말에는 94.9%로 나타났다.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의 경우 행위자 비율을 보면, 주중은 95.8%, 주말은 1.7%로 나타났다. 이는 주중에는 거의 모든 유아들이 학습, 대리양육 관련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 관련이동에 있어서 행위자 비율은 주중 29.7%, 주말 52.5%로 크게 차이가 났고, 주말에는 만 3세 중 반 이상이 놀이 관련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놀이 관련이동의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은 13분, 주말은 17분으로 나타났다. 종교참여, 관람 및 문화 행사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1.7%로 매우 낮았으나 주말에는 26.3%로 4분의 1정도의 유아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10분이었고, 주말에는 39분이었다(표 V-3-24 참조).

7) 기타행동

만 3세 유아들의 기타행동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0시간으로 나타났고 주중과 주말에도 0시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1일 기타행동은 1.3%로 나타났으며, 기타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일일 평균 26분의 시간을 사용했다. 기타 행동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은 0%, 주말은 2.5%였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은 0시간, 주말은 26분이었다(표 V-3-24 참조).

〈표 V-3-24〉 만 3세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기타행동	0:00	0.0	0:00	0:00	2.5	0:26	0:00	1.3	0:26

라. 만 4세의 생활시간

만 4세 유아의 1일 평균 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표 V-3-25〉와 같다. 만 4세 유아는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14시간 16분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관련 행동에 4시간 30분을 사용하였다.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시간은 3시간 40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동하는데 1시간 11분, 학습에는 18분을 사용하였다. 각 행동 영역별로 1일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의 비율은 100%, 이동하기의 경우도 98.8%로 거의 모든 만 4세아가 이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5〉 만 4세 생활시간 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2:48	100	12:48	15:45	100	15:45	14:16	100	14:16
학습	0:25	50.4	0:51	0:11	27.3	0:42	0:18	38.8	0:48
대리양육이용하기	7:19	98.3	7:26	0:01	1.7	1:25	3:40	50.0	7:20
가정관리돕기	0:00	5.0	0:20	0:02	12.4	0:24	0:01	8.7	0:22
교제 및 여가활동	2:34	100	2:34	6:26	100	6:26	4:30	100	4:30
이동하기	0:50	100	0:50	1:31	97.5	1:34	1:11	98.8	1:12
기타행동	0:00	1.7	0:20	0:00	0.8	0:30	0:00	1.2	0:23

주중과 주말에 따라 만 4세의 생활시간 사용이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차가 크게 나타났다. 먼저 개인유지 시간은 주중 12시간 48분이었고, 주말에는 15시간 45분이었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은 주중 2시간 34분, 주말 6시간 26분으로 3시간 정도 더 많이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시간을 사용했다. 학습의 경우에는 주중은 25분을 학습하는데 시간을 보냈으며, 주말은 11분으로 주말 보다는 주중 학습시간이 더 많았다. 대리양육 이

용은 주중과 주말 시간이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4세의 경우 주중 평균 7시간 19분을 대리양육에 이용했지만 주말에는 평균 1분으로 차이가 컸다. 이동하기 또한 주중 보다는 주말이 더 높았는데, 영유아들은 주중 50분을 이동하기에 참여한 반면 주말에는 1시간 31분을 이동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였다.

각 행동 영역별로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하기의 행위자 비율이 97.5%~100%로 행위자 비율이 높았으며 주중과 주말 큰 차이는 없었다. 학습의 경우에는 주중 50.4%, 주말 27.3%로 주중 행위자 비율이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도 주중 51분 주말 42분으로 주중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만 4세의 경우 주중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학습을 하는 시간도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경우 주말과 주중 행위자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주중의 경우 98.3%가 대리양육을 이용했지만, 주말에는 평균 1.7%가 대리양육을 이용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에 7시간 26분을 이용하였고, 주말에는 1시간 25분을 이용하여 주말에는 대리양육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며, 대리양육을 이용한 시간도 적었다.

1) 개인유지

만 4세의 1일 평균 개인유지 행동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항목 중 가장 많은 행동을 차지하는 영역은 수면 시간으로 하루 평균 11시간 29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에 1시간 49분을 사용하였고, 개인관리 행동은 57분을 사용하였다. 개인유지 영역의 1일 평균 행동별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면과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행동은 행위자 비율이 100%로 만 4세 모두 참여하고 있었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1일 평균 시간과 동일했다.

주중과 주말별로 개인유지 영역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수면 시간이 주중은 10시간 38분, 주말은 12시간 21분이었으며, 수면 중 밤잠이 주중 10시간 27분, 주말 11시간 19분으로 나타나 주중 보다 주말에 수면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잠 및 졸음도 주중 8분, 주말 1시간으로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컸다. 식사 및 간식의 경우 주중 1시간 14분, 주말은 2시간 24분으로 1시간 이상 더 많았다. 그러나 개인관리의 경우에는 주중 55분, 주말 59분으로 시간 사용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V-3-26〉 만 4세 개인유지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개인유지	12:48	100	12:48	15:45	100	15:45	14:16	100	14:16
수면	10:38	100	10:38	12:21	100	12:21	11:29	100	11:29
밤잠	10:27	100	10:27	11:19	100	11:19	10:53	100	10:53
낮잠·졸음	0:08	9.9	1:25	1:00	65.3	1:33	0:34	37.6	1:31
수면 전·후 관련행동	0:02	10.7	0:20	0:01	9.1	0:15	0:01	9.9	0:17
식사 및 간식	1:14	100	1:14	2:24	100	2:24	1:49	100	1:49
식사하기	0:58	100	0:58	1:52	99.2	1:53	1:25	99.6	1:26
간식먹기	0:15	62.0	0:24	0:31	67.8	0:45	0:23	64.9	0:35
개인관리	0:55	100	0:55	0:59	100	0:59	0:57	100	0:57
개인위생	0:40	100	0:40	0:47	100	0:47	0:44	100	0:44
외모관리	0:14	81.8	0:17	0:12	65.3	0:18	0:13	73.6	0:17
건강관리	0:00	2.5	0:23	0:00	0.0	0:00	0:00	1.2	0:23
개인양육받기	0:00	2.5	0:23	0:00	2.5	0:13	0:00	2.5	0:18
위로받기	0:00	1.7	0:25	0:00	0.8	0:10	0:00	1.2	0:20
훈육받기	0:00	0.8	0:20	0:00	1.7	0:15	0:00	1.2	0:16
기타일상활동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수면과 식사 및 간식하기, 개인 관리는 100%로 차이가 없었고 그 외 개인유지 영역의 행위자 비율도 1%~2% 내외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건강관리와 개인양육 받기의 경우 평균시간은 없었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건강관리는 주중 2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양육 받기는 주중 23분, 주말 13분으로 주중 시간 사용이 더 많았다(표 V-3-26참조).

2) 학습

만 4세 학습영역의 1일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이 8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특기 적성관련 활동 5분, 기타 학습활동에 3분을 사용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학습지 활동이 2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기타 학습활동 11.2%, 특기적성 활동 7.4%,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이 2.9% 순이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특기 적성관련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인 1시간 16분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 학습에 1시간, 학습

지 활동에 35분, 학원 및 기관의 과제활동에 30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 학습의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학습지 활동은 평균 11분, 주말에는 평균 4분으로 주말보다는 주중에 학습지 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특기 적성관련 학습 또한 주중 10분, 주말 1분으로 주중에 더 시간 사용이 많았다. 한편 그 외 학습영역에서는 시간사용이 없거나 1분 정도의 차이만 보였다.

주중과 주말 학습에 참여한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학습지 활동이 33.9%로 주말 11.6%보다 높았다. 그러나 학습지 활동의 행위자 평균시간을 비교해 보면 주중 33분, 주말 40분으로 주말에 학습지 활동의 평균 시간이 더 많았다. 특기 적성관련 활동의 경우에는 주중 13.2%, 주말 1.7%로 주중에 특기 적성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1시간 17분, 주말 1시간 9분으로 나타나 주중 특기 적성활동에 1시간 가량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행위자 비율은 주중 2.5%, 주말 0.8%로 주중에 참여가 더 높았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주중 43분, 주말 1시간 50분으로 주말에 시간 사용이 많았다(표 V-3-27 참조).

〈표 V-3-27〉 만 4세 학습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학습	0:25	50.4	0:51	0:11	27.3	0:42	0:18	38.8	0:48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0:00	2.5	0:26	0:01	3.3	0:32	0:00	2.9	0:30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	0:11	33.9	0:33	0:04	11.6	0:40	0:08	22.7	0:35
멀티미디어 등을 이 용한 온라인 학습	0:01	2.5	0:43	0:00	0.8	1:50	0:00	1.7	1:00
특기 적성관련 활동	0:10	13.2	1:17	0:01	1.7	1:09	0:05	7.4	1:16
각종 교구이용 학습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기타 학습활동	0:02	10.7	0:23	0:03	11.6	0:32	0:03	11.2	0:28

3) 대리양육 이용하기

만 4세 대리양육 이용의 1일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 이용 중 기관 이용은 1일 평균 3시간 40분으로 어린이집이 3시간 13분, 유치원은 26분 이용하였다. 하루 평균 대리양육을 이용한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이용은 50%로 어린이집은 42.6%, 유치원은 7%로 어린이집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행위자 평균시간

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7시간 34분, 유치원에 6시간 17분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중과 주말별로 대리양육 이용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중의 경우 기관이용은 7시간 19분으로 어린이집은 주중 6시간 25분, 유치원은 52분 이용하고 있었으나 주말 기관이용은 거의 없었다. 한편 양육도우미 이용 또한 주중과 주말 시간사용이 없었다.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기관 이용은 98.3%로 주말 1.7% 보다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7시간 26분, 주말 1시간 25분으로 시간사용의 차가 컸다. 기관이용 중 어린이집 이용의 행위자 비율이 주중 84.3%로 주말 0.8%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도 5시간 정도 주중 이용이 더 많았다. 유치원 이용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 14%, 주말 0%로 주중에만 유치원을 이용하였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6시간 17분이었다. 기타 시설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행위자 비율이 0.8%였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1시간, 주말 10분으로 주중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한편 양육도우미의 경우 행위자 비율이 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만 4세의 경우에는 대리양육 이용은 양육도우미 보다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3-28 참조).

〈표 V-3-28〉 만 4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대리양육 이용	7:19	98.3	7:26	0:01	1.7	1:25	3:40	50.0	7:20
기관이용	7:19	98.3	7:26	0:01	1.7	1:25	3:40	50.0	7:20
어린이집	6:25	84.3	7:37	0:01	0.8	2:40	3:13	42.6	7:34
유치원	0:52	14.0	6:17	0:00	0.0	0:00	0:26	7.0	6:17
기타시설	0:00	0.8	1:00	0:00	0.8	0:10	0:00	0.8	0:35
양육도우미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4) 가정관리 돕기

만 4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1일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청소 및 정리돕기 영역에서만 시간사용이 1분 이었다. 행위자 비율은 청소 및 정리 돕기와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가 4.1~4.5% 정도였으며 그 외 영역은 1% 이하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식사 준비 및 정리와 청소 및 정리 돕기에 22분, 기타 가정관리 돕기에 10분 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중과 주말별로 가정관리 돕기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각 가정관리 돕기의 주중 평균시간은 거의 없었다. 주말에는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행동과 청소 및 정리 돕기 행동에서 평균 1분 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중과 주말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의 경우 주말에 5%였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21분이었다. 청소 및 정리 돕기에 참여한 비율은 주말에 7.4%로 가장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25분이었다(표 V-3-29 참조).

〈표 V-3-29〉 만 4세 가정관리 돕기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차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차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차 평균
가정관리 돕기	0:00	5.0	0:20	0:02	12.4	0:24	0:01	8.7	0:22
식사 준비 및 정리 돕기	0:00	3.3	0:22	0:01	5.0	0:21	0:00	4.1	0:22
의류관리 돕기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청소 및 정리 돕기	0:00	1.7	0:10	0:01	7.4	0:25	0:01	4.5	0:22
기타 가정관리 돕기	0:00	0.8	0:10	0:00	0.0	0:00	0:00	0.4	0:10

5) 교제 및 여가활동

만 4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1일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놀이가 하루 평균 1시간 49분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 미디어 이용이 1시간 30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이 26분, 따라가기는 19분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과 놀이 활동 90%이상 참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따라가기 31%,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30.6%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놀이가 1시간 59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이 1시간 52분으로 많았다. 교제 활동 중 가족 친척 외 사람들과 시간보내기와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도 1시간 39분~1시간 49분으로 시간 사용이 많았다.

주중과 주말별로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놀이와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따라가기에서 시간사용의 차가 많았다. 먼저 놀이는 주중 1시간 9분, 주말 2시간 30분으로 1시간 이상 주말에 시간사용이 많았고, 놀이 중 장난감 가지고 놀기가 주중 22분, 주말 52분으로 30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 미디어 이용은 주중 1시간 6분, 주말 1시간 54분으로 주말에 미디어 이용을 더 많이하였다. 미디어 이용 중 tv시청이 주중 57분, 주말 1시간 33분으로 주말에 tv시청 시간이 많았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주중 7분, 주말 45분으로 주말이 더 많았으며, 하위영역인 아웃도어 활동은 주중은 2분으로 나타났으나 주말에는 30분으로 주말에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V-3-30〉 만 4세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시간사용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교제 및 여가활동	2:34	100	2:34	6:26	100	6:26	4:30	100	4:30
교제활동	0:03	13.2	0:23	0:09	19.8	0:47	0:06	16.5	0:38
가족과 시간보내기	0:02	9.9	0:23	0:02	9.1	0:28	0:02	9.5	0:25
가족 외 친척과시간보내기	0:00	1.7	0:15	0:02	7.4	0:34	0:01	4.5	0:30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시간보내기	0:00	0.8	0:20	0:03	3.3	2:00	0:02	2.1	1:39
애완동물과 시간보내기	0:00	2.5	0:16	0:00	1.7	0:25	0:00	2.1	0:20
미디어 이용	1:06	87.6	1:15	1:54	94.2	2:01	1:30	90.9	1:39
tv시청	0:57	83.5	1:08	1:33	90.1	1:44	1:15	86.8	1:27
핸드폰/스마트폰 이용	0:03	9.9	0:35	0:08	16.5	0:49	0:05	13.2	0:44
컴퓨터 이용	0:03	7.4	0:47	0:10	17.4	1:00	0:07	12.4	0:57
CD/TAPE/MP3, 라디오 이용	0:01	5.0	0:35	0:01	7.4	0:26	0:01	6.2	0:30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	0:00	0.8	1:50	0:16	14.9	1:49	0:08	7.9	1:49
문화/스포츠관람/행사참여 활동	0:00	0.0	0:00	0:12	10.7	1:52	0:06	5.4	1:52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0:07	14.0	0:54	0:45	47.1	1:36	0:26	30.6	1:27
걷기/ 산책	0:02	5.8	0:45	0:03	7.4	0:50	0:03	6.6	0:48
스포츠 활동	0:02	7.4	0:40	0:11	22.3	0:52	0:07	14.9	0:49
아웃도어 활동	0:02	1.7	2:04	0:30	23.1	2:09	0:16	12.4	2:09
놀이	1:09	90.1	1:16	2:30	93.4	2:40	1:49	91.7	1:59
장난감 가지고 놀기	0:22	50.4	0:43	0:52	76.0	1:09	0:37	63.2	0:59
장난감 없이 놀기	0:05	15.7	0:36	0:14	29.8	0:47	0:09	22.7	0:43
기타 놀이활동	0:03	9.9	0:30	0:11	22.3	0:49	0:07	16.1	0:43
놀이터 이용	0:11	25.6	0:43	0:26	41.3	1:05	0:19	33.5	0:56
예술경험 놀이 (미술/음률활동)	0:05	14.9	0:37	0:12	27.3	0:46	0:09	21.1	0:43
책읽기	0:21	65.3	0:32	0:32	67.8	0:47	0:26	66.5	0:40
따라가기	0:05	14.0	0:39	0:32	47.9	1:08	0:19	31.0	1:02
아무것도 안하고 쉬	0:01	6.6	0:23	0:04	15.7	0:31	0:03	11.2	0:28
기타 여가관련행동	0:00	0.0	0:00	0:01	1.7	1:04	0:00	0.8	1:05

주중과 주말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위자 비율부터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과 놀이가 87.6%~94.2%로 가장 높았으며, 주중과 주말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주말이 약간 더 높았다. 미디어 이용 중 행위자 비율이 가장 높은 행동은 tv시청으로 주중 83.5%와 주말 90.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에 7% 정도 참여율이 더 높았다. 놀이의 경우에는 책읽기가 주중 65.3%, 주말 67.8%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주중과 주말 참여는 비슷했다. 반면 장난감 놀이와 놀이터 이용의 행위자 비율은 15%~20%로 주말이 더 높았다. 따라가기 영역에서도 주중과 주말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주중은 14%, 주말 47.9%로 주말이 30% 이상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이 주중 0분, 주말 1시간 52분으로 시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났으며, 교제 활동 중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시간보내기도 주중 20분, 주말 2시간으로 시간 차이가 많이 났다. 그 외 미디어 이용과 놀이 중 장난감 가지고 놀기, 따라가기에서도 30분~40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표 V-3-30참조).

6) 이동하기

만 4세 이동하기 영역의 1일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이동하기 중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과 따라가기 관련 이동이 1일 평균 10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문화 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과 놀이 관련 이동이 6분으로 많았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이 51.7%였으며, 그 다음 놀이 관련 이동은 37.2% 따라가기 관련 이동이 34.7%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교제활동과 관련된 이동이 36분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활동 및 종교관련 활동, 관람 및 스포츠 활동 등의 관련 이동에 32분, 따라가기 관련 이동에 29분, 놀이 관련 이동에 17분을 사용하였다.

주중과 주말의 이동하기의 평균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학습, 대리양육 이용 이동의 경우 주중 20분이었으며, 주말은 거의 없었다. 놀이 관련 이동의 경우 주중은 2분, 주말은 10분으로 나타나 주말에 놀이 관련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따라가기 관련 이동도 주말의 평균 시간이 많았는데 주말 17분, 주중 2분으로 주말이 15분 가량 많았다.

주중과 주말 이동하기 영역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이 96.7%로 주말 6.6%보다 더 높았다. 놀이 관련

이동은 주중 21.5%, 주말 52.9%로 주말에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 시간 또한 주중 12분, 주말 19분으로 7분 가량 많았다. 따라가기 이동은 주중 16.5%, 주말 52.9%로 나타나 만 4세의 절반 정도가 주말 따라가기 관련 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 시간은 주중 16분, 주말 32분으로 주말이 16분 가량 많았다(표 V-3-31 참조).

〈표 V-3-31〉 만 4세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

행동영역	단위: 시간, 분, %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이동하기	0:50	100	0:50	1:31	97.5	1:34	1:11	98.8	1:12
개인유지 관련이동	0:00	1.7	0:40	0:04	18.2	0:25	0:02	9.9	0:26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0:20	96.7	0:20	0:00	6.6	0:15	0:10	51.7	0:20
교제활동 관련 이동	0:00	4.1	0:20	0:07	19.0	0:39	0:04	11.6	0:36
종교참여, 관람 및 문화 행사, 스포츠 활동 관련 이동	0:00	3.3	0:15	0:12	36.4	0:33	0:06	19.8	0:32
놀이 관련 이동	0:02	21.5	0:12	0:10	52.9	0:19	0:06	37.2	0:17
따라가기 관련 이동	0:02	16.5	0:16	0:17	52.9	0:32	0:10	34.7	0:29
기타 이동하기	0:22	100	0:22	0:38	97.5	0:39	0:30	98.8	0:31

7) 기타행동

만 4세의 기타행동 시간사용은 1일 평균 시간은 거의 없었으며, 주중과 주말에도 0시간이었다.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1일 기타행동은 1.2%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23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타 행동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은 1.7%, 주말은 0.8%로 나타났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20분, 주말 30분이었다(표 V-3-32 참조).

〈표 V-3-32〉 만 4세 기타행동 영역의 시간사용

행동영역	단위: 시간, 분, %								
	주중			주말			1일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기타행동	0:00	1.7	0:20	0:00	0.8	0:30	0:00	1.2	0:23

4. 요약

행동영역별로 생활시간을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에 사용되는 시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가 15시간 36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개인유지에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2세가 14시간 52분이었고, 4세는 14시간 16분으로 가장 낮았다. 개인유지 각 하위영역의 연령별 행위자 비율은 개인관리,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관리의 행위자 비율은 3세와 4세가 가장 높았고, 건강관리와 개인 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은 1세가 가장 높았다.

학습에 대한 연령별 생활시간은 1일 평균 1세는 4분, 2세는 8분, 3세는 11분, 4세는 18분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에 대한 시간사용이 증가했다. 학습의 연령별 행위자 비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구 이용학습의 행위자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구이용 학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행위자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대략 20분~50분 정도였으나 4세의 온라인 학습과 3세와 4세의 특기 적성활동의 경우 1시간 이상으로 시간사용이 많았다.

대리양육 이용시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가 3시간 40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대리양육 이용에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3세가 3시간 28분이었고, 1세는 2시간 15분으로 가장 적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에 대한 연령별 행위자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대리양육 이용과 각 하위영역 모두 행위자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대리양육 이용의 행위자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하위영역의 기관이용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기관이용의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약 7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나 영유아들이 기관에 머무는 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은 1세가 하루 평균 5시간 3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세와 3세가 각각 4시간 41분과 4시간 40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4세의 경우 평균 4시간 30분으로 연령 중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100%로 전체 영유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하위 영역별로 연령에 따라 행위자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제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먼저 미디어 이용의 경우 2세가 95.1%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활동 참여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는 각각 7.9%, 5.4%로 4세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1세의 경우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과 놀이의 행위자 비율이 각각 35.5%, 97.7%로 가장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1일 평균시간보다 많았으며, 특히 교제활동, 종교활동 참여,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따라가기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생활시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 1세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그 중 수면시간이 가장 많았다. 개인유지 행동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이 많았다. 만 1세 중 놀이에 약 98%, 그 다음 미디어 이용에 약 86%가 참여하고 있었고, 놀이에 2시간 38분, 미디어 이용 행동에 1시간 21분을 사용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는 하루 평균 2시간 15분이었다. 대리양육의 경우 만 1세 중 63.3%가 주중에 대부분 기관을 이용했으며, 주말에는 이용이 거의 없었다. 그 다음은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이 약 58분 정도였으나 학습과 가정관리 돕기 시간사용은 적었다.

만 2세의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수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 교제 및 여가활동, 대리양육 이용 시간이었다. 만 2세 중 82%가 대부분 기관을 이용했으며, 주말에는 이용이 거의 없었다. 이동하기는 학습, 대리양육 관련이동, 놀이 관련 이동, 따라가기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학습과 가정관리 돕기는 매우 적었고 기타행동과 관련된 시간사용은 없었다.

만 3세의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행동에 중 수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서 놀이와 미디어 이용에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는 만 3세 중 약 96%가 주중에 대리양육 기관을 이용했고, 기관을 이용할 경우 7시간 15분 기관에 머물렀다. 이동하기는 교제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놀이 관련 이동의 참여율이 높았다. 학습의 경우 만 3세 중 26.7%가 참여했으며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의 참여율이 15.7%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가정관리 돕기는 2분, 기타 행동은 시간사용이 없었다.

만 4세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행동 중 역시 수면에 11시간 29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제 및 여가관련 행동 중 놀이와 미디어 이용에 약 91% 유아가 참여했다.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시간은 만 4세 중 약 98%가 주중 대리양육

기관을 이용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7시간 26분을 기관에 머물렀다. 이동하기 영역의 시간사용은 학습, 대리양육 관련 이동, 놀이 관련 이동, 따라가기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비율이 높았다. 학습에는 18분을 사용했으며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활동과 기타 학습활동에 참여율이 높았다. 이외에 가정관리 돕기와 기타 행동은 시간사용이 거의 없었다.

결론적으로 만 1~4세의 생활시간을 살펴본 결과 각 연령 모두 개인유지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 중 수면이 많았다. 개인유지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 사용이 많았는데, 그 중 놀이와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가장 많았다.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모두 100%로 모든 영유아가 하루에 한번은 이 영역에 참여했다.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양육도우미보다는 기관이용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기관을 이용할 시 7시간 정도 기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중 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주말 기관이용 비율은 약 2% 또는 그 이하로 매우 낮았다.

한편 연령에 상관없이 영유아들은 하루 평균 1시간 가량 이동하였는데 이동의 목적은 놀이, 따라가기, 학습 또는 대리양육과 관련해서 이동했다. 학습의 경우 만 1세와 만 2세의 경우 하루 평균 10분 미만으로 시간사용이 적었으나, 만 3세와 만 4세의 경우 10분 이상으로 학습에 시간을 사용했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학습은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관련이 가장 많았다.

VI. 영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별 영유아의 생활시간

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가. 개인유지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개인유지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V-1-1>과 같다. 주중 개인유지 평균시간은 취업모 자녀 12시간 45분, 비취업모 자녀 14시간 9분, 주말 취업모 자녀 16시간 1분, 비취업모 자녀 16시간 13분으로 비취업모의 자녀가 주중에는 2시간 30분, 주말에는 12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모두 100%로 각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하였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개인유지의 하위항목인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 평균시간의 경우, 수면은 취업모 자녀 10시간 34분, 비취업모 자녀 11시간 22분, 식사와 간식은 취업모 자녀 1시간 11분, 비취업모 자녀 1시간 41분, 개인관리는 취업모 자녀 57분이었고, 비취업모 자녀 1시간 2분이었으며,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은 0분~1분으로 거의 시간 사용이 없었다. 취업모 자녀와 비취업모 자녀의 평균시간의 차이는 수면, 식사와 간식은 30분정도 비취업모 자녀가 많았으나 그 외 항목은 5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의 경우 99.3~100%로 나타나 전체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이외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행위자 비율이 약 2~3% 정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행위자 평균시간은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더 많았다.

주말 평균시간의 경우, 수면은 취업모 자녀 12시간 31분, 비취업모 자녀 12시간 39분, 식사와 간식은 취업모 자녀 2시간 26분, 비취업모 자녀 2시간 29분, 개인관리는 취업모 자녀 1시간 2분이었고, 비취업모 자녀 1시간 1분이었으며,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은 0분~1분으로 거의 시간 사용이 없었다. 취업모 자녀와 비취업모 자녀의 평균시간의 차이는 수면 8분, 식사와 간식은 3

분 비취업모 자녀가 더 많았으며, 그 외 항목은 1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은 수면, 식사 및 간식의 경우 99.1%~100%로 나타나 전체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 시간은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개인관리,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행위자 비율이 약 1.2~3.5% 정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행위자 평균시간도 개인관리 영역을 제외하고 취업모 자녀가 더 적었다.

〈표 VI-1-1〉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개인유지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주중						주말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A	B	C	A	B	C	A	B	C	A	B	C
개인유지	12:45	100	12:45	14:09	100	14:09	16:01	100	16:01	16:13	100	16:13
χ^2	-						-					
수면	10:34	100	10:34	11:22	100	11:22	12:31	100	12:31	12:39	100	12:39
χ^2	-						-					
식사·간식	1:11	99.5	1:12	1:41	99.6	1:41	2:26	100	2:26	2:29	100	2:29
χ^2	0.04						-					
개인관리	0:57	99.5	0:57	1:02	99.3	1:02	1:02	99.1	1:03	1:01	99.6	1:02
χ^2	0.120						0.68*					
건강관리	0:01	2.3	0:48	0:01	4.9	0:37	0:00	0.9	0:30	0:01	2.1	0:51
χ^2	2.30*						1.10*					
개인양육받기	0:00	1.9	0:20	0:00	3.9	0:19	0:00	2.8	0:20	0:01	6.3	0:21
χ^2	1.72*						3.40**					
기타일상활동	0:00	0.9	0:50	0:01	3.9	0:30	0:00	0.9	0:20	0:00	2.1	0:30
χ^2	4.21**						1.10*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 $p < .05$, ** $p < .01$

나. 학습

모 취업여부에 따른 학습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V-1-2>와 같다. 주중 학습 평균시간은 취업모 자녀 11분, 비취업모 자녀 15분, 주말 취업모 자녀 7분, 비취업모 자녀 6분으로 주중은 비취업모 자녀가 4분, 주말은 취업모 자녀가 1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주중에 취업모 자녀가

26.4%, 비취업모 자녀가 32.4%로 비취업모 자녀가 약 6%정도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 비취업모 자녀가 2분, 주말은 취업모 자녀가 5분 더 많이 시간을 사용하였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학습의 하위항목인 학원 및 기관과제활동, 학습지 활동, 온라인 학습, 특기적성학습, 교구이용학습, 기타학습활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 평균시간의 경우, 학습지활동 5분, 특기적성학습 3분이었으며, 이는 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했다. 이외 학원 및 기관과제활동, 온라인학습, 교구이용학습은 0분~1분으로 거의 시간 사용이 없었다. 취업모 자녀와 비취업모 자녀의 평균시간의 차이는 동일하거나 1분정도로 거의 없었다. 행위자 비율은 학원 및 기관과제활동, 특기적성학습, 교구이용학습, 기타 학습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행위자 비율이 약 1~3% 정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온라인학습과 특기적성학습은 취업모 자녀, 그 외 하위항목은 비취업모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주말 평균시간의 경우, 모든 하위항목에서 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0분~3분으로 거의 시간 사용이 없었으며 시간차이도 동일하거나 3분 이내 수준이었다. 행위자 비율은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 특기적성학습, 기타 학습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약 1%~4%가량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학습지 활동, 온라인학습, 기타학습활동은 취업모 자녀,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 특기적성학습, 교구이용학습은 비취업모 자녀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표 VI-1-2〉 모 취업여부에 따른 학습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주중						주말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A	B	C	A	B	C	A	B	C	A	B	C
학습	0:11	26.4	0:44	0:15	32.4	0:46	0:07	17.6	0:44	0:06	17.6	0:39
χ^2	2.12*						0.00					
학원 및 기관과제활동	0:00	0.5	0:20	0:00	1.4	0:25	0:00	0.5	0:30	0:00	1.4	0:32
χ^2	1.11*						1.11*					

(표 VI-1-2 계속)

행동 영역	주중						주말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A	B	C	A	B	C	A	B	C	A	B	C
학습지활동	0:05	17.1	0:31	0:05	17.6	0:32	0:02	6.5	0:38	0:02	7.4	0:34
χ^2	0.02						0.16					
온라인학습	0:00	0.5	1:10	0:00	0.7	0:30	0:00	0.5	1:50	0:00	0.4	0:30
χ^2	0.12						0.04					
특기 적성 학습	0:03	4.2	1:27	0:03	6.0	1:01	0:00	0.0	0:00	0:00	0.7	1:10
χ^2	0.82*						1.53*					
교구이용학습	0:00	0.0	0:00	0:01	2.8	0:45	0:00	1.9	0:45	0:01	2.1	0:50
χ^2	5.18**						0.04					
기타학습활동	0:02	6.9	0:30	0:03	9.5	0:41	0:03	10.6	0:36	0:02	6.7	0:33
χ^2	1.05*						2.50*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 $p < .05$, ** $p < .01$

다. 대리양육 이용

모 취업여부에 따른 대리양육 이용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V-1-3>과 같다. 주중 대리양육 이용 평균시간은 취업모 자녀 8시간, 비취업모 자녀 4시간 51분, 주말 취업모 자녀 4분, 비취업모 자녀 1분으로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보다 주중은 3시간정도, 주말은 3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행위자 비율도 주중 취업모 자녀 97.7%, 비취업모 자녀 74.3%, 주말 취업모 자녀 1.9%, 비취업모 자녀 0.4%로 주중과 주말 모두 취업모 자녀가 대리양육 이용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은 취업모 자녀가 1시간 40분, 주말은 비취업모 자녀가 4시간 30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중 평균시간은 기관이용 취업모 자녀 7시간 58분, 비취업모 자녀 4시간 51분, 양육도우미 취업모 자녀 1분, 비취업모 자녀 0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은 기관이용, 양육도우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관이용은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23%정도, 양육도우미는 5%정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주말 평균시간은 기관이용 취업모 자녀 4분, 비취업모의 자녀는 1분이었으며, 양육도우미 이용은 없었다. 행위자 비율은 기관이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1.5%정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표 VI-1-3> 모 취업여부에 따른 대리양육 이용하기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주중						주말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A	B	C	A	B	C	A	B	C	A	B	C
대리양육이용	8:00	97.7	8:11	4:51	74.3	6:32	0:04	1.9	4:15	0:01	0.4	8:50
χ^2	50.98***						2.79**					
기관이용	7:58	97.7	8:10	4:51	74.3	6:32	0:04	1.9	4:15	0:01	0.4	8:50
χ^2	50.98***						2.79**					
양육도우미	0:01	0.5	5:30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χ^2	1.32*						-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 또는 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 $p < .05$, ** $p < .01$, *** $p < .001$

라. 교제 및 여가활동

모 취업여부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V-1-4>와 같다. 주중 교제 및 여가활동 평균시간은 취업모 자녀 2시간 16분, 비취업모 자녀 3시간 51분, 주말 취업모 자녀 6시간 18분, 비취업모 자녀 6시간 17분으로 주중은 비취업모 자녀가 1시간 25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주말은 비슷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모두 100%로 각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하였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하위항목별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 평균시간의 경우, 놀이 취업모 자녀 1시간 11분, 비취업모 자녀 2시간 7분, 미디어이용은 취업모 자녀 53분, 비취업모 자녀 1시간 16분,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따라가기, 아무것도 안하고 쉼의 시간은 10분 이내였으며, 모두 비취업모 자녀의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이외 종교참여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기타여가관련행동 시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 비율은 종교활동참여, 기타여가관련행동은 0.7%, 교제활동 6%, 따라가기는 13.2%정도 비취업모 자녀의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교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하위항목에서 비취업모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표 VI-1-4〉 모 취업여부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A	B	C	A	B	C	A	B	C	A	B	C
교제 및 여가활동	2:16	100	2:16	3:51	100	3:51	6:18	100	6:18	6:17	100	6:17
χ^2	-						-					
교제활동	0:02	10.6	1:00	0:05	16.5	0:30	0:10	20.4	0:52	0:09	22.5	0:43
χ^2	3.55**						0.34					
미디어 이용	0:53	87.5	1:00	1:16	89.4	1:25	1:41	94.0	1:48	1:49	92.6	1:58
χ^2	0.50						0.37					
종교활동참여	0:00	0.0	0:00	0:00	0.7	1:00	0:11	12.0	1:33	0:10	10.2	1:38
χ^2	1.53*						0.42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	0:00	0.0	0:00	0:00	0.0	0:00	0:11	8.3	2:14	0:07	6.7	1:56
χ^2	-						0.48*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03	9.7	0:39	0:10	20.4	0:52	0:41	41.2	1:40	0:38	45.4	1:25
χ^2	10.56						0.89*					
놀이	1:11	93.5	1:16	2:07	94.4	2:15	2:41	96.8	2:47	2:46	96.5	2:52
χ^2	0.16						0.03					
따라가기	0:03	9.7	0:35	0:08	22.9	0:39	0:34	45.8	1:14	0:29	43.0	1:07
χ^2	14.93***						0.41					
아무것도안하고쉬	0:01	9.7	0:19	0:02	8.1	0:25	0:05	16.2	0:33	0:05	15.5	0:35
χ^2	0.40						0.05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	0:00	0:00	0.7	0:25	0:00	0.9	1:05	0:00	1.8	0:38
χ^2	1.53*						0.62*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 또는 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 $p < .05$, ** $p < .01$, *** $p < .001$

주말 평균시간의 경우, 놀이는 취업모 자녀 2시간 41분, 비취업모 자녀 2시간 46분, 미디어이용은 취업모 자녀 1시간 41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취

업모 자녀 41분, 비취업모 자녀 38분, 따라가기는 취업모 자녀 34분, 비취업모 자녀 29분으로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각 항목에서 4분~8분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 교제활동, 종교참여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아무것도 안하고 쉽의 이용시간은 10분 내외였으며, 기타여가관련행동 시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 비율은 관람 및 문화행사는 1.6% 취업모 자녀가 높았으나,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4.2%, 기타여가관련행동은 0.9% 비취업모 자녀가 높았으며, 각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교제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따라가기, 기타여가관련행동은 취업모 자녀, 미디어이용, 종교참여활동, 놀이, 아무것도 안하고 쉽은 비취업모 자녀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2. 모 양육행동에 따른 생활시간

가. 개인유지

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개인유지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V-2-1>, <표 V-2-2>와 같다. 주중 개인유지 평균시간은 방임형 자녀 13시간 46분, 적대형 자녀 13시간 40분, 민주형 자녀 13시간 30분, 통제형 자녀 13시간 22분이었으며 주말은 방임형 자녀 16시간 14분, 통제형 자녀 16시간 8분, 적대형 자녀 16시간 5분, 민주형 자녀 16시간 1분이었다. 주중과 주말 모두 방임형 자녀가 개인유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행위자 비율은 각 양육행동 모두 100%로서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했다. 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개인유지의 하위 항목별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 평균시간의 경우, 모 양육행동별 수면은 10시간 51분~11시간 17분 정도, 식사와 간식은 1시간 24분~1시간 32분, 개인관리 52분~1시간 3분을 보내고 있었으며, 수면은 방임형 자녀, 식사와 간식은 적대형 자녀, 개인관리는 민주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 항목은 2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은 개인관리는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자녀 100%, 방임형 자녀 97.5%, 건강관리는 민주형 자녀 2.9%, 통제형 자녀 1%, 적대형 자녀 4.6%, 방임형 자녀 8.4%, 기타 일상활동은 민주형 자녀 4.3%, 통제형 자녀 1%, 적대형 자녀 0%, 방임형 자녀 6.7%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개인관리는 방임형 자녀가 가장

적은 비율로 참여하나, 건강관리와 기타일상활동은 방임형 자녀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 하위항목별로 모 양육행동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 V-2-1〉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중 개인유지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 중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방임형		
	A	B	C	A	B	C	A	B	C	A	B	C
개인유지	13:30	100	13:30	13:22	100	13:22	13:40	100	13:40	13:46	100	13:46
χ^2	-											
수면	10:51	100	10:51	10:54	100	10:54	11:04	100	11:04	11:17	100	11:17
χ^2	-											
식사 및 간식	1:31	100	1:31	1:24	99.5	1:24	1:32	100	1:32	1:30	99.2	1:31
χ^2	1.34											
개인관리	1:03	100	1:03	1:02	100	1:02	1:01	100	1:01	0:52	97.5	0:54
χ^2	9.66*											
건강관리	0:00	2.9	0:30	0:00	1.0	1:35	0:01	4.6	0:36	0:02	8.4	0:33
χ^2	11.64**											
개인양육받기	0:01	4.3	0:23	0:00	2.5	0:20	0:00	1.8	0:20	0:00	4.2	0:16
χ^2	1.73											
기타일상활동	0:01	4.3	0:36	0:00	1.0	0:35	0:00	0.0	0:00	0:02	6.7	0:32
χ^2	13.82**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 또는 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 $p < .05$, ** $p < .01$

주말 평균시간의 경우, 모 양육행동별 수면은 12시 18분~12시 45분 정도, 식사와 간식은 2시간 25분~2시간 33분, 개인관리 59분~1시간 9분을 보내고 있었으며, 수면은 방임형 자녀, 식사와 간식은 적대형 자녀, 개인관리는 민주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 항목은 1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은 각 하위항목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 하위항목별로 모 양육행동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 V-2-2>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말 개인유지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말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방임형		
	A	B	C	A	B	C	A	B	C	A	B	C
개인유지	16:01	100	16:01	16:08	100	16:08	16:05	100	16:05	16:14	100	16:14
χ^2	-											
수면	12:18	100	12:18	12:40	100	12:40	12:27	100	12:27	12:45	100	12:45
χ^2	-											
식사 및 간식	2:30	100	2:30	2:25	100	2:25	2:33	100	2:33	2:26	100	2:26
χ^2	-											
개인관리	1:09	100	1:09	1:00	100	1:00	1:03	99.1	1:03	0:59	98.3	1:00
χ^2	4.16											
건강관리	0:00	2.9	0:30	0:00	1.5	0:33	0:00	0.9	1:20	0:01	1.7	1:05
χ^2	1.09											
개인양육받기	0:00	5.8	0:22	0:00	3.4	0:22	0:01	3.7	0:27	0:01	7.6	0:16
χ^2	3.26											
기타일상활동	0:00	2.9	0:30	0:00	1.0	0:30	0:00	0.0	0:00	0:00	3.4	0:25
χ^2	5.34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 또는 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나. 학습

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학습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표 V-2-3>, <표 V-2-4>와 같다. 주중 학습 평균시간은 민주형 자녀와 적대형 자녀 16분, 방임형 자녀 15분, 통제형 자녀 10분, 주말은 민주형 자녀 11분, 적대형 자녀 4분, 방임형 자녀 6분, 통제형 자녀 7분으로 민주형 자녀가 주중과 주말 모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주중은 적대형 자녀, 주말은 민주형 자녀가 가장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양육행동에 따라 주중은 3~10분정도, 주말은 5~20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학습의 하위항목인 학원 및 기관과제활동, 학습지 활동, 온라인 학습, 특기적성학습, 교구이용학습, 기타학습활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 평균시간의 경우, 학습지 활동은 민주형 자녀 7분, 통제형과 적대형 자녀 5분, 방임형 자녀 4분, 특기적성 학습은 민주형과 통제형 자녀 2분, 적대형 자녀 3분, 방임형 자녀 6분이었으며,

이외 하위항목의 시간은 나타나지 않았거나 대체적으로 2~3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은 하위항목 중 모 양육행동에 관계없이 학습지활동이 가장 높았으며, 양육행동에 따라 각 하위항목별로 행위자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모 양육행동에 관계없이 특기적성학습 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양육행동에 따른 각 하위항목별 행위자 평균시간의 차이는 2분~50분까지 하위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V-2-3〉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중 학습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방임형		
	A	B	C	A	B	C	A	B	C	A	B	C
학습	0:16	31.9	0:50	0:10	25.6	0:40	0:16	37.6	0:43	0:15	28.6	0:52
χ^2	5.11											
학원 및 기관 과제활동	0:00	1.4	0:30	0:00	0.0	0:00	0:00	1.8	0:30	0:00	1.7	0:15
χ^2	3.52											
학습지활동	0:07	18.8	0:42	0:05	19.2	0:29	0:05	18.3	0:31	0:04	12.6	0:32
χ^2	2.54											
온라인학습	0:00	1.4	0:30	0:00	0.0	0:00	0:00	1.8	0:50	0:00	0.0	0:00
χ^2	5.57											
특기적성 학습	0:02	2.9	1:35	0:02	4.4	1:01	0:03	5.5	0:59	0:06	7.6	1:21
χ^2	2.35											
교구이용학습	0:00	1.4	0:50	0:00	0.5	0:40	0:00	0.9	0:30	0:02	4.2	0:48
χ^2	7.03											
기타학습활동	0:03	11.6	0:32	0:01	5.4	0:34	0:05	13.8	0:40	0:02	6.7	0:38
χ^2	7.77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주말 평균시간의 경우, 모든 하위항목에서 시간사용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대체적으로 4분 이내였으며, 양육행동에 따른 차이도 동일하거나 3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은 하위항목 중 모 양육행동에 관계없이 학습지활동과 기타학습활동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양육행동에 따라 각 하위항목별로 행위자 비율은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 하위항목별로 모 양육행동에 따라 상이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표 V-2-4〉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말 학습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말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방임형		
	A	B	C	A	B	C	A	B	C	A	B	C
학습	0:11	23.2	0:50	0:07	18.2	0:43	0:04	10.1	0:48	0:06	20.2	0:30
χ^2	6.32											
학원 및 기관 과제활동	0:00	1.4	0:30	0:00	1.5	0:33	0:00	0.0	0:00	0:00	0.8	0:30
χ^2	1.74											
학습지활동	0:02	7.2	0:36	0:03	7.9	0:42	0:01	4.6	0:30	0:02	7.6	0:28
χ^2	1.28											
온라인학습	0:00	0.0	0:00	0:00	0.5	0:30	0:01	0.9	1:50	0:00	0.0	0:00
χ^2	1.53											
특기적성 학습	0:01	1.4	1:20	0:00	0.0	0:00	0:00	0.9	1:00	0:00	0.0	0:00
χ^2	3.93											
교구이용학습	0:02	4.3	0:56	0:00	1.5	0:36	0:00	0.9	1:20	0:01	2.5	0:40
χ^2	3.04											
기타학습활동	0:04	11.6	0:42	0:03	8.9	0:37	0:01	3.7	0:32	0:02	10.1	0:25
χ^2	4.58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다. 대리양육 이용

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대리양육 이용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V-2-5>, <표 V-2-6>과 같다. 주중 대리양육 이용 평균시간은 통제형 자녀 6시간 42분, 방임형 자녀 5시간 58분, 민주형 자녀 5시간 56분, 적대형 자녀 5시간 45분, 주말은 방임형 자녀 7분, 적대형 자녀 5분, 통제형과 민주형 자녀는 0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은 주중은 통제형 자녀 90.1%, 민주형 자녀 81.2%, 적대형 자녀 81.7%, 방임형은 자녀 79%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주말은 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행위자 비율은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방임형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모의 양육행동별 행위자 시간의 차이는 주중은 7분~30분, 주말은 약 8시간까지 나타났다.

주중 평균시간의 경우, 기관이용은 통제형 자녀 6시간 41분, 방임형 자녀 5시간 58분, 민주형 자녀 5시간 56분, 적대형 자녀 5시간 45분이었으며, 양육도우미는 통제형 자녀 1분, 나머지는 모두 0분이었다. 행위자 비율은 대리양육과 동일

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양육도우미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도 모의 양육행동별 대리양육 행위자 시간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주말 모 양육행동별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은 모두 주말 기관이용과 동일하였으며, 양육도우미 이용은 없었다.

〈표 V-2-5〉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중 대리양육 이용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방임형		
	A	B	C	A	B	C	A	B	C	A	B	C
대리양육이용	5:56	81.2	7:18	6:42	90.1	7:26	5:45	81.7	7:02	5:58	79.0	7:33
χ^2	8.91*											
기관이용	5:56	81.2	7:18	6:41	90.1	7:25	5:45	81.7	7:02	5:58	79.0	7:33
χ^2	8.91*											
양육도우미	0:00	0.0	0:00	0:01	0.5	5:30	0:00	0.0	0:00	0:00	0.0	0:00
χ^2	1.47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 $p < .05$

〈표 V-2-6〉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말 대리양육 이용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말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방임형		
	A	B	C	A	B	C	A	B	C	A	B	C
대리양육이용	0:00	1.4	0:10	0:00	0.0	0:00	0:05	1.8	4:55	0:07	1.7	7:55
χ^2	3.52											
기관이용	0:00	1.4	0:10	0:00	0.0	0:00	0:05	1.8	4:55	0:07	1.7	7:55
χ^2	3.52											
양육도우미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χ^2	-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 또는 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라. 교제 및 여가활동

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V-2-7>, <표 V-2-8>과 같다. 주중 교제 및 여가활동 평균시간은 적대형 자녀 3시간 29분, 민주형 자녀 3시간 25분, 방임형 자녀 3시간 11분, 통제형 자녀 2시간 53분, 주말은 민주형과 통제형 자녀 6시간 21분, 적대형 자녀 6시간

18분, 방임형 자녀 6시간 10분으로 주중은 적대형 자녀, 주말은 민주형과 통제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행위자 비율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각 양육행동별 100%로서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했다.

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하위항목별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 평균시간의 경우, 하위항목 중 놀이와 미디어 이용은 모의 양육행동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놀이는 민주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시간량은 1시간 31분~2시간, 미디어 이용은 적대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평균 시간량은 1시간 3분~1시간 12분 정도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별 시간 사용은 모두 10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은 각 하위항목별로 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행위자 평균시간도 모의 양육행동에 관계없이 놀이는 1시간 40분~2시간 정도, 미디어 이용 1시간 10분~1시간 20분정도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V-2-7〉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중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주중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방임형		
	A	B	C	A	B	C	A	B	C	A	B	C
교제 및 여가활동	3:25	100	3:25	2:53	100	2:53	3:29	100	3:29	3:11	100	3:11
교제활동	0:04	13.0	0:32	0:03	11.8	0:25	0:02	13.8	0:19	0:06	18.5	0:35
미디어이용	1:03	85.5	1:14	1:03	88.2	1:12	1:12	89.9	1:20	1:06	89.9	1:14
종교활동참여	0:00	0.0	0:00	0:00	1.0	1:00	0:00	0.0	0:00	0:00	0.0	0:00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0:00	0.0	0:00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07	21.7	0:33	0:07	13.8	0:55	0:05	11.9	0:48	0:10	19.3	0:51
놀이	2:00	97.1	2:04	1:31	93.1	1:38	1:58	96.3	2:03	1:39	91.6	1:48
따라가기	0:09	23.2	0:40	0:04	13.8	0:35	0:08	21.1	0:41	0:05	16.0	0:36
아무것도안하고 쉬	0:00	4.3	0:10	0:02	12.3	0:22	0:01	4.6	0:24	0:02	9.2	0:26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	0:00	0:00	0.5	0:30	0:00	0.0	0:00	0:00	0.8	0:20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 또는 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주말 평균시간의 경우, 놀이는 민주형 자녀, 미디어 이용은 적대형 자녀,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따라가기는 통제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시간량은 놀이는 2시간 34분~3시간 7분, 미디어 이용은 1시간 25분~2시간 4분, 스포츠 및 레저활동은 28분~46분, 따라가기는 29분~32분이었으며, 이외 항목은 10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은 기타여가관련행동에서 민주형 1.4%, 통제형 0%, 적대형 0.9%, 방임형 4.2%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놀이는 2시간 30분~3시간 정도,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는 2시간 내외, 미디어 이용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였다.

〈표 V-2-8〉 모 양육행동에 따른 주말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주말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			방임형		
	A	B	C	A	B	C	A	B	C	A	B	C
교제 및 여가활동	6:21	100	6:21	6:21	100	6:21	6:18	100	6:18	6:10	100	6:10
χ^2	-											
교제활동	0:09	24.6	0:37	0:08	16.3	0:54	0:16	28.4	0:56	0:07	22.7	0:33
χ^2	6.89											
미디어 이용	1:25	89.9	1:35	1:37	93.1	1:44	2:04	95.4	2:10	1:57	93.3	2:06
χ^2	2.06											
종교활동 참여	0:12	13.0	1:33	0:12	11.8	1:43	0:11	11.9	1:40	0:05	7.6	1:11
χ^2	1.97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7	5.8	2:12	0:10	8.4	2:05	0:09	8.3	2:00	0:07	5.9	2:05
χ^2	1.0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43	50.7	1:26	0:46	46.8	1:39	0:28	37.6	1:15	0:37	39.5	1:34
χ^2	4.67											
놀이	3:07	97.1	3:13	2:45	96.1	2:52	2:34	97.2	2:39	2:37	96.6	2:43
χ^2	0.37											
따라가기	0:31	42.0	1:15	0:32	44.3	1:12	0:29	42.2	1:08	0:31	47.1	1:06
χ^2	0.70											
아무것도안하고 쉬	0:03	11.6	0:30	0:07	19.7	0:39	0:03	14.7	0:23	0:04	12.6	0:35
χ^2	4.26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1.4	1:00	0:00	0.0	0:00	0:00	0.9	1:00	0:01	4.2	0:40
χ^2	9.83*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 또는 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 $p < .05$

3.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가. 개인유지

성별에 따른 개인유지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표 VI-3-1>과 같다. 주중 개인유지 평균시간은 남아 13시간 32분, 여아 13시간 33분으로 여아가 1분 더 많았으며, 주말 평균시간은 남아 16시간 6분, 여아 16시간 10분으로 여아가 4분 더 많았다. 행위자 비율은 주중, 주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100%로 주중과 주말 각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했다.

성별에 따라 개인유지의 하위 항목인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의 경우, 수면 평균시간은 남아 11시간 3분, 여아 10시간 59분, 식사와 간식 평균시간은 남아 1시간 26분, 여아 1시간 30분, 개인관리 평균시간은 남아 59분, 여아 1시간, 건강관리와 개인양육 받기, 기타 일상활동의 평균시간은 0분~1분으로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남아와 여아의 평균시간의 차이는 5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의 경우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의 경우 99.2%~100%로 나타나 전체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이외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시간의 행위자 비율은 모두 5%이하로 나타나 많은 영유아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1~2%정도 약간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건강관리와 기타 일상활동은 남아, 개인 양육받기는 여아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10분 이내였다.

주말의 경우, 수면 평균시간은 남아 12시간 37분, 여아 12시간 34분, 식사와 간식 평균시간은 남아 2시간 25분, 여아 2시간 30분, 개인관리 평균시간은 남아 1시간, 여아 1시간 3분으로, 건강관리와 개인양육 받기, 기타 일상활동의 평균시간은 0분~1분으로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남아와 여아의 평균시간의 차이는 5분 이내였다. 행위자 비율의 경우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의 경우 99.2%~100%로 나타나 전체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이외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시간의 행위자 비율은 모두 5%내외로 나타나 많은 영유아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높거나 동일했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기타 일상활동은

남아, 건강관리와 개인양육받기는 여아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6분 이내였다. 그러나 주중과 주말 성별에 따른 개인유지 영역 및 하위항목의 유의도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행위자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3-1〉 성별에 따른 개인유지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영역	주중						주말					
	남아			여아			남아			여아		
	A	B	C	A	B	C	A	B	C	A	B	C
개인유지	13:32	100	13:32	13:33	100	13:33	16:06	100	16:06	16:10	100	16:10
χ^2	-						-					
수면	11:03	100	11:03	10:59	100	10:59	12:37	100	12:37	12:34	100	12:34
χ^2	-						-					
식사 및 간식	1:26	99.6	1:26	1:30	99.6	1:31	2:25	100	2:25	2:30	100	2:30
χ^2	0.00						-					
개인관리	0:59	99.6	0:59	1:00	99.2	1:01	1:00	99.6	1:01	1:03	99.2	1:04
χ^2	0.39						0.39					
건강관리	0:01	4.3	0:40	0:01	3.3	0:38	0:00	2.0	0:26	0:00	1.2	1:20
χ^2	0.35						0.42					
개인양육받기	0:00	3.9	0:17	0:00	2.0	0:24	0:01	5.5	0:20	0:00	4.1	0:23
χ^2	1.48						0.51					
기타일상활동	0:01	3.9	0:36	0:00	1.2	0:26	0:00	1.6	0:30	0:00	1.6	0:25
χ^2	3.54						0.01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나. 학습

성별에 따른 학습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표 VI-3-2>와 같다. 주중 학습 평균시간은 남아 14분, 여아 12분, 주말 평균시간은 남아 8분, 여아 6분으로 주중 주말 모두 남아가 2분 더 많았다. 행위자 비율은 주중 남아 30.1%, 여아 29.5%,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각 47분, 43분, 주말 남아 18.4%, 여아 16.8%,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각 45분, 36분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이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더 많았다.

성별에 따라 학습의 하위 항목인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 학습지 활동, 온라

인 학습, 특기적성학습, 교구이용학습, 기타 학습활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의 경우, 학습 시간의 하위 영역에서 남아와 여아의 평균시간이 0분~5분이었으며, 각 항목별 남녀의 평균시간이 동일하거나 1분 정도로 거의 유사했다. 행위자 비율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거나 1%가량 차이를 보여 성별에 따라 학습의 평균시간과 행위자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학원 및 기관과제 활동은 남아 25분, 여아 20분, 학습지 활동은 남아 32분, 여아 31분, 온라인 학습은 남아 1시간 10분, 여아 30분, 특기적성학습의 남아 1시간 15분, 여아 1시간 4분, 교구이용학습은 남아 46분, 여아 43분으로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행위자 평균시간사용이 많았다. 이외 기타 학습활동에서는 남아 34분, 여아 39분으로 여아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표 VI-3-2〉 성별에 따른 학습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주중						주말					
	남아			여아			남아			여아		
	A	B	C	A	B	C	A	B	C	A	B	C
학습	0:14	30.1	0:47	0:12	29.5	0:43	0:08	18.4	0:45	0:06	16.8	0:36
χ^2	0.02						0.21					
학원 및 기관 과제활동	0:00	1.6	0:25	0:00	0.4	0:20	0:00	0.8	0:30	0:00	1.2	0:33
χ^2	1.68						0.25					
학습지활동	0:05	17.6	0:32	0:05	17.2	0:31	0:02	7.4	0:38	0:02	6.6	0:33
χ^2	0.01						0.14					
온라인학습	0:00	0.4	1:10	0:00	0.8	0:30	0:00	0.4	1:50	0:00	0.4	0:30
χ^2	0.39						0.00					
특기적성 학습	0:04	5.5	1:15	0:03	4.9	1:04	0:00	0.0	0:00	0:00	0.8	1:09
χ^2	0.08						2.11					
교구이용학습	0:00	2.0	0:46	0:00	1.2	0:43	0:01	2.3	0:48	0:00	1.6	0:47
χ^2	0.42						0.32					
기타학습활동	0:02	8.2	0:34	0:03	8.6	0:39	0:03	9.0	0:40	0:02	7.8	0:27
χ^2	0.03						0.23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주말에도 성별에 관계없이 학습의 하위 항목에서 평균시간이 0분~2분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시간의 차이도 동일하거나 1분 정도로 유사했다. 행

위자 비율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주말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학습지 활동은 남아 38분, 여아 33분, 온라인 학습은 남아 1시간 50분, 여아 30분, 교구 이용학습은 남아 48분, 여아 47분, 기타 학습활동은 남아 40분, 여아 27분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시간 사용이 많았다. 반면 학원 및 기관 과제활동은 남아 30분, 여아 33분, 특기 적성학습은 남아 0분, 여아 1시간 9분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시간사용이 많았다. 그러나 주중과 주말 성별에 따른 학습 영역 및 하위항목의 유의도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행위자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 대리양육 이용

성별에 따른 대리양육 이용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표 VI-3-3>와 같다. 주중의 대리양육 이용 평균시간은 남아 6시간 19분, 여아 6시간 6분으로 남아가 10분 정도 더 많았다. 행위자 비율은 남아 84.8% 여아 84%로 거의 동일했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각 7시간 28분, 7시간 15분이었다. 주말의 경우 평균시간은 남아 1분, 여아 4분, 행위자 비율은 각각 0.4%, 1.6%였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남아 7시간, 여아 4시간 42분이었다.

<표 VI-3-3> 성별에 따른 대리양육 이용시간량과 비율

행동영역	주중						주말					
	남아			여아			남아			여아		
	A	B	C	A	B	C	A	B	C	A	B	C
대리양육이용	6:19	84.8	7:28	6:06	84.0	7:15	0:01	0.4	7:00	0:04	1.6	4:42
χ^2	0.05						1.97					
기관이용	6:19	84.8	7:28	6:04	84.0	7:14	0:01	0.4	7:00	0:04	1.6	4:42
χ^2	0.05						1.97					
양육도우미	0:00	0.0	0:00	0:01	0.4	5:30	0:00	0.0	0:00	0:00	0.0	0:00
χ^2	1.05						-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성별에 따라 대리양육 이용의 하위 항목인 기관이용과 양육도우미 이용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의 경우, 전체 대리양육 이용의 평균시간과 행위자 비율이 동일했으며, 행위자 평균 시간은 남아 7시간 28분, 여아 7시간 14분이었다. 양육도우미 이용은 남아가는 시간사용이

없었으며, 여아의 경우 평균시간은 1분, 행위자 비율은 0.4%, 행위자 평균시간은 5시간 30분이었다.

주말 기관이용의 경우 주말 대리양육 이용의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과 동일했으며, 양육도우미 이용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중과 주말 성별에 따른 대리양육 이용하기 영역 및 하위항목의 유의도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행위자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 교제 및 여가활동

성별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표 VI-3-4>와 같다. 주중 교제 및 여가활동 평균시간은 남아 3시간 4분, 여아 3시간 15분으로, 주말 평균시간은 남아 6시간 23분, 여아 6시간 12분으로 주중은 여아, 주말에는 남아가 11분 정도 평균시간사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행위자 비율은 주중, 주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100%로 주중과 주말 각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동일했다.

성별에 따라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하위 항목인 교제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참여,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놀이, 따라가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 기타 여가관련 행동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의 경우, 미디어 이용의 평균시간은 남아 1시간 3분, 여아 1시간 9분, 놀이의 평균시간은 남아 1시간 41분, 여아는 1시간 45분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행위자 비율의 경우 미디어 이용은 남아 87.1%, 여아 90.2%, 놀이는 남아 93.7%, 여아 94.3%이었으며,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나머지 각 하위항목의 평균시간은 0분~7분으로 시간사용이 다소 적었으며, 각 항목별 평균시간의 차이는 없거나 1분 정도였다. 행위자 비율의 경우 따라가기는 여아가 남아보다 5% 가량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항목은 남녀 동일하거나 1% 정도의 차이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따라가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남아, 교제활동, 기타 여가관련 행동은 여아가 시간 사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주말은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평균시간은 남아 42분, 여아 37분, 놀이의 평균시간은 남아 2시간 47분, 여아 2시간 41분, 따라가기 평균시간은 남아

33분, 여아 29분으로 남아의 시간사용이 여아보다 5분 내외로 많았다. 행위자 비율은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남아 43.4%, 여아 43.9%, 놀이는 남아 96.1%, 여아 97.1%로 여아가 1%정도 약간 높았으나, 따라가기는 남아 46.1%, 여아 42.2%로 남아가 높았다. 행위자 평균시간은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놀이, 따라가기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시간사용이 많았다.

〈표 VI-3-4〉 성별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량과 비율

단위: 시간, 분, %

행동 영역	주중						주말					
	남아			여아			남아			여아		
	A	B	C	A	B	C	A	B	C	A	B	C
교제 및 여가활동	3:04	100	3:04	3:15	100	3:15	6:23	100	6:23	6:12	100	6:12
χ^2	-						-					
교제활동	0:03	14.1	0:25	0:04	13.9	0:31	0:10	22.3	0:47	0:09	20.9	0:47
χ^2	0.00						0.14					
미디어 이용	1:03	87.1	1:12	1:09	90.2	1:17	1:46	93.4	1:54	1:46	93.0	1:54
χ^2	1.15						0.02					
종교활동참여	0:00	0.4	1:50	0:00	0.4	0:10	0:10	11.7	1:27	0:10	10.2	1:45
χ^2	0.00						0.28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0	0.0	0:00	0:00	0.0	0:00	0:08	6.6	2:08	0:10	8.2	2:02
χ^2	-						0.44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07	15.2	0:49	0:07	16.4	0:48	0:42	43.4	1:37	0:37	43.9	1:25
χ^2	0.13						0.01					
놀이	1:41	93.7	1:48	1:45	94.3	1:51	2:47	96.1	2:53	2:41	97.1	2:46
χ^2	0.06						0.41					
따라가기	0:06	14.8	0:40	0:07	19.7	0:36	0:33	46.1	1:12	0:29	42.2	1:09
χ^2	2.05						0.76					
아무것도안하고 쉽	0:02	8.6	0:25	0:01	9.0	0:19	0:05	14.5	0:35	0:05	17.2	0:33
χ^2	0.03						0.72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4	0:20	0:00	0.4	0:30	0:00	0.8	0:50	0:00	2.0	0:44
χ^2	0.00						1.46					

주: 1) χ^2 의 값은 행위자 비율에 대한 검증치임. -는 모든 집단의 행위자 비율이 100%라 집단 간 차이가 없음.

2) A-평균시간, B-행위자 비율, C-행위자 평균

이외 하위항목은 평균 시간사용이 동일하거나 1분 정도 차이였으며, 행위자 비율도 약 1~2% 가량 차이를 보여 거의 동일했다.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교제활동과 미디어 이용은 남아와 여아가 차이가 없었으며,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아무것도 안하고 쉬, 기타 여가 관련 행동은 남아가, 종교활동 참여는 여아가 상대적으로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 그러나 주중과 주말 성별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과 그 하위항목의 유의도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행위자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요약

본 장에서는 모 취업여부 및 양육행동,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개인유지 시간을 살펴보면 비취업모의 자녀가 주중에는 2시간 30분, 주말에는 12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중에는 수면, 식사와 간식시간에 30분 정도, 주말에는 수면 8분, 식사와 간식에 3분 정도를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영역에서 주중, 주말 모두 비취업모 자녀의 참여율이 높았다.

학습 시간의 경우, 주중은 비취업모 자녀가 4분, 주말은 취업모 자녀가 1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별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은 모두 5분 이내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행위자 비율은 학습과 교구이용학습은 주중에, 학원 및 기관과제활동, 특기적성학습, 기타 학습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학습영역에서 참여율이 대부분 더 낮았다.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 기관이용시간이 취업모 자녀 약 8시간, 비취업모 자녀 약 4시간 정도로 취업모 자녀가 4시간 정도 많았으며, 행위자 비율도 주중과 주말 모두 취업모의 자녀가 더 높았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주중은 비취업모 자녀가 1시간 25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주말은 모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하였다.

모의 양육행동의 경우, 개인유지는 주중과 주말 모두 방임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주중은 개인관리영역에서 방임형 자녀가 가장 적은 비율로 참여하나, 건강관리와 기타 일상활동은 방임형 자녀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모 양육행동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 시간은 민주형 자녀가 주중 16분, 주말 11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대리양육 이용의 경우, 주중 행

위자 비율이 통제형 자녀 90.1%, 민주형 자녀 81.2%, 적대형 자녀 81.7%, 방임형 자녀 79%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주중은 적대형 자녀, 주말은 민주형과 통제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위항목 중 놀이와 미디어 이용은 주중과 주말 모두 모의 양육행동에 관계없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놀이는 민주형 자녀, 미디어 이용은 적대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타 주말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따라가기는 통제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주중과 주말 개인유지 시간을 살펴본 결과 주중 개인유지 평균시간은 여아가 약간 높았으나 거의 유사했다. 학습 평균시간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남아가 2분정도 많았다. 대리양육 평균시간의 경우, 주중은 남아, 주말에는 여아의 시간사용이 많았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주중에는 여아가, 주말에는 남아가 11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항목별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행위자 비율이 높을 경우 성별에 따른 항목별 평균시간의 차이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몇몇 하위항목의 경우 남녀의 행위자 평균시간의 차이가 30분~1시간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 행위자 비율이 0%~2% 이내로 매우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VII. 결론 및 정책제언

영유아의 생활시간량,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과 연령별 생활시간의 분석을 통해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파악하고 영유아와 어머니의 제 특성과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1. 결론

가. 영유아의 생활시간

영유아들은 개인유지 행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으며,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관련 행동, 대리양육 이용하기, 이동하기, 학습, 가정관리 돕기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중과 주말의 생활시간 사용은 각 행동영역별로 주중 보다는 주말에 시간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 활동과 이동하기 등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과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경우는 주중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 주말에는 행위 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시간대별로 수면시간은 거의 주중과 주말이 유사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말에 기상시간이 더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식사시간은 주중과 주말의 큰 차이가 없으나 주말 아침은 좀 늦어지고 저녁시간은 약간 빠른 경향을 보였다. 대리양육 시간은 주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율이 7시간 이상 높으나 주말에는 이용율이 거의 없었고, 책읽기 시간은 저녁 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TV시청 시간은 오전과 저녁 시간에 이용율이 높았으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나 걷기/산책 시간 이용은 매우 낮았다.

한편, 영유아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 공유하는 사람들을 확인한 결과, 영유아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과 형제자매 순이었다.

나. 연령별 생활시간

만 1~4세의 생활시간을 살펴본 결과 각 연령 모두 개인유지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으며, 그 중 수면시간이 가장 많았다. 개인유지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 사용이 많았는데, 그 중 놀이와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가장 많았다.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은 모든 영유아가 하루에 한번은 이 영역에 참여했다.

대리양육 이용하기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양육도우미보다는 기관이용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 비율이 높았다. 기관이용의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약 7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나 영유아들이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중 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주말 기관이용 비율은 매우 낮았다.

학습의 경우 만 1세와 만 2세의 경우 하루 평균 10분 미만으로 시간사용이 적었으나, 만 3세와 만 4세의 경우 10분 이상의 시간을 학습에 사용했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학습은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지 관련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에 대한 시간사용이 증가했으며 교구 이용학습의 행위자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구이용 학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행위자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하위 영역별로 연령에 따라 행위자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제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세의 교제활동 및 여가 활동의 이용 시간이 다른 연령에 비해 적었다. 한편, 연령에 상관없이 영유아들은 하루 평균 1시간 가량 이동하였는데 이동의 목적은 놀이, 따라가기, 학습과 대리양육에 관련해서 이동했다.

다. 제 특성별 영유아의 생활시간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 학습, 교제 및 여가활동영역의 시간사용과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주말의 경우 비취업모와 취업모 자녀의 시간사용이 유사하거나 비취업모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하위항목 중 관람 및 문화행사는 취업모 자녀가,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기타 여가관련행동은 비취업모 자녀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개인유지는 주중과 주말 모두 방임형의 자녀가, 학습은 민주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대리양육은 주중에는 통제형 자녀, 민주형 자녀, 적대형 자녀, 방임형 자녀 순으로 이용율이 높았으며, 주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별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이 거의 유사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주중은 적대형 자녀, 주말은 민주형과 통제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놀이는 민주형 자녀, 미디어 이용은 적대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주말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따라가기는 통제형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유아의 성별에 관계없이 주중과 주말 개인유지, 학습, 교제 및 여가활동영역의 시간사용이 거의 유사하였으며 행위자 참여율에도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생활시간과 어머니와 영유아의 제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각 행동영역별 시간사용과 어머니의 행동유형의 패턴, 직·간접적 관련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제언

가. 기본생활습관 형성

1) 수면시간

1~4세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은 소아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수면시간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소아과 의사나 발달학자들이 권장하는 하루 총 수면시간의 경우 18개월 아동이 13-16시간, 24개월이 13-14시간, 36개월이 12시간, 4세가 11시간 30분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대상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부족했으며, 특히 평일의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의 수면시간 부족은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일 경우 낮잠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적게 나타날 수 있으나 1세와 2세의 경우 주말에도 권장수면 시간에 못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수면 중 밤잠의 경우 수면시간이 부족했으며 특히 주중 밤잠 시간이 주말 밤잠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적었다.

본 연구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에서 우리나라 영유아의 수면시간은 권장수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 패턴은 중국, 일본, 대만의 유아

들에 비해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영유아기는 충분한 수면시간이 필요하고, 기본 생활이 일정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수면시간 부족과 주중과 주말의 수면차이가 영아 자신의 이유때문인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부모들의 늦은 귀가와 취침 등 부모의 환경 제반의 요인 때문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은 건강한 신체발달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이후 성인기 생활패턴의 기초가 되므로 부모의 인식변화를 통해 취침 시간을 좀 더 앞당겨 영유아의 수면시간을 늘리고, 주중과 주말의 차이없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수면행동의 습관을 마련해야 한다.

1세, 2세, 3세와 4세의 기본생활 패턴은 달라야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여진 연령별 기본생활 패턴은 매우 유사하며 약간의 시간의 차이만이 보여진다. 연령이 어릴수록 수면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연령간의 수면시간이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나 표준 수면시간에 못 미치고 있다. 수면은 인간 삶의 1/3을 차지하며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신체기능의 회복과 항상성 유지, 에너지 보존과 건강유지에 필수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연령별 기준이 필요하다.

2) 미디어의 이용지도

영유아들의 TV시청은 연령과 상관없이 TV시청에 참여하는 비율이 80% 이상 이었고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들은 1시간 반 가량을 TV시청에 시간을 사용했고, 3세와 4세 보다 1세와 2세가 TV시청의 평균 시간이 더 높았다. 이는 TV에 노출되고 있는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으며, 특히 영아기 TV시청의 심각성을 제시한다. 영유아 시기는 자극에 민감한 시기이며 영아기부터 장시간 미디어에 노출되면 언어발달 저하와 과체중이 될 확률을 높고, 전자매체의 특성상 일방적인 정보전달로 유아를 소극적, 일방적, 의존적으로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교육부 등의 영유아의 교육,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 영유아기부터 오랜시간 전자미디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의 부정적 영향,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연령별 적정 이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문이나 e-book로 제작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홍보하고 부모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신체활동 시간 확보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사용에서 놀이나 스포츠 레저활동, 교제활동, 문화행사 참여 보다는 상대적으로 미디어 이용에 95%에 이르는 많은 영아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사용시간도 1일 평균 1시간 27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TV시청은 주중보다 주말에 TV시청에 참여한 비율과 참여한 영유아들의 평균시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말에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중보다 더 많을 수 있음에도 TV시청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부모-자녀가 함께 교제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주말 가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추측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수동적인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체중증가, 사회성 감소, 공격력 증대 등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확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수동적인 여가활동이 아닌 놀이나 레저활동 등의 능동적, 적극적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습시간과 교구

학습영역의 온라인 학습의 경우 유아 혼자 참여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활용 시 유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 접속되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에 접할 수 있으므로 성인이 꼭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기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오감각을 활용한 체험 위주 학습, 놀이 중심 학습, 실생활 중심의 학습 등이 필요한 시기로 이와 같은 학습 시간 사용실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적절한 학습 방법에 대한 부모의 인식전환 또는 홍보가 요구된다.

영유아의 대부분이 연령에 상관없이 학습지와 특기 적성관련 학습 시간이 다른 학습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유아의 시기는 오감을 통한 사물의 인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때, 영유아의 학습시간 제한과 방법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요구된다. 연령에 맞는 학습방법과 적정 시간을 제시하여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는 탐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학습 유형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교구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하는 비율이 높았다. 엄마는 정서와 감성, 정적인 놀이를 주로 하는 반면 아빠는 방법과 규칙을 강조하는 논리적, 동적인 놀

이를 주로 함으로 아빠와 엄마가 함께 놀이를 할 때 영유아의 발달에 가장 긍정적이다. 따라서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장난감 무료 대여센터를 확충함으로써 이용하는 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구별 놀이방법과 언어적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아빠들이 교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지, 공, 머플러, 컵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와 놀이하며 학습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1) 국민홍보를 통한 건강생활습관 정보 제공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 영유아들의 생활패턴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홍보가 필요하다. 건전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미디어나 공공자료를 통해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지도에 관한 정보와 이를 위한 가족시간 확보 등과 같은 국민계몽운동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연령에 맞는 적정 보육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7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재원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는바 연령에 맞는 적정 보육시간의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최근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 보육과 휴일 보육의 실시, 유치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치원에 유아들이 머무는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과 교육 정책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능한 자녀와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상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가족 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

영유아기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체험은 정서적 기억을 긍정적으로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학습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유아기의 문화적 경험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필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이 혼자 놀이를 하거나 미디어 이용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돌아온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보다 질적인 가족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안내와 지역사회 문화인프라의 배치와 확충이 필요하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자연친화 놀이터, 놀이시설, 체험기관, 박물관 등이 지역사회 내에 잘 배치되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카페나 동아리를 통해 이러한 정보나 활동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취업모를 위한 양육지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양육의 질이 함께 수반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함께 하는 시간에는 최대한 자녀와 질높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질높은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취업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및 안내 책자 등의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교육 강사를 연계해줄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5) 아버지의 양육 참여 지원

본 연구에서 행동영역별 공유자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13.1%, 어머니가 18.9%로 나타났다. 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의 모든 영역에서 영유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19개의 소분류들 중에서 단지 5개(컴퓨터 이용, 문화/스포츠 관람/행사참여 활동, 스포츠 활동/장난감 가지고 놀이, 장난감 없이 놀기)에서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영유아와 함께 많

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유아를 기르는데 있어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등의 힘이 많이 드는 일에는 주로 어머니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컴퓨터 이용이나 놀이 등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어머니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모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 등을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들에게 영유아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도 이루어져서 아버지들이 영유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송윤진(2011). 보육시설 유아의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습관 실태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15(1), 185-202.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화(2012). 영유아의 생활시간 및 부모-자녀 공유시간 실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정(2003). 우리나라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서울: 학지사.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이경미(2009).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일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미, 이기숙(2009).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일과. 교육과학연구, 40(3), 171-193.
- 이부미(2011).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에 대한 실천적 개념과 교육적 의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1), 5-39.
- 이기숙·손수연(2012). 한국·중국·일본·대만 유아의 일상생활 비교. 유아교육연구, 32(2), 49-71.
- 이기영·이연숙·김의숙·조희금(1999). 국민생활시간활용의 국제비교.
- 이영미(2011). 유아의 일상생활, 자녀양육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의 권리, 16(3), 471-495.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

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 진미정·이윤주(2010).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대한가정학회지*, 48(6), 43-56.
- 최호중·김설한·김성재(2009).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유아의 신체건강과 관련한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3), 35-55.
- 통계청(2010).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보도자료(2000. 7). 199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통계청 보도자료(2005. 5).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통계청 보도자료(2010. 3).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Alegre, A. (2012). The relation between the time mothers and children spent together and children's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Child Youth Care Forum*, 41, 493-508.
- Baxter, J. (2007). Children's time use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Data quality and analytical issues in the 4-year cohort. (LSAC Technical Paper No. 4).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Bianchi, S., Raley, S., & Milkie, M. (2005). "What Gives" when mothers are employed? Time allocation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1975 and 2000, Department of Sociology and Maryland Population Research Center (MPRC).
- http://www.levyinstitute.org/pubs/CP/conf_oct05_papers/bianchi-paper.pdf
- Bianchi, S. M., & Robinson, J. (1997). What did you do today? children's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32-344.
- Boca, D. D., Monfardin, C. & Nicoletti, C. (2012). Children's and parents' time-use choices and cognitive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 (Human capital and economic opportunity working Paper No 2012-6). University of Chicago: Human capital and economic opportunity working group of economic research center.
- Fox, L., Han, W. J., Ruhm, C., & Waldfogel, J. (2011). Time for children: Trends in the Employment Patterns of Parents, 1967 - 2009, *Demography*, 50 (1), 25-49.
- Harding, D. J. (1997). Measuring children's time use: A review of methodologies and finding working paper for Bendheim-Thoman center for research on child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 Hsin, A. (2009). Parent's time with children: Does time matter for children's cognitive achiev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1), 123-126.
- Hofferth, S., & Sandberg, J. F. (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295-308.
- Huston, A. C., & Aronson, S. R. (2005). Mothers' time with infant and time in employment as predictors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6(2), 467-482.
- Larson, R. W., & Ve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1-736.
- OECD(2011a).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OECD.
- _____(2011b). *Social policy division-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 OECD.
- _____(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 Robinson, J. P., & Bianchi, S. (1997). The children's hours. *American Demographics*, 20, 22-24.
- Sandberg, J. F., & Hofferth, S. L. (2001). Changes in children's time with parents: United States, 1981-1997. *Demography*, 38(3), 423-436.
- Sayer, L., Bianchi, S., & Robinson, J. (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43.

Scharf, R. J., Demmer, R. T., Silver, E. J., & Stein, R. E. (2013). Nighttime sleep durat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Division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4(6), 384-91.

Udasky, M. L., & Parker, W. (2007). Married father and mother's time with children.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Parents' and Their Spouses' Employment*(<http://paa2007.princeton.edu/papers/70390>).

<참고 웹사이트>

국제생활시간학회 사이트: <http://www.latur.org>

Abstract

A study on time diary of 1-4 year old children

Namhee Do, Jungsuk Kim, Minkyung Ha

The present study aims to understand basic daily routine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infants and young children's development by investigating their time diary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infant and early childhood care, education and parent education. Time Diaries were collected from records of how the children spent their weekdays and weekends, then the differences in the overall hours daily routines and the hours spent on each behavioral domains were calculated and finally the company while participating in a domain and the rate of togetherness was examined. Activity hours by age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ctivities of children at each age. Lastly, children's working hours were analyzed by the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s, employment status, and children's sex.

To carry out this study, foreign and national literature were reviewed along with conducting surveys and consulting meetings with field experts. The subjects were five hundred infants and young children (boys 51.2%, girls 48.8%) aged between 1 and 4 (Age 1 25.6%, age 2 26.6%, age 3 23.6%, and age 4 24.2%) residing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regions. The mothers or the main carer were surveyed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childr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verage daily activity hours of age 1 to 4 children were 14 hours 50 minutes for personal maintenance, 4 hours and 44 minutes for socializing and playing activities, 3 hours and 8 minutes for surrogate care, 1 hour and 4 minutes for travelling, 10 minutes for learning,

and 1 minute for helping household chores.

Specifically, sleeping hours of age 1 children were 12 hours and 20 minutes, 11 hours and 49 minutes for age 2 children, 11 hours 32 minutes for age 3 children, and 11 hours 29 minutes for 4 year olds. Time spent on learning with workbooks were 2 minutes for 2 year olds, 5 minutes for 3 and 4 year olds. Hours of surrogate caring were 3 hours 40 minutes for 4 year olds being the longest, 3 hours and 28 minutes for 3 year olds, and 2 hours 15 minutes for 1 year olds. On the other hand, 1 year olds spent the most time of 5 hours 3 minutes on social interaction and play, 4 hours 41 minutes and 4 hours 40 minutes for 2 and 3 year olds, respectively. Children spent 61.9% of the time alone, and their most common company was their mother (18.9%) then the fathers (13.1%) followed by teachers (11.5%) and siblings (11.1%).

These policy suggested were made based on these results. First of all, in order to develop healthy basic habits, children need to improve their sleep patterns with early intervention. Also, because long-hour use of media from infancy may have negative effects, parent education on infants' use of media should be provided and support parents to enable their children to experience active playing.

Secondly, a set of standards for age appropriate basic habits such as sleeping hours, media use hours, learning methods sh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children to develop a life-long inquisitive mind.

Thirdly, public promotion of information on healthy habits should be implemented. In other words, media and public promotion of information on instructing children to develop basic habits and public education on the importance of spending more time with family may be practiced.

부 록

부록 1. 시간일지

부록 2. 부모 질문지

부록 3.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

부록 1. 시간일지

영유아 생활시간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영유아 생활시간조사」로 영유아의 생활실태를 시간에 따라 파악하여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육아정책 지원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조사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수고로움이 요구되는 작업이오니 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부연구위원

(☎ 02 398 7707, cando@kicce.re.kr)

하민정 연구원

(☎ 02 398 7762, tomatopr@kicce.re.kr)

조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임유정 과장

(☎ 02 3488 2787)

자녀이름		자녀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출생순위	()남 ()녀 중 ()째
연령	<input type="checkbox"/> 만 1 세 (2011년 8월 1일 ~ 2012년 5월 31일 생. 15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만 2 세 (2010년 8월 1일 ~ 2011년 7월 31일 생) <input type="checkbox"/> 만 3 세 (2009년 8월 1일 ~ 2010년 7월 31일 생)		

	<input type="checkbox"/> 만 4 세 (2008년 8월 1일 ~ 2009년 7월 31일 생)		
자녀와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동지역 <input type="checkbox"/> 읍면지역
시간일지 작성기간	() 월 () 일 ~ () 월 () 일		

<시간일지 작성 전 숙지사항>

※ 시간일지 작성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읽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일지 작성일 선정

평소 생활과 가장 비슷한 **평일(월~금) 중 1일**과 **주말(토/일) 1일**을 선정하여 시간일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일지 작성일은 반드시 자녀의 평소 생활을 대표할 수 있는 날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날(휴가 기간, 명절 등)은 평소 생활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 불가

2. 10분 단위로 아이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

시간일지는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24시간 동안의 아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해 주세요.

- 10분 내에 여러 가지 활동을 연속해서 했다면 → 가장 긴 활동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기입
- 같은 활동을 10분 이상 계속했다면 → 시작한 시간의 기입 칸에만 활동을 기입하고 끝난 시간까지는 화살표(↓) 표시

3. ‘주활동’과 ‘동시활동’ 기록방법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동시에 했다면, 주로 한 활동을 ‘주활동’란에 기입하고, 부차적인 활동을 ‘동시활동’란에 기입합니다.

4. ‘함께한 사람’의 기록방법

자녀와 함께 주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함께한 사람’란에 기입합니다.

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다 기입합니다. 예) 자녀가 식사를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와 함께 했다면 ‘함께한 사람’ 2, 3, 4 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으나 주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표기 하지 않습니다.

5. 주행동 작성 시 주의사항

기록방법	부족한 기록의 예(X)	올바른 기록의 예(O)
활동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입	<p>아빠와 놀이하기</p> <p>EBS 시청하기</p> <p>외출하기</p> <p>등원준비 또는 어린이집에 갈 준비</p> <p>비행기 놀이</p>	<p>아빠와 레고블럭 만들기</p> <p>EBS 시청하기 (타요 폴리)</p> <p>도산공원 산책가기</p> <p>세수하기, 옷갈아입기 등 등원 준비 시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p> <p>비행기 놀이(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한 놀이인지 장난감을 이용해서 한 놀이인지 구체적으로 기입</p>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였을 경우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나누어서 기록	<p>고구마 먹기, 그림책보기</p> <p>우유 먹으며 노래 부르기</p>	<p>주행동란에 고구마 먹기, 동시행동란에 그림책 보기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주행동란에 작성하면 안 됨)</p> <p>두 가지 행동 중 10분 동안 더 길게 한 행동을 주행동란에 적고 나머지 행동을 동시행동란에 적음</p>
학습을 하였을 경우 구체적으로 써주기	<p>학습</p>	<p>학원숙제, 인터넷이용 학습, 교구이용 학습 등 구체적으로 기입하기</p>

✓ 예시용- 시간일지(3월 29일 금요일 아침 8시 ~ 낮 12시)

시간	자녀의 주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르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함께한 사람 <small>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small>								행동 장소 어디서 행동 했나요?	동시행동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1	2	3	4	5	6	7	8		
		혼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아침 8시	수면	①	2	3	4	5	6	7	8	집	
10		1	2	3	4	5	6	7	8	수면·낮잠의 경우에 함께한 사람 항목은 항상 혼자임	
20		1	2	3	4	5	6	7	8		
어린이집 준비라고 통틀어 쓰면 안 됨	씻기 목욕(어릴기) 아침 식사하기	1	2	③	4	5	6	7	8		
		1	2	③	④	5	6	7	8		
9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	1	②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어린이집 생활	1	2	3	4	5	6	⑦	⑧	어린이집	
50		1	2	3	4	5	6	7	8		
10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1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낮 12시		1	2	3	4	5	6	7	8		

✓ 예시용 - 시간일지(3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 저녁 8시)

시간	자녀의 주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트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녀와 함께 수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출자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오후 4시	어린이집에서 생활	1	2	3	4	5	6	⑦	⑧	어린이집	
10	↓	1	2	3	4	5	6	7	8		
20	↓	1	2	3	4	5	6	7	8		
30	↓	1	2	3	4	5	6	7	8		
40	↓	1	2	3	4	5	6	7	8		
50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출	1	2	⑤	4	5	6	7	8		
5시	↓	1	2	3	4	5	6	7	8		
10	tv시청(EBS 타고 물리)	①	2	3	4	5	6	7	8	집	
20	↓	1	2	3	4	5	6	7	8		
30	통슨이 인형놀이	1	②	3	4	5	6	7	8		부모동시성
40	↓	1	2	3	4	5	6	7	8		
50	↓	1	2	3	4	5	6	7	8		
6시	저녁식사하기	1	③	④	4	5	6	7	8		아빠랑 진화통과
10	↓	1	2	3	4	5	6	7	8		
20	↓	1	2	3	4	5	6	7	8		
30	↓	1	2	3	4	5	6	7	8		
40	↓	1	2	3	4	5	6	7	8		
50	인터넷으로 영어단어 게임하기	①	2	3	4	5	6	7	8		
7시	아파트 놀이터로 이동	1	2	⑤	4	5	6	7	8		
10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기	1	2	3	4	5	6	7	8	놀이터	
20	↓	1	2	3	4	5	6	7	8		
30	걸어서 집으로 이동	1	2	3	4	5	6	7	8		
40	↓	1	2	3	4	5	6	7	8		
50	목욕하기	1	2	3	4	5	6	7	8	집	
저녁 8시	↓	1	2	3	4	5	6	7	8		

□ 평일용 (월 일 요일 새벽 4시 ~ 아침 8시) ②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르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 자	부 부	모 모	조 부 모	형 제 자 매	친 구	선 생 님	기 타	어디서 행동 했나요?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새벽 4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5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6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7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아침 8시		1	2	3	4	5	6	7	8		

□ 평일용 (월 일 요일 아침 8시 ~ 낮 12시) ③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트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자	부부	부모	조부모	제자	친구	선생님	기타	어디서 행동 했나요?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침 8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9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0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1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낮 12시		1	2	3	4	5	6	7	8		

□ 평일용 (월 일 요일 낮 12시 ~ 오후 4시) ④

시간	자녀의 수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주요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수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어디서 행동 했나요?	자녀가 수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1	2	3	4	5	6	7	8		
낮 12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2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3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오후 4시		1	2	3	4	5	6	7	8		

□ 평일용 (월 일 요일 오후 4시 ~ 저녁 8시) ⑤

시간	자녀의 주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트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어디서 행동 했나요?	동시행동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자	부	모	조부	형제	친구	선생	민	기	타		
오후 4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5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6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7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저녁 8시		1	2	3	4	5	6	7	8				

□ 평일용 (월 일 요일 저녁 8시 ~ 밤 12시) ⑥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루트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혼 자	2 부 부	3 3 모	4 조 부 부	5 형 제 자 매	6 친 구	7 선 생	8 기 타		
저녁 8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9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0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1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밤 12시		1	2	3	4	5	6	7	8		

㉔ 주말용 (월 일 요일 새벽 0시 ~ 새벽 4시) ①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어디서 행동 했나요?	동시행동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트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새벽 0시		혼자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2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3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새벽 4시		1	2	3	4	5	6	7	8		

㉞ 주말용 (월 일 요일 새벽 4시 ~ 아침 8시) ㉞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르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혼 자	2 부 모	3 부 모	4 조 부모	5 형 제 자 매	6 친 구	7 선 생 님	8 기 타		
새벽 4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5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6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7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아침 8시		1	2	3	4	5	6	7	8		

㉞ 주말용 (월 일 요일 아침 8시 ~ 낮 12시) ㉞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로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 자	부	모	조 부	제 자 매	간 부	선 생	기 타		
아침 8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9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0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1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낮 12시		1	2	3	4	5	6	7	8		

㉔ 주말용 (월 일 요일 낮 12시 ~ 오후 4시) ④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어디서 행동 했나요?	동시행동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트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자	부모	조부모	제자매	친구	선생님	기타			
낮 12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2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3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오후 4시		1	2	3	4	5	6	7	8		

㉔ 주말용 (월 일 요일 오후 4시 ~ 저녁 8시) ㉔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트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어디서 행동 했나요?	
		1	2	3	4	5	6	7	8		
		혼 자	부 부	모 모	조 부 모	형 제 자 매	친 구	선 생 민 간	기 타		
오후 4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5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6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7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저녁 8시		1	2	3	4	5	6	7	8		

㉞ 주말용 (월 일 요일 저녁 8시 ~ 밤 12시) ㉞

시간	자녀의 주행동	함께한 사람								행동 장소	동시행동 자녀가 주행동 외에 동시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무엇을 했나요? · 주르 한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주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복수선택 가능)									
		1	2	3	4	5	6	7	8		
		혼 자	부 부	모 모	조 부 모	형 제 자 매	친 구	선 생 님	기 타		
저녁 8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9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0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11시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1	2	3	4	5	6	7	8		
50		1	2	3	4	5	6	7	8		
밤 12시		1	2	3	4	5	6	7	8		

2-5. 귀하는 요즘 가정생활이나 직장 등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가치있음 ② 가치있음 ③ 보통임 ④ 가치없음 ⑤ 전혀 가치없음

▣ 자녀의 시간 사용

※ 시간일지를 기록한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2-6. 귀하는 자녀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2-7 ② 아니다 ⇨ 2-8

2-7. 귀하가 자녀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여 살아간다면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십니까?

- ① 건강 ② 안전 ③ 놀이 ④ 학습 ⑤ 기타

2-8. 만약 자녀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본 조사에서 시간일지를 작성하면서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9. 시간일지를 작성한 지난 이틀 동안 귀하 자녀의 시간사용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일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보통임	④ 불만족함	⑤ 매우 불만족함
주말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보통임	④ 불만족함	⑤ 매우 불만족함

2-10. 귀하 자녀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좋은편임 ③ 보통임 ④ 나쁜편임 ⑤ 매우나쁨

2-11. 귀하 자녀의 평소 기분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좋은편임 ③ 보통임 ④ 나쁜편임 ⑤ 매우나쁨

3.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양육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 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자녀와 귀하가족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귀하 가족 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____명

4-1-1. 가족 구성은?

- ① 부부 + 자녀
- ② 어머니 한부모 + 자녀
- ③ 아버지 한부모 + 자녀
- ④ 조부모 + 부모 + 자녀
- ⑤ 조부모 + 한부모 + 자녀
- ⑥ 한 조부모 + 부모 + 자녀
- ⑦ 한조부모 + 한부모 + 자녀
- ⑧ 기타

5. 다음은 귀하의 가정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본인과 남편의 항목에 기입하거나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본 인	남 편
1) 연령		만 ____세	만 ____세
2) 교육 수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3) 취업 상태	① 전일제-재직중 ② 전일제-휴직중 ③ 시간제 ④ 미취업		
	보 기	본 인	남 편
4)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직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관련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학생 ⑪ 무직,주부(가사) ⑫ 기타		
5) 하루 평균 근무 시간	① 주중 시간		
	② 주말 시간		
6) 월평균 임금 (세금공제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7) 월평균 가구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등의 가계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세금공제전)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 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상품권 수령확인	본인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생활시간 조사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상품권을 수령하였음. 응답자: (인)
--------------	---

연구보고 2013-10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02-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39-8 93330